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2-16



##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고려대학교)  
권성아 (통일미래연구소)  
김귀옥 ( " )  
박현선 ( " )  
오기성 (인천교육대학교)  
박찬석 (통일미래연구소)  
전영선 ( " )  
정지웅 ( " )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2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산하 7개 국책연구기관과 2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I. 서 론

본 연구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의 3가지 단계에 따라 각 단계의 상황적 특성과 이에 요구되는 통합의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3개년에 걸친 연구 중 제 3차 년도에 해당하는 ‘실질적 통합단계’를 가정하고 수행된 과제임을 먼저 밝힌다.

민족공동체 실현의 첫 번째 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1민족 2국가 2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간 사회·문화·경제 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의해서 남북간 평화공존체제가 정착되는 단계다.

남북연합 단계는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구축, 평화공존이 정착·제도화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통일국가로 탄생할 때까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의 과도체제로서 특수한 기능적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연합의 체제적 특징은 연합정부는 대외적으로 제3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주권성을 갖지 않으며, 남북한 각기 주권을 가지고 정치·외교·군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2체제 2정부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남북한간에는 국제법상의 관계가 아닌 국내법에 준하는 특수한 법적 유대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실질적 통합단계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통합의 단계에서 별개의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 내에서 통일을 목전에 두고 통합준비의 완성 또는 실제적인 실행이 진행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체제에서 통합이 제도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정착된 시기이며, 법·제도적 국가통합의 최종 단계만 남겨 놓고 있는 통일의 전 단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체제의 제도화가 심화되고 공고해지는 남북연합의 성숙기를 의미한다. 이 때부터는 문자 그대로 남북통합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문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일국가로

두 체제가 결합하는 데에 따르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모든 준비과정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질적 통합시기야말로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양적·질적 통일과제가 집중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문제의식을 좀더 살린다면 결국 교류와 협력 단계가 고양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하나의 국가를 준비하는 단계가 실질적 통합단계라고 볼 때,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완전한 통일국가단계를 앞당기거나 국민적 수준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이 바로 문화예술의 역할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체나 작품 중심의 교류에 대한 논의의 차원을 달리하여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환경에 맞추어 앞에서 설정한 상황에 맞추어 거시적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분단의 이질감을 극복하며, 세계 문화발전에 동참하면서,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문화예술분야의 통합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외국의 문화예술 통합 사례로서 독일과 중국·대만의 통합 사례를 살펴본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전후의 교류 협력과 통일 이후 갈등 양상, 문화통합 관련 법령 및 행정제도 개편 및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문화 교류에 관한 기본인식과 교류 협력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모색한다. 한국·조선족 문화예술 교류의 경우에는 한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집변, 한국·조선족 사회의 문화교류 현황, 북한·조선족 사회의 문화교류 현황, 남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현지인들의 선호도, 한국문화 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조선족 교류가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둘째,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문화예술의 지위와 역할을 적시하기 위하여 우선 남북한 문화예술의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이질성과 동질성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화예술통합 논의 속에서 이질성과 동질성의 자리매김을 시도한다.

셋째,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문화예술의 갈등 양상을 조망한다. 갈등은 세 수준에서 분석한다. 즉 문화예술의 이념과 제도의 상이성, 문학예술의 외현적 측면, 의식구조 및 가치관의 차이 등에 따른 갈등의 양상을 규명한다.

넷째,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통하여 남북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모색한다. 남북 문화교류 상황, 문화환경과 문예정책을 모색한다. 또한 남북 문화교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바탕 위에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지향점은 여섯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미래지향적 창의적 통합문화, 문화적 동질성 회복,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통합, 세계적 보편문화에 기여하는 문화, 남북한, 해외 한민족의 문화정체성 정립의 방향성이 문화예술의 통합지향점이다. 이와 함께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세부적 문화교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위해 탈북 연예인들에 대한 면담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과의 수교 후 문화접변현상으로 나타난 조선족들 사이의 여러 현상에서도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중국 현지 연구자들과 연구교류를 하고 또한 본 연구진이 중국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 II. 외국의 문화예술 통합 사례

### 1. 독일의 문화예술 통합 사례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동서독간 문화교류는 1986년에 맺어진 문화협정 체결 이후부터이다. 이 협정에 따라 예술가들의 교환방문과 예술단체들의 방문 및 초청공연이 전보다 쉽게 실현되었다. 그러나 조형예술이나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동독의 작품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서독에서 전시되거나 출판되었으나, 서독의 작품은 동독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다.

분단기간 동안 동서독간에 문화적 이질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 있었으며 표면적으로 매우 방대한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것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통합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못했다. 따라서 통일독일에서 문화적 이질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즉, 양독 간의 문화교류는 양독 간에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유대감을 발견하는 데 기여를 했지만, 교류의 실제적 한계로 말미암아 각 체제가 생성한 이질적 생활양식을 극복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인들은 28년만에 열린 장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넘어 왔다. 이후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동·서베를린 오페라 극단들 사이에서도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여러 방문공연을 보여주었으며,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본선경쟁 부문과 영화광장, 파노라마 부문의 영화들을 양 베를린에서 상영하였다. 그리고 베를린 연극제는 1990년에 처음으로 양 베를린에서 분산 개최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동독 연극의 위기”와 “통합된 베를린의 연극과 유럽 연극”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이 동서독 및 유럽의 저명한 연극비평가들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도 했다. 또한, 매년 9월과 10월에 양 베를린에서 각각 따로 열리던 베를린 축제행사가 1990년부터는 상호 협력하여 공동 제작으로 작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베를린장벽 붕괴의 기쁨도 잠시,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1990년 7월이 되자 동·서독 사이의 경제적 차이와 사회구조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현실적 문제점과 갈등들이 문화의 영역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동·서독 사이에 문화교류와 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화행정가들은 통일 시대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과 단일 민족문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입안작업을 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형식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예술가들의 직접적인 접촉과 제안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상호이해와 협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 12월 20일 서독의 콜 수상과 동독의 모드로브 총리는 드레스덴 회담에서 2년간의 양독 문화계획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며, 예술 각 분야에 걸친 100개의 프로젝트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0년 3월 9일 동베를린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독의 내독 관계부 장관과 문화부 각료회의장과 동독의 문화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독-독-문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여기서 양측은 양독 국가의 접근과 통합과정에서의 문화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며, 1) 법적 근본문제, 문화적

기본구조와 후원체제, 2) 문화유산(유적·문화재)의 공동 보존, 3) 문화예술 교육, 4) 외국 내에서도 외국과의 문화 교류 등 4개의 주요 항목을 논의하였다.

독일과 우리는 분단 상황의 진행과정과 문화의 차이, 심성과 역사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이나 방법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문화예술 통합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실질적인 통합단계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우선, 독일은 교통 및 통신 소통이 오래 전부터 가능하였고 지속적인 문화교류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거의 이동의 물결이 없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동독의 서독으로의 일방적인 이동과 동독의 황폐화를 가져 왔지만, 우리의 경우 미리 쌍방향의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독일처럼 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과 달리 우리에게서 민족문화의 재창조가 민족 내부에서든 외국에 대해서든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문화국민으로서의 의식이 비교적 강하였던 데다가 지금도 북한은 주체성이 강하고 남한에서도 주체적인 문화의 세계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2. 중국·대만의 문화예술 통합 사례

1986년까지는 중국의 3통4류 제안에 대하여 대만은 우선 해외에서 중국과의 비공개 학술접촉을 허용하였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대만 예술가들은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 예술가들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였다. 그러다 1987년 11월 대만은 국민들의 중국 방문을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등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양안간의 교류가 점차 증대되었으며, 1993년부터는 급격히 확대되었다.

제1기인 1987년부터 1992년 동안 양안의 적대적 정치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양안간 교류·협력을 위한 중국의 정부조직이 먼저 신설되고, 대만 역시 유사한 조직을 신설하였다. 특히, 1987년 11월 대만의 대중 군사계엄령 해제로 인한 대만인들의 중국 방문 허용은 양안 교류에 있어 중

요한 조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비공개 학술 접촉은 대만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으며, 1987년부터는 학술·교육 및 친척방문 교류가 중국과 대만간 사회·문화 교류의 선도 역할을 하였다. 1987년 중국은 “대만 학생의 중국 내 학교 진학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1988년부터 소수이지만 대만 학생이 중국의 예술·의학·문학 등을 배우기 위해 본토로 유학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제2기인 1993년부터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여러 정치적 변수로 인하여 경제 협력을 포함한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단기간 감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의 경우 양안간 문화와 예술 교류가 정체 사회·문화 교류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며 문화와 예술 교환을 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이 전체 방문자의 1/2에 달할 정도였다. 또한 교육·체육·사회과학·영화·과학기술·텔레비전·건강 관련 교류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언론·출판·종교·관광·민속신앙·금융·세계·항공·핵에너지·법률 분야의 교류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1994년 3-4월에 발생한 천도호 사건을 계기로 대만 당국이 양안의 사회·문화 교류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으나, 중국이 대만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정책을 채택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여 양안간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전반적으로 증폭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9년 1월 30일 인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1988년부터 1998년 기간 동안 중국을 방문한 연인원은 1,300만 명에 달하며, 공식·비공식 초청을 통해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약 4만 명이며 교류 항목은 5,000건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2001년에 접어들어 1월 2일 대만 선박이 중국에 들어감으로써 3통이 처음 실현되었으며, 2월 6일 중국을 출발한 항공기가 대만에 도착함으로써 분단 이후 최초의 쌍방향 직항이 실현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신화사 대만 주재 기자에 대륙 언론인이 부임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사례를 볼 때, 한국은 북한에 대해 우선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체육·경협·교육·관광·친척 방문 등 종류에 따라 다각적이고 다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관계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 즉, 정치 관계가 소원할수록 경제·사회·문화 부문의 교류와 협력은 실무 차원

의 협상으로 상호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남한은 사회·문화·예술 등 여러 방면의 교류에 있어 북한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예술가와 예술단의 상호 방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이견의 폭을 좁혀 나감으로써, 이해의 증진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먼저 구축할 필요가 있다.

### 3. 한국·중국조선족 문화예술 교류 사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조선족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조선족 사회는 한국과의 교류 과정을 통해 지역의 경제가 예전에 비하여 호전되었고 조선족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 못지 않게 관광객의 추태나 한국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산업재해, 향락소비 문화의 만연 등의 부작용도 낳았다.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유산의 공통성만을 생각하면서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체제 속에서 생활하면서 축적된 문화적 차이를 간과한데 있었다. 수십 년간의 단절과 상이한 문화체제에서 몸에 밴 생활과 문화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국의 정치, 문화와 시장경제의 한국적 상황은 서로에게 몸에 맞지 않은 옷을 강요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한 일이었다.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변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전개되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친한 감정과 분위기의 성숙이었다. 국권상실기에 모국을 떠났던 동포들에게 한중 수교를 통한 교류는 민족적 동질성에 입각한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제2단계에서는 반한 감정으로의 전환이다. 초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문화적 이질감을 겪으면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감정은 신뢰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감정적인 요인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조선족들의 불법취업과 한국인들의 우월감은 이러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제3단계는 상호 체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화해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사회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산업

화 과정에서 겪었던 사회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대면적 접촉이 증가하면서 서로에 대한 생활방식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하기 시작하였다.

본 항목에서는 한국·조선족 사회의 문화교류 현황으로(1) 매체 (2) 문화취향 (3) 연변의 한국 문화보급 (4) 한국문화 유입에 따른 변화 등을 다루었고, 또한 북한·조선족 사회의 문화교류 현황으로 (1) 유통경로 (2) 연변에 소개된 북한 문화예술 등을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현지인들의 선호도를 다루었다. 그리고 한국문화 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1) 불건전한 문화풍토의 확산 (2) 한국 출국으로 인한 가정 파탄 (3) 청소년의 문제 확산 (4) 민족교육 문제 등을 다루었다. 끝으로 한국·조선족 교류가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교류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는데 첫째, 고유한 언어를 지키면서 독자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한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정도가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 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개방의 과정과 사회발전 정도의 유사성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나 사회가 개방될 것이며, 개방의 방향과 과정은 중국의 경제개방 정책에 일정 부분 유사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개방에 따른 남북한의 교류가 추진되면서 한국과 조선족 사회가 겪었던 문화적 충돌 현상도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교류는 한국기업의 조선족 사회 투자, 조선족의 한국 기업 취업, 한국 기업을 통한 제3지역 취업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다.

### Ⅲ. 남북한 문화예술의 구조적 분석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성은 한반도에 지난 50여 년간 상응하기 어려운 두 사회체제의 존립과 근대화에 따른 사회구조 및 문화 변화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남한체제와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체제간에 체제상응성

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문화적 이질성의 심화를 이끈 한 조건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분단 이전의 상태인 과거의 공통 기준점에서 보면 북이 남과 다른 만큼, 북에게는 남이 달라진 것으로 비칠 것이다. 즉 이질화의 상대성이다. 예컨대 남한은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전통문화를 지속시켜 왔으나, 공업화의 과정에서 전통문화의 변질과정을 경험하였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은 내면적인 전통문화의 변형을 의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남한이 형식적인 것으로 전통문화를 변형시켜 왔다면, 북한은 내부에서 외형으로 전통문화를 변질시켜 온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면 남북의 이질성의 형성은 남과 북 사회의 공통적이고 동일한 모습이다. 그 변화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제도와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건 또는 근대화의 정도에 따른 결과이건, 사실상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신도 이질화의 과정을 걸어왔다.

우선 이념적 차원에서 남한은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영역에서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비교적 약하게 작용하고, 되도록 문화현상을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북한은 집단주의와 획일성을 특징으로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토대 위에 수령과 노동당이 문화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를 선택하여 집행해 왔다. 여기에 강력한 정책기구를 필요로 한다. 남한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제도와 기구들이 북한에서는 중앙권력, 특히 1인 중앙집권의 경향을 지님으로써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이념과 제도는 문화예술, 즉 심미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화예술의 가치지향의 차원에서 보면, 남한의 문화예술은 다양성과 상대적 자율성 보장을 큰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외현적 차원에서 남한의 문화예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현실변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서구의 새로운 사조를 수용하여 문화예술적 형

식과 내용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도덕주의와 유미주의는 때로는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는 김정일의 주도로 문화예술이 지향해야 할 가치지향이 이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김정일의 「주체문학론」, 「영화예술론」, 「미술론」, 「연극예술론」이 상징적 차원의 경직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가치지향을 기반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작가동맹이나 예술가동맹의 구성원들에 의해 구체적인 문학예술의 형태로 나타난다.

주민들이 심미적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 향수 또한 이질화의 양상을 보인다. 현재 남한의 문화생활, 특히 여기문화는 여가의 상업화 현상, 계층 분화현상, 개별화현상, 공동체적 생활문화의 특성, 외래 여기문화의 추종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여가 개별화 현상은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으로, 경제적으로는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뒷받침되며 대표적인 활동에는 텔레비전 시청이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 걸음으로는 문화생활에 정치생활, 경제생활과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화예술정책은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치(당)와 경제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문화향수 또한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문화생활은 집단주의적 성격, 일종의 지속적인 전시동원체제하에서의 문화생활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질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공식적인 체제가치가 기계적으로 주민들에게 내면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문화예술의 부분에서는 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에 영향을 받는 측면과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측면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 발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심미적 문화의 경우 남북한사회가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화예술의 경우 많은 이질화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심미적 문화 전체가 완벽한 이질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 문화가 전통적인 측면에서 동질성이 있고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

서 이질성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주로 70년대에 남북한 냉전체제하에서 정립된 남북한 문화에 대한 시각에 기초한다. 그러나 남북한 문화에 있어 전통적 측면에서만 동질성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질성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북의 이질적 측면, 즉 ‘다름’일지라도 양자의 화해협력과 통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다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는 음악, 무용, 연극, 미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IV.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문화예술의 갈등 양상

남북한이 제도적, 영토적, 법적 통일을 이룬 후 본격적인 문화예술 부문의 통합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속에서 오랜 동안 문화예술을 전개하여 왔으므로 여러 부문에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첫째로, 문화예술의 이념과 제도의 상이성으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사회에서 다양한 문학예술 사조의 유입으로 인해 북한의 주체사실주의와 이에 기초한 작품의 해체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북한에서 진행되어 온 국가 중심의 문예정책과 남한에서 진행되어 온 민간중심의 문예정책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한 문화예술에 대한 북한의 당 통제가 사라질 경우, 당의 통제하에 있던 문예단체들은 통일한국에서 단체에 소속된 전문적인 창작 예술인은 자유롭게 단체를 구성하거나, 한국의 단체로 통합될 수도 있지만, 종전의 단체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단체내 노동당 소속의 핵심 요원들은 자신의 지위와 소속 문제로 갈등을 겪게될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존재하던 북한 지역의 상훈 제도는 통일한국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로부터 받는 상훈보다는 여러 단체에서 개최하는 문학예술에 출품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됨으로서 작가나

예술인의 지위가 상승하는 제도로 변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북한의 상훈 제도를 폐지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북측의 문화예술인들은 대거 실직 상태에 놓여 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

현재 우리의 예술교육은 북한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반 교육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학원 같은 사설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실력이 바탕이 되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시 문화예술 교육분야에서 남한의 현 교육제도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에 북한지역 주민들은 통일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북한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원하는 인구는 그만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부분의 정규 교육 이외에 사교육에서도 남한지역 학령아동들에 비해 북한지역 학령아동들이 기회가 적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특히 취학 전 아동에게 중요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둘째로, 문학예술의 외현적 측면의 갈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북한에 비해 한국은 문화예술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준이 북한보다 20년 내지 25년 정도 월등히 앞선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 문화예술의 수준 차이가 심화됨에 따라 북한 출신 예술가들은 변화된 사회구조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화예술부분에서 중요한 장르로 취급했던 '수령'이나 체제 우월성, 이상화 관련 문화예술작품들은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 부문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의 경우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같은 외래어를 쓰더라도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 한자어를 한글로 풀어쓰는 경우,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에서 사용되는 각종 전문적인 지위에 대한 명칭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간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술인간의 갈등 측면에서 보면, 통일 한국에서 서구의 다양한 문예 사조와 기법에 익숙한 남한 예술인들은 통일한국에서 북한 예술인들을 열등하게 취급하려 할 것이다. 창작에서든 기능에서든 남측 예술인들은 북

한측 예술인들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냉소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지금 현재 남한 사회에서 활동하려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실제 겪는 일들이다. 또한 남한의 문화예술에 맞게 스스로 노력해야 하지만, 북한 예술인들은 열등감이나 남한 동료예술인들의 냉소적 태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지니게 됨으로써 양측 예술인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남한의 문화예술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개인의 소유욕에 대하여 북한 문화예술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은 전체나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의식이 강하나 순응적이고 타율적인 획일적 사고양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남한의 문화예술인들에게서는 개인적 자유의식을 기반으로 자아의식과 자기주장이 뚜렷하나 개인중심의 이기주의와 자유로 포장된 방종주의를 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령의 절대권력하에 구축된 전체주의적 당관료 제도와 이에 기초한 문화예술 관련 제도에 익숙해 진 북한 예술인들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며 부단한 경쟁을 통하여 자아를 개발하여 온 자주성이 강한 남한 문화예술인들과 위에서 하리는 대로만 하고 기계적으로 순응하여 온 수동성이 강한 북한 문화예술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집합적 정체성은 물론, 개인적인 자기 정체성까지도 동요될 수 있다. 더욱이 남한이 우세한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배적 위치에서 통일과정을 주도할 경우 남한의 문화예술인들이 일방적인 우월 의식을 가짐으로써 북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입히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문화 통합에 역행하는 저항 문화를 양산할 수 있다.

문화향수 차원에서도 일반 주민들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사회가 동원이나 '집단주의 원리' 아래 움직여지기 때문에 통일 한국에서 발생할 일상생활상의 여가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주민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업,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는 남한 사람들의 생활태도에 대해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 풍요롭게 물질생활을 하는 남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상대적

빈곤의식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V.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문화예술 통합 방안

통일이란 분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상호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완전한 통합체를 이루는 과정이지 그 자체로서 결과물이 아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비록 규범적, 제도적으로 효율적인 통일정책이 추진된다고 해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과 이질감이 정치세력화되거나 갈등으로 남는다면, 통일이라는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는 정치, 외교, 군사 분야와 달리 하나의 집중된 제도나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문화는 계층별, 직업별,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성이 바로 정치, 경제적 제도 통합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불만과 불안을 수용하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 적응력을 높이며, 이념과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된다.

실질적 통합단계란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증진되어 인적·물적 교류가 추진되고 있는 통일직전의 상황으로 현재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의 독립적 교류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둘째, 예술인과 예술 작품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남북한 사이에 ‘문화예술 교류협정’ 등과 같은 제도화된 협정이 이루어지고, 현재의 교류상황과는 달리 국가의 통제나 규율이 완화된 상황에서 인적, 작품 교류가 진행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 사이의 대중 매체가 단일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중파나 위성방송의 수신이 자유로와 짐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대중 매체가 시간차 없이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시장이 개방된다는 점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교류는 정치적 배타성을 극복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통합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교류에 따라서 오랜 동안

대면적 접촉이 없었던 만큼 상호 문화에 대한 이질감의 확대, 청소년 모방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예술의 교류는 적극적인 교류 추진에 따라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필연적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오랜 동안 상호 왕래나 상호 문화접촉이 중단되었다시피한 만큼 상호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접촉에서 익숙한 기호(약속)와 상징들을 잃어버리고 낯설고, 과거에서 습득한 과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체제 안에서 새로운 체제로 강요당하는 ‘문화적 충격(Cultural Shock)’ 상황은 남북교류를 통해 최소한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은 상호 이해의 어려움이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문화적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문화교류가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남북한의 통일은 세계역사에서 이념적 냉전의 종말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통일 한국의 국가이미지, 민족적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분단의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적 정체성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 속에서 문화예술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화 갈등 해소하고, 통합 문화의 통제와 규율로 인한 문화적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하며, 통합이후 대두될 민족문화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해야한다. 또한 대외 문화유입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남한의 문화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문화예술 교류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분야, 문화산업적 협력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문화교류는 1) 미래지향적 창의적 통합문화 형성, 2)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기여, 3)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통합, 4) 세계적 보편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통합, 5) 남북한, 해외 한민족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기여, 6) 문화산업적 측면의 접근 필요에 맞추어 구체적인 교류가 진행되어야 한다.

교류 형태에 있어서는 예술기관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서 국가적 차원, 공기관적 차원, 민간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개인별 차원으로 구분하여 교류하는 것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문화예술 단체로서 민족적 특색이 강한 단체나 남북한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예술단체간의 교류에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순수예술 분야나 북한의 특수한 분야는 문화관련 산하기관으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이다. 국가 차원의 교류에 준하는 교류와 협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남북한 단체의 공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상업화된 특성을 결합하여 정기적인 교류보다는 교류의 성격과 규정을 협약에 의한 교류, 특별한 목적에 따른 기획 교류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단체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이나 세계 지원 등을 통해 남북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교류 자체보다 문화산업의 직접적인 성과에 목적을 두고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가능한 분야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지원이다. 통일한국 시대의 문화예술은 지역 문화와 중앙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동질성이 높거나 지역간 교류가 추진된 지방자치단체간의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기타 목적에 포함된 종합적 차원의 교류 협력이다.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통합단계에 이르렀으나 국사분야와 같이 통합직전까지 기관 단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류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단체별 교류보다는 다른 사업을 통한 우회적인 교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개인적 차원의 교류이다. 시인, 소설가 등의 작가, 영화문학가, 대표적인 예술가 등의 경우에는 작품집 발간, 개인전 등의 방법으로 교류

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인 분야인 분장, 무대미술, 촬영, 컴퓨터 그래픽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교육은 향후 남북한의 방송, 영화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 VI. 결 론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은 세계역사에서 이념적 냉전의 종말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통일 한국의 국가이미지, 민족적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분단의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적 정체성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 속에서 문화예술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화 갈등 해소하고, 통합 문화의 통제와 규율로 인한 문화적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하며, 통합이후 대두될 민족문화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해야한다. 또한 대외 문화유입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남한의 문화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문화예술 교류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분야, 문화산업적 협력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 목 차

I. 서 론 .....	1
II. 외국의 문화예술 통합 사례 .....	7
1. 독일의 문화예술 통합 사례 .....	7
가. 통일 이전 문화예술 교류 협력 .....	8
나. 통일 이후 문화예술의 갈등 양상 .....	13
다.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제도화: 문화통합 관련 법령 및 행정제도 개편 .....	16
라. 독일 문화예술 통합 사례의 시사점 .....	17
2. 중국·대만의 문화예술 통합 사례 .....	19
가. 중국과 대만의 통일전략과 사회문화 교류에 관한 기본인식 .....	19
나.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 실태 .....	21
다. 중국·대만 사례가 남북한 관계에 주는 시사점 .....	23
3. 한국·조선족 문화예술 교류 사례 .....	25
가. 한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접변 .....	25
나. 한국·조선족 사회의 문화교류 현황 .....	26
다. 북한·조선족 사회의 문화교류 현황 .....	30
라. 남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현지인들의 선호도 .....	31
마. 한국문화 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	32
바. 한국·조선족 교류가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교류에 주는 시사점 .....	35
III. 남북한 문화예술의 구조적 분석 .....	37
1. 남북한 문화를 보는 시각 .....	37
2.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 .....	40

가. 이질화의 요인 .....	40
나. 문화예술의 이질화 양상 .....	43
3.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 .....	49
가. 동질성의 잔존 원인 .....	49
나. 문학예술 표출형태의 동질성 .....	53
4. 남북한 문화예술의 이질성과 통합 .....	56

#### IV.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문화예술의 갈등 양상 .....

1. 문화예술의 이념과 제도의 상이성으로 인한 갈등 .....	64
가. 다양한 문학예술 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주체사실주의의 해체 · 64	
나. 국가 중심의 문예정책과 민간중심의 문예정책간의 충돌 .....	67
다. 문예단체의 통폐합 또는 재구성 .....	72
라. 문학예술 교육체계의 변동 .....	75
마. 문학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 .....	78
2. 문학예술의 외현적 측면의 갈등 .....	79
가. 문학예술의 부문별 경쟁력 제고 .....	79
나. 우월적 냉소주의와 상업주의적 대중문화 .....	82
다. 문화예술 관련 전문 용어에서의 이질화 .....	84
라. 외래문화 거부와 자문화 미화(美化) 및 옹호 .....	87
3. 의식구조 및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 .....	88
가. 문화예술인의 의존심과 독립적 자아의 미성숙 .....	88
나. 문화적 대응능력 상실과 자기 회의 .....	90
다. 집단주의 차원의 문화향수와 여가생활 .....	92
라. 경직된 도덕적 판단과 태도 .....	95

#### V.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문화예술 통합 방안 .....

1.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과 문화예술단체 .....	97
------------------------------	----

2.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 문화교류 상황 .....	104
3.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환경과 문예정책 .....	107
가.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환경 .....	107
나.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예정책 방향 .....	108
4. 남북 문화교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	110
가. 실질적 통합단계 문화교류의 긍정적 측면 .....	111
나. 실질적 통합단계 문화교류의 부정적 측면 .....	112
5.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문화교류 지향점 .....	115
가. 미래지향적 창의적 통합문화 형성 .....	115
나.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기여 .....	118
다.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통합 .....	121
라. 세계적 보편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통합 .....	123
마. 남북한, 해외 한민족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기여 .....	124
바. 문화산업적 측면의 접근 필요 .....	125
6.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 .....	127
가. 교류협력을 위한 안정적 제도 구축 .....	128
나. 문화통합을 위한 법령정비 .....	129
7. 실질적 통합단계의 세부적 문화교류 협력방안 .....	134
가. 통일국가의 국가이미지 제고 프로그램지원 .....	135
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지원 .....	136
다.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협력 지원 .....	140
바. 단위별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 방향 .....	143
<b>VI. 요약 및 결론</b> .....	146
<b>참고문헌</b> .....	156
<b>부 록</b> .....	165

## 표 차례

<표 1> 주제별 할당 비율 .....	71
<표 2> 북한의 주요 문화예술 단체와 활동(1) .....	101
<표 3> 북한의 주요 문화예술 단체와 활동(2) .....	102
<표 4> 북한의 주요 문화예술 단체와 활동(3) .....	103
<표 5> 북한의 주요 문화예술 단체와 활동(4) .....	103
<표 6> 남북한 문화교류 형태 비교 .....	106
<표 7>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환경 .....	108
<표 8>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 정책 기조와 세부지침 .....	109
<표 9> 1990년 이후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 .....	121
<표 10> 통일 이후 독일공영방송의 방송 지침 .....	133
<표 11> 단계별 문화산업 교류 방안 .....	140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가. 연구의 필요성

지난 세기 우리의 과제는 동서냉전의 산물인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세기에도 계속 남아 있다. 1990년대 초반 독일이나 예멘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동서진영이 허물 어졌던 탈냉전적 객관 요인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탈냉전의 온기류는 열어져가고 새로운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금세기에도 세계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미국식 세계화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고, 유럽연합(EU)국가들은 2002년 유로화의 통용으로 유럽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화의 수준을 가일층 높여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 지도국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고 러시아도 재부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동권도 ‘이슬람민족주의’ 구호를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판짜기로 부산하다. 이러한 세계 질서의 격변 속에서 한반도 분단의 종식과 평화와 통일의 전망은 여전히 커다란 시련과 도전 속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객관 정세에 따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결집될 때만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점에 놓인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우리가 1990년대 탈냉전적 흐름에서 얻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통일을 이루어 내지는 못했지만 과거 냉전시대와는 다른 통일 관이나 인식론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몇 가지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는 통일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정치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통일헌법을 제정하면 통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이나 예멘 통일을 보면서 ‘목표로서의 통일’<sup>1)</sup>에 대한 문제와 함께 ‘과정으로서의 통일’<sup>2)</sup> 문제에

## 2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 방안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통일 자체는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는 문제이므로 체제 및 정치 통합의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나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국가는 정치 체계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문화 등의 물질·인적 자원의 총합 그 이상이다. 통일 국가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정치적 수준에서 통일은 독일, 예멘,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평화적 체제 흡수 방식이나 선거, 전쟁 방식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과정으로서의 통일’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일의 중첩적이면서도 비동시적인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sup>

둘째, 과거의 통일 인식에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사회·문화에 대한 문제가 별다른 고민 없이 전제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과거의 통일관에는 ‘하나의 민족=민족 동질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즉 우리는 한 민족이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사고이다.<sup>4)</sup>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남북 대화가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상대방 체제에 대한 ‘이질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었을 때 국민의 다수는 당황하고

---

1) 통일국가의 수립을 의미함.

2) 윤정식, “예멘 통일과정에서의 사회통합문제,” 「베트남 및 예멘의 통합사례 연구논문집」(서울: 통일원, 1995), pp. 147-148.

3) 이러한 입장은 이종석의 「분단시대의 통일학」(서울: 한울, 1998)에 잘 정리되어 있다.

4)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는 다소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 과거 보수주의적 통일관이 분단고착론적 인식으로 파악되는 것은 분단을 통한 민족 이질성, 특히 북한의 이질성을 강조하였던 문제와 관련이 된다. 즉 “민족의 고유성은 교육과 전통문화를 통해 전승되는 것이다.(…) 혁명의 관점에서 형성된(북한의) 이념교육과 이념문화는 남쪽의 교육이나 문화와 서로 조화될 수 없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남북의 동포간에 서로 다른 인간관, 민족관, 의식구조와 행동양태가 노출되고 있다”(통일연수원, 「북한이해」(서울: 통일연수원, 1994), p. 217)라는 인식은 사실 과거 반공통일을 목표로 하는 통일관과 그리 다르지 않고 1990년대 중, 후반의 ‘흡수통일론’과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혼동을 겪게 되었던 것 같다.<sup>5)</sup>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민족, 즉 민족 동질성으로의 회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이 제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은 분단 이전의 민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질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질성은 곧 ‘차이’ 또는 ‘다름’의 문제로 인식하여 차이 공존 문제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정한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다.<sup>6)</sup>

다시 말해 당위론에 기초한 정치 일변도의 통일인식의 전향적 사고와 ‘차이’의 공존과 조화적 인식의 맹아를 담고 있는 통일관이 우리 사회에도 차츰 확산되고 있다. 그런 급변하는 객관적 조건 속에서 현재 남북 주민들은 각각 상이한 생활양식, 사회·문화적 특성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 공동체로서 살아온 천 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강력한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단일민족 의식이 설령 신화적 개념일지라도 천년 가까이 같은 지역에서 하나의 역사적 운명과 시련을 겪어 오면서 형성되어 온 의식이다.

- 
- 5) 1999년 KBS가 실시한 국민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되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냐고 묻는 문항에 대해 46.7%가 “생활방식 차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들었다. KBS 통일방송연구, 「국민통일의식조사」(서울: 한국방송공사, 1999).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전국 여성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에서도 통일이 되면, “이념과 가치관, 정서의 혼란”이 아주 심각해질 것으로 응답하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편),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 연구-평화통일과 여성의 과제-」(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9)
- 6) 그 선두에 섰던 그룹이 ‘또하나의 문화’팀이다. 그들이 생산한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1, 2」(서울: 또하나의문화, 1996, 1999)는 이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조한혜정·이우영 등의 「탈분단시대를 열며」(서울: 삼인, 2000)는 ‘남과 북:문화 통합’ 프로젝트팀의 4년간의 연구성과이다. 급작스런 정치, 경제적 통일이 초래할지도 모를 사회, 문화적 갈등을 연구하고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소통하는 것이 사회, 문화적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피력하고 있다. 이외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필자는 이질성의 공존과 함께 ‘이질성에 담긴 질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주장도 펴기도 했다. 김귀옥, “북한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안,” 「통일문제연구」 제10권 1호 (1998), pp. 220-257.

#### 4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 방안

이러한 민족 개념을 근대 민족 국가 수립 과정에서 획득한 민족주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서구적 인식의 몰역사적 적용으로 보인다. 또 그렇다고 하여 앞으로 통일 후 건설한 통일 국가의 민족이 분단 이전으로 회귀하는 민족 개념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통일을 통하여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 과제와 동시에 새로운 문화 공동체를 창조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문제의식을 좀더 살린다면 결국 교류와 협력 단계가 고양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하나의 국가를 준비하는 단계가 실질적 통합단계라고 볼 때,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완전한 통일국가단계를 앞당기거나 국민적 수준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이 바로 문화예술의 역할일 것이다.

#### 나. 연구 목적과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에 대한 모색에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란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증진되어 인적·물적 교류가 추진되고 있는 통일직전의 상황을 의미한다. 통일이라는 개념은 거시적인 제도적 측면과 내면적인 문화예술적 측면 모두를 포괄한다. 오랫동안 통일논의에서 정치 제도적 측면에 주안점을 맞춰 하나의 국가 문제를 다루어왔다. 그러나 외면적 통일인 체제, 제도의 통일은 삶의 방식인 문화와 예술의 통합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가능하다.

문화예술 분야에 이러한 단계를 적용시킬 때, 현재의 상황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의 독립적 교류이다. 현재의 남북 문화예술 교류도 일정 부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되는 면이 크다. 따라서 정치적 사건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정치, 경제와 독립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독립적 교류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예술인과 예술 작품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남북한 사이에 ‘문화예술 교류협정’ 등과 같은 제도화된 협정이 이루어지고,

현재의 교류상황과는 달리 국가의 통제나 규율이 완화된 상황에서 인적, 작품 교류가 진행될 것이다. 다만 인적 교류의 경우 통합이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작위의 대단위 규모보다는 소규모의 계층적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남북한 사이의 대중 매체가 단일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중과나 위성방송의 수신이 자유로와 짐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대중매체가 시간차 없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문화시장이 개방된다는 점이다. 통합단계의 남북한의 교류는 문화산업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 문화산업 시장이 개방될 것이다. 이때 문화는 문화고유의 특성보다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더욱 중시될 것이며, 남북한 사이의 문화예술 작품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여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몇 가지 상황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사이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본 연구도 이 정도의 단계를 상정하고 작성되었다.

통일이란 분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상호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완전한 통합체를 이루는 과정이지 그 자체로서 결과물이 아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비록 규범적, 제도적으로 효율적인 통일정책이 추진된다고 해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과 이질감이 정치세력화되거나 갈등으로 남는다면, 통일이라는 의미 자체를 반감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도적, 규범적 통합이 곧바로 내적 통합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 문화예술이 시대와 단계를 초월하여 통일을 이루는 내적 디딤돌로서 의미를 갖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체나 작품 중심의 교류에 대한 논의의 차원을 달리하여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환경에 맞추어 앞에서 설정한 상황에 맞추어 거시적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분단의 이질감을 극복하며, 세계 문화발전에 동참하면서,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문화예술분야의 통합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외국의 문화예술 통합 사례로서 독일과 중국·대만의 통합 사례를 살펴본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전후의 교류 협력과 통일 이후 갈등 양상, 문화통합 관련 법령 및 행정제도 개편 및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문화 교류에 관한 기본인식과 교류 협력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모색한다.

둘째,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문화예술의 지위와 역할을 적시하기 위하여 우선 남북한 문화예술의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이질성과 동질성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화예술통합 논의 속에서 이질성과 동질성의 자리매김을 시도한다.

셋째,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문화예술의 갈등 양상을 조망한다. 갈등은 세 수준에서 분석한다. 즉 문화예술의 이념과 제도의 상이성, 문학예술의 외현적 측면, 의식구조 및 가치관의 차이 등에 따른 갈등의 양상을 규명한다.

넷째,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통하여 남북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모색한다. 남북 문화교류 상황, 문화환경과 문예정책을 모색한다. 또한 남북 문화교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바탕 위에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지향점은 여섯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미래지향적 창의적 통합문화, 문화적 동질성 회복,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통합, 세계적 보편문화에 기여하는 문화, 남북한, 해외 한민족의 문화정체성 정립의 방향성이 문화예술의 통합지향점이다. 이와 함께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세부적 문화교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 II. 외국의 문화예술 통합 사례

### 1. 독일의 문화예술 통합 사례

독일 통일은 제도 중심적인 통일이 미치는 파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일 후 약 1년간은 4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일치감을 보이던 동서독 사람들이 점차 이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약 2년이 지나자 반목이 첨예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구 동독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혼란과 심리적인 혼란, 서독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 동독과 서독 지역 주민들간의 반목과 동질성 회복의 어려움, 그리고 독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위기 등의 통일후유증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이에 우리의 통일비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맥락에서 ‘통일문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sup>7)</sup> 특히 우리의 실질적인 통합단계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사례연구는 유용한 준거로 작용해줄 것이다.

독일 통일의 실무를 담당한 서독의 내독 관계부 장관인 도로테 빌름즈 여사는 자꾸만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공산당 정권을 설득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임을 파악하고, 양자가 함께 있기를 원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는 전화선 개설·우편 교환 및 상호방문·문화협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는데, 그 중 문화협정이 특히 중요했다고 술회한다. 즉, 많은 예술가·작가·화가·오케스트라들에게 상호방문의 구실을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문화적인 교류가 한 나라의 동질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신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교류를 강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sup>8)</sup>

문화적 이질성 문제와 관련하여 내독 관계는 주로 인적 교류, 문학·예

7) 김학성,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 (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p. 168.

8) 김문환, 「분단조국과 통일문화」, p. 51.

술작품의 교류와 방송청취의 차원에서 기여하였다. 일반 주민들은 상호방문을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이질성 극복과 최소한의 동질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는 분단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의 교류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문학·예술작품의 교류는 상호간의 문화적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방송청취 역시 상대방 체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주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독 방송은 이념적 도구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서독인들의 청취는 드물었지만, 동독 주민들의 서독 방송 청취는 일방적으로나마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는 장치가 되어 주었다.

본 장에서는 독일의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가 통일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문화예술의 실질적 통합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사례를 분단 이후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적 차원과 통일 이후의 결과적 차원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이 연구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통일방안 마련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경우 문화예술 교류에 있어서 통일 이전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에 통일 이후 문화적 갈등 양상이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가. 통일 이전 문화예술 교류 협력

제2차 대전 후 동독과 서독은 분단되었을지라도, 베를린은 실질적으로 분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동서 진영간에 냉전이 심화되면서 베를린에도 위기가 오게 되고, 1961년 결국 장벽이 세워짐으로써 단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의 냉전시대에서도 양독 간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여러 도시에서 축제행사를 위주로 교향악단, 연극 및 무용 등 공연예술 단체들의 상호 방문공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1년 평화공존을 채택한 베를린 협정이 조인됨에 따라 서독과 서베를린 사이에 통과도로가 생기게 되고 동·서 베를린간의 통신소통

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왕래가 재개되었다. 그러면서 예술가들의 이동도 있어서, 동독의 연출가·연극배우·오페라 가수·음악 연주자·작가들이 점점 더 서독 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여, 동독의 문화예술계는 인력 손실을 입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는 동·서독 상호간에 개별적인 예술단체끼리 사적 제안을 하여 문화교류를 사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진행시켰다. 즉, 동·서독의 예술단체들 사이에 자발적인 제안들을 통해 상호 초청과 방문공연, 그리고 예술가들의 개별적 방문으로 강연·객원연출 등의 형식과 동독 연극배우·오페라 가수들이 서독의 극장에서 특정한 공연 때만 같이 공연을 하는 등의 방법들이 취해졌다. 이로써 정기공연 이외에도 각종 축제행사들은 동독의 예술가들이 서독과 서방의 관객에게 선보일 특별한 계기가 되곤 했다.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동서독간 문화교류는 1986년에 맺어진 문화협정 체결 이후부터이다. 이 협정에 따라 예술가들의 교환방문과 예술단체들의 방문 및 초청공연이 전보다 쉽게 실현되었다. 그러나 조형예술이나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동독의 작품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서독에서 전시되거나 출판되었으나, 서독의 작품은 동독에서 전시되거나 출판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와 같은 경향이 형성된 것은 동서독간의 문화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 즉, 서독 정부는 인위적 국경을 초월하는 ‘문화민족’(Kulturnation)의 개념을 바탕으로 양독 간의 문화적 공통성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반해, 동독 정권은 사회주의문화의 독창성과 이념성을 강조하고 서독과의 문화교류를 외국과의 교류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sup>9)</sup> 이는 동독 정권이 문화교류가 체제 유지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제적 고립문제와 폐쇄정책으로 인한 내적 불만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적인 형태로만 문화교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화교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문학교류이다. 문학작품에는 인

9) 김학성, 앞의 글, p. 226.

간의 삶의 양식과 관련된 모든 면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문학작품을 통하여 분단으로 야기된 갖가지 문제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과 접근태도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해부와 문제해결의 방향도 제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매우 높다. 비록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1960년대부터 동독 작가들의 작품이 서독에서 출판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서독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대개의 경우, 문학으로 수용되었다기보다는, 동독의 생활환경을 엿볼 수 있는 읽을거리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sup>10)</sup> 이에 비해 동독 주민들은 서독 작품들을 읽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는 1970년대부터 동독은 ‘2민족 2국가’ 원칙으로 접근하였으므로, 분단이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이다.

동독에서의 작품활동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문학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체제이념을 벗어나가란 매우 힘들었다. 또한 반체제적 성향을 띤 작가라 할 지라도 대부분 사회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쿤터 그라스와 하인리히 뵐 등 ‘그룹 47’ 소속 작가 등 서독의 일부 작가들은 분단 초기부터 분단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sup>11)</sup> 이들은 정치적 분단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문화적 동질성, 즉 문화민족 개념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가들은 분단 문제보다 민주주의 정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다 70년대 들어오면서 민족적 정체성과 독일 문제의 현 위치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새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동독의 현실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가운데 1981년 동독 정권의 묵인 하에 동베를린 회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출발로 몇 차례에 걸친 동서독 작가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회동은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지 통일 문제를 다루려

10) Karl-Rudolf Korte, “Literatur,”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p. 449.

11) Stuart Parkes, “The Politics of Literature : Writers, Intellectuals and German Unity,” *German Politics*, Vol. 2, no. 3 (Dec. 1993), p. 452.

는 것은 아니었으나, 서로간의 입장과 견해가 다양하였기 때문에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도 많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서독 작가들에 의해 동독 작가들은 동독 정권의 평화적 선전·선동전략이라는 의구심을 받기도 했으며, 동독 체제의 비민주적 성격과 동독 작가들의 비판의식 부재가 공박 받기도 하였다.

문학작품이나 공연예술에 비해 전파매체를 통한 양독 간의 문화교류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TV를 통한 문화교류는, 비록 일방적이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서로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동독은 호네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서독 방송의 청취를 통제하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통제를 상당히 완화시켰다.<sup>12)</sup> 그리하여 1980년대에는 서독 방송의 가시청 지역에서 수상기를 가진 동독 인구의 약 90%가 서독 방송을 시청하였다고 한다.<sup>13)</sup>

분단 기간 동안 동서독간에 문화적 이질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며, 표면적으로 매우 방대한 교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통합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못했다. 따라서 통일독일에서 문화적 이질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동서독간의 교류가 너무 일방적인 형태를 띠었다는 데 있다. 동독 정권은 서독문화의 유입을 가능한 차단하려고 했으며, 체제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양독 간의 교류를 허용하려 했다. 즉, 체제불만의 폭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 내지 서독의 경제적 원조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 혹은 협정이나 조약의 준수라는 맥락 내에서만 교류의 범위가 정해졌다. 따라서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균형적인 상호이해의 폭은 그다지 넓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질적 차원에서 볼 때도 동서독간의 교류가 문화적 이질성 극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외로 적었다는 데 있다. 동독 정권은 주로 연금 수혜자들에게 서독 방문을 허용했는데, 이들은 이미 분단 이전에 사회화 과정을 부분적으로나마 겪어서 대체로 동독의 사회주의적

12) Manfred Regin, "Massenmedian in der DDR," *Deutschland Handbuch* (München : Carl Hanser Verlag, 1989), p. 402.

13)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통일과정연구 93-V(1993), p. 688.

문화보다 독일의 전통문화에 더 익숙해 있던 세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이질화 문제는 사실상 분단 이후 이질적 체제하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은 청장년 층에 집중되는 문제였던 것이다.

물론 1980년대 후반 동독 정권은 비연금 수혜자의 여행 기회를 대폭 넓히고 청소년 교류를 확대시켰다. 이는 문화교류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이질성 극복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되나, 여기에도 맹점이 있었다. 동독 정권은 청소년 교류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공산당 산하 청소년조직(FDJ)의 핵심 구성원들만 참가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보통 짧은 기간 동안 평상적 친지방문, 직업상 여행, 단순한 관광 등의 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진 개인적·집단적 만남은 문화적 이질성을 확인하거나 동독주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증폭시키는 계기는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셋째, 교류의 내용에 있어서도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문화통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방송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와 동독 방송에서도 오락물과 영화들이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부분적으로 끌기는 했으나, 동독의 방송물들이 대체로 정치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서독주민은 물론 동독주민들로부터도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 비해 서독 방송은 동독주민들에게 소비자사회에 대한 매력을 심어주었고, 동독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동독 체제와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러움을 더욱 유발시켜 주었다.<sup>14)</sup>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바로 서독의 전반적 사회·문화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동화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물론 일부 청소년들은 서독의 대중문화에 매력을 느끼기도 한 것은 사실이나, 동독에서 이주한 주민들은 대체로 서독 방송의 뉴스나 정치 관련 특집물에는 높은 시청률을 보였으나 오락물이나 상업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내었

14) Ernest D. Plock, *East German - West German Relations and the Fall of the GDR* (Boulder : Westview Press, 1993), p. 92.

다. 이는 이들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실제생활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과장이 심하다는 이유에서였다.<sup>15)</sup>

결국 분단시기 동안 양독 간의 교류가 사회·문화적 동질화에 기여한 바는 주민들 개개인의 차원에서 느낀 민족적 유대감의 재확인 이상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도 세대간·사회계층간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청소년들의 경우는 민족적 애환보다는 비교의 관점에서 서로의 생활을 객관적 현실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았다. 물론 기성세대의 경우도 사회계층간에 차이는 있으나 민족적 유대감과는 별개로 서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양독 간의 문화교류는 양독 간에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유대감을 발견하는 데 기여를 했지만, 교류의 실제적 한계로 말미암아 각 체제가 생성한 이질적 생활양식을 극복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sup>16)</sup>

#### 나. 통일 이후 문화예술의 갈등 양상

1989년 11월 9일 동독인들은 28년만에 열린 장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건너 왔다. 그 다음날 서베를린의 문화성은 동독인들을 환영하는 무료 공연을 선사했다. 문화상 마르티니 여사는 12월 19일 “문화는 민주적으로 조직된 생활양식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독인들이 쉽게 서독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재정적 보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sup>17)</sup> 이후 문화성은 동독인들에게 서베를린의 영화관·전시회·고전 및 대중음악 연주회·극장 등 모든 문화시설의 입장료를 50% 할인해 주었다.

문화협력은 음악 분야에서 먼저 실현되어, 동·서베를린 교향악단 연주자들이 양 도시에서 서로 같이 어울려 앙상블을 이루어 연주회를 갖는 등 협력 본보기의 선두주자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연극단의 초청도 이루어져 동베를린의 베를리너 앙상블은 서베를린 제작극단이 올린 비판극을 동

15) 통일원, 앞의 글, p. 698.

16) 김학성, 앞의 글, pp. 238-239.

17) 이상면, 「독일의 예술 - 분단에서 통일로」 (서울 : 시공사, 1996), p. 199에서 인용.

베를린에서 공연하였다. 또한 1989년 12월 성탄절을 맞아 장벽 붕괴를 기념하여 ‘베를린 경축 연주회’라는 문화 이벤트를 서베를린 필하모니 음악당과 동베를린 샤푸슈필하우스에서 열었으며, 세계 22개국으로 생방송되었다.

이후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동·서베를린 오페라 극단들 사이에서도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여러 방문공연을 보여주었으며,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본선경쟁 부문과 영화광장·파노라마 부문의 영화들을 양 베를린에서 상영하였다. 그리고 베를린 연극제는 1990년에 처음으로 양 베를린에서 분산 개최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동독 연극의 위기”와 “통합된 베를린의 연극과 유럽 연극”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이 동서독 및 유럽의 저명한 연극비평가들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도 했다. 또한, 매년 9월과 10월에 양 베를린에서 각각 따로 열리던 베를린 축제행사가 1990년부터는 상호 협력하여 공동 제작으로 작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베를린장벽 붕괴의 기쁨도 잠시,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1990년 7월이 되자 동·서독 사이의 경제적 차이와 사회구조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현실적 문제점과 갈등들이 문화의 영역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동독주민들은 통일로 인하여 구 동독체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했지만 통일 이후 사회·경제 및 체제 적응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불만스러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바, 그 이면에는 구 체제 하에서 형성되었던 정치·사회문화의 잔존과 사회·심리적 왜곡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적응에 대한 불안, 막연한 피해의식 및 방어심리, 과거에 대한 향수 등은 결국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며, 나아가 내적 통합과정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서독 본에 있는 독일문제연방연구소의 문화 담당 상임연구원인 켐퍼는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후 동독 문화예술의 상황은 사회 상황보다 더 흑심해서 “아주 망가진 상태”이며, “더욱 심화된 재정난과 인력난으로 인해 기본적인 구조가 파괴되었다”고 보았다.<sup>18)</sup> 이는 예술단체끼리의 초청 및 방문공연 형식을 띤 공적 차원에서의 문화교류 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18) 인터뷰, 1990. 7. 10. 이상면, 앞의 책, p. 203에서 인용.

아니기 때문에 외적으로 명백히 포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술인력의 이동은 문화산업의 기본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보다 능력 있는 우수한 예술인들은 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서독으로 넘어 왔고, 이에 따라 동독에는 ‘자리를 지킨 사람들’ 혹은 소위 ‘이류가 된 예술인들’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들은 좌절감과 불안감에 싸여 있으며, 이로 인해 동독의 예술단체들은 공동화(空洞化)와 황폐화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적 가치의 공유화와 생활양식의 통합을 위해서는 구 동서독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통일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구 동독주민의 서독체제로의 동화가 강요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흡수통일로 인한 이러한 상황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사회적·물질적 가치면에서 우월한 입장에서 있는 서독지역 주민들의 ‘나눔을 통한 분단의 극복’<sup>19)</sup>에 대한 마음자세와 동독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심리적인 과거청산 노력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당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적 유대감의 증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독일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경제성장과 생활의 질적 향상, 교육을 통한 가치의 동질화,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 동서독 지역간의 상호이해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통합 노력을 배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민족적 유대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따라서 통일독일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구심력을 찾는 것이 통일 이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 못하였던 것이다.<sup>20)</sup>

19) U. Becker, H. Becker & W. Ruhland, *Zwischen Angst und Aufbruch : Das Lebensgefühl der Deutschen in Ost und West nach der Wiedervereinigung* (Düsseldorf : ECON Verlag, 1992), p. 39.

20) Peter Pulzer, “Unified Germany : A Normal State?,” *German Politics*, Vol. 3, no. 1 (April 1994), p. 16.

## 다.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제도화: 문화통합 관련 법령 및 행정제도 개편

동·서독 사이에 문화교류와 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화행정가들은 통일시대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과 단일 민족문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입안작업을 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형식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예술가들의 직접적인 접촉과 제안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상호이해와 협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 12월 20일 서독의 콜 수상과 동독의 모드로브 총리는 드레스덴 회담에서 2년간의 양독 문화계획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며, 예술 각 분야에 걸친 100개의 프로젝트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0년 3월 9일 동베를린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독의 내독 관계부 장관과 문화부 각료회의장과 동독의 문화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독·독·문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여기서 양측은 양독 국가의 접근과 통합과정에서의 문화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4개의 주요 항목을 논의하였다.

- 1) 법적 근본문제, 문화적 기본구조와 후원체제
- 2) 문화유산(유적·문화재)의 공동 보존
- 3) 문화예술 교육
- 4) 외국 내에서의와 외국과의 문화 교류

서베를린 문화상 마르티니 여사는 1990년 6월 28일 동독 정부 문화위원회와 대담을 갖고 독일의 문화적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한 바, 이때 주요 테마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부각되었다.

- 1) 동·서독 예술가들의 사회적 위치와 문화적 후원 가능성
- 2) 동독 내 문화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보조
- 3) 양 베를린에 있는 예술원의 장래
- 4) 동독 영화제작소 상황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문화상은 사적인 문화 후원의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희망을 경고하면서, 문화 후원과 지원은 공적인 과제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폐통합 직후 서베를린 예술원장인 발터 엔스는 “문화는 경제처럼 그렇게 급속히 조직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sup>21)</sup> 베를린에 있는 두 예술원이 강제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오랫동안 협력을 해 온 두 기관이 계속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양독의 통합을 위한 제2차 국가조약에는 동독에서 새로운 주(州)정부들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서독 정부가 동독의 문화단체들에 대해 잠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많은 수단들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라. 독일 문화예술 통합 사례의 시사점

분단 기간 동안 동서독간에 문화적 이질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 있었으며, 표면적으로 매우 방대한 교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통합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못했으며, 따라서 통일독일에서 문화적 이질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특히, 동독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안겨준 것은 문화적 주체성의 상실이었다.<sup>22)</sup> 동독의 역사와 문화적 주체성은 베를린장벽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동독의 화폐 대신 서독의 화폐를 움켜쥐었지만, 문화적 주체성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공백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쉽게 대체될 수 없었다. 이 상실된 문화적 주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통일독일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첫 번째 과제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서독이 문화적 주체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독일문화와 독일적인 것은 히틀러에 의하여 이미 왜곡되었고, 1·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이후 분단되어 미국과 소련의 지배하에서 역사반성이 강요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민족문화를 제대로 주장할 수도 없었고 과거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독일정신을 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그래서 1989년 12월 22일 서베를린에서 동서독 연극의 현황에 대한 심포지움

21) 이상면, 앞의 책, p. 203에서 인용.

22) 같은 책, p. 206.

이 열렸을 때, “두 독일문화와 동독의 문화적 주체성은 구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무도 서독의 문화적 주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 이유는 그것이 정말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3)</sup> 이러한 상태에서 서독의 정신문화가 동독의 다른 독일문화를 포용할 수 있다거나 통합된 독일문화나 민족문화를 창출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독은 2차대전 후 국방비에 대한 부담 없이 그리고 민족문화 문제를 제쳐놓고, 미국의 원조와 더불어 경제 재건에 주력하여 경제대국이 되었다. 따라서 서독이 경제적으로 풍부해 수많은 문화예술 단체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진정한 독일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독인들은 현재 극히 개인주의화되고 정치에 무관심한 상태이며, 주와 시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음악·연극 등의 예술은 대부분 비판의식이 결여된 정신적 오락물을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 동독인들은 이와 같이 상업화되고 소비상품적 성격을 갖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를 희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문화예술 교류는 공통된 역사와 언어 및 문화유산을 소유한 동일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분단기간 동안 서로 상이하게 형성된 의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류에는 무엇보다도 상대를 이해하고, 이질적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성과 포용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과정에서 상호간에 생각과 의식, 생활에 있어서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통일 후 단일 민족의 민족문화가 발전되는 데 초석이 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과거 문화의 유산과 연속선상에 설 수 있는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독일과 우리는 분단 상황의 진행과정과 문화의 차이, 심성과 역사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이나 방법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문화예술 통합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실질적인 통합 단계에 주는 시사점이 몇 가지 있다.

23) 「타게스슈피겔」(1989. 12. 23). 이상면, 앞의 책, p. 207에서 인용.

우선, 독일은 교통 및 통신 소통이 오래 전부터 가능하였고 지속적인 문화교류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거의 이동의 물결이 없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동독의 서독으로의 일방적인 이동과 동독의 황폐화를 가져 왔지만, 우리의 경우 미리 쌍방향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면 독일처럼 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과 달리 우리에게는 민족문화의 재창조가 민족 내부에서든 외국에 대해서든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문화국민으로서의 의식이 비교적 강하였던 데다가 지금도 북한은 주체성이 강하고 남한에서도 주체적인 문화의 세계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2. 중국·대만의 문화예술 통합 사례

### 가. 중국과 대만의 통일전략과 사회문화 교류에 관한 기본인식

중국의 분단은 1949년 國·共간의 내전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대륙에서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자,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12월 수도를 대만으로 옮기고 손문의 삼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한 중화민국 정부의 출범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뒤 1971년 10월 25일 중국은, 중화민국을 축출하고 UN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절대우위의 외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의 대만 정책은 양안간 교류를 확대하면서도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유도함으로써 흡수통일을 추구해 왔다. 중국의 대만 통일정책은, 첫째, 하나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一國兩制’와, 둘째, 通商·通郵·通航으로 표현되는 ‘3通’과 친척 방문 그리고 경제·문화·과학기술·체육 교류로 대변되는 ‘4流’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24)</sup>

그런데 중국은 이와 같이 적극적인 교류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만에 대하여 무력불사용의 천명을 거부하는 등 대만의 국제적

24) *FBIS-CHI-95-117*, 9 Jun. (1995) ; 「人民日報」(1995. 6. 9).

고립화를 계속 추구하였다. 특히,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을 선언 하면서 중국은 3통 원칙과 민간교류 확대를 경제협력을 진전시키면서 대만을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끌어당기는 전략을 구체화시켰다.

중국의 이러한 대만 정책에 대항하여 대만은 중국의 무력 사용 포기를 요구하면서, 1991년 3월에는 중국과 교류를 증대하고 이를 통해 민주·자유·균부의 통일중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국가통일강령’을 확정했다. 이는 중국의 흡수통일전략이 대만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중국과 민간교류 확대를 간접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만은, 우선 중국과 대만이 대내외적으로 독립적 주권을 행사하는 두 개의 정부로 상호 인정하는 ‘一國兩區’ 원칙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민간교류→정부간 접촉→통일협상이라는 ‘3단계 접근론’을 통한 평화통일을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일된 중국의 비전과 그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통일방안을 일국양제를 통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데 반해, 대만은 일국양구로 대만의 실체와 국제적 활동 인정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요인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간의 통일방안의 차이점이 양안간 비정치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중국이 비정치 분야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求同存異’ 전략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합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다음에 합의함으로써 실리를 취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대만의 정책보다는 신축성을 크게 보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대만기업의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크게 인정하고, 정치적 불일치로 인한 양안간의 비정치 분야의 협력 증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노력한 데 기인한다. 또한 이들이 상호 공동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자원·상품·기술에 있어서 상호보완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 나.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 실태

중국과 대만간에 비정치 분야 교류와 협력이 처음으로 표명된 것은 1979년 1월이었다. 그러나 그해 중·미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중국을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게 됨에 따라, 대만은 이후 10년 동안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비공식적으로만 수용하였다. 즉, 1986년까지는 중국의 3통4류 제안에 대하여 대만은 우선 해외에서 중국과의 비공개 학술접촉을 허용하였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대만 예술가들은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 예술가들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였다.<sup>25)</sup> 그러다 1987년 11월 대만은 국민들의 중국 방문을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등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양안간의 교류가 점차 증대되었으며, 1993년부터는 급격히 확대되었다.

제1기인 1987년부터 1992년 동안 양안의 적대적 정치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양안간 교류·협력을 위한 중국의 정부조직이 먼저 신설되고, 대만 역시 유사한 조직을 신설하였다. 특히, 1987년 11월 대만의 대중 군사계엄령 해제로 인한 대만인들의 중국 방문 허용은 양안 교류에 있어 중요한 조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비공개 학술 접촉은 대만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으며, 1987년부터는 학술·교육 및 친척방문 교류가 중국과 대만간 사회·문화 교류의 선도 역할을 하였다. 1987년 중국은 “대만 학생의 중국 내 학교 진학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1988년부터, 소수이지만, 대만 학생이 중국의 예술·의학·문학 등을 배우기 위해 본토로 유학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1987년부터 1991년간은 대만인들의 방중이 주로 친척 방문·관광·문화·의료·학술·출판 교환 관련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1989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본토인이 사회·문화 분야 교환 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한 적이 없었으나, 1989년 6월 중국과학원 소속 지리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학술교류 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25) “Articles Reviews Cross-Strait Exchanges,” *FBIS-CHI-95-117*, 9 Jun. (1995); 『人民日報』(1995. 6. 9).

대만 당국은 1991년 말 약 40여 명의 중국 본토인의 대만 방문을 교환 목적으로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1992년부터 양안간의 교류는 점차적으로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대만인 중 약 730만 명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인 중 약 5만 명이 대만을 방문하였고, 이 분야 교류가 점차 빈번해짐에 따라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기인 1993년부터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여러 정치적 변수로 인하여 경제 협력을 포함한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단기간 감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sup>26)</sup>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의 경우 양안간 문학과 예술 교류가 정체 사회·문화 교류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며, 문학과 예술 교환을 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이 전체 방문자의 1/2에 달할 정도였다. 또한 교육·체육·사회과학·영화·과학기술·텔레비전·건강 관련 교류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언론·출판·종교·관광·민속신앙·금융·세제·항공·핵에너지·법률 분야의 교류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1994년 3~4월에 발생한 천도호 사건을 계기로 대만 당국이 양안의 사회·문화 교류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으나,<sup>27)</sup> 중국이 대만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정책을 채택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여<sup>28)</sup> 양안간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전반적으로 증폭시키게 되었다. 특히, 대륙인의 대만 방문은 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중국의 유명 예술가의 미술전시회, 세계적인 중국 탁구선수의 대만 탁구대회 참가, 중국 지방 민속오페라단과 내몽고 민속예술단의 방문 등은 중국과 대만 사회·문화·예술계에 대한 좋은 인식과 반응을 일으켰다. 그 결과 1994년의 경우 대만의 중국 방문자는 660만 명인 반면 중국의 대만 방문자는 7만 8천 명에 머물렀으나, 1997년까지는 대만인 1000만 명과 중국인 22만 명이 상호 방문을 할 정도로 인적 왕래가 증폭되었다.

그리고 양안간 학생들의 교류로 학술·과학·기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

26) 이에 관해서는 대만이 1990년 '대륙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1995년 7월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양안 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한 백서」 참조.

27) '천도호 사건'이란 1994년 3월 31일 중국인 3명이 강소성 천도호에서 중국행 유람선에 탄 수십명의 대만 여행객을 살인한 방화사건을 말한다.

28) "PRC Reportedly to Readjust Taiwan Policy," *FBIS-CHI-94-154*, 24 Jul. (1994); 『聯合報』(1994. 7. 24).

업이 크게 증대되었다. 여기서는 주로 중국 민속문화의 증진 방향과 중국 근대화 활성화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가무단과 예술단 등의 상호방문을 통한 연구협력도 활발히 진행되었다.<sup>29)</sup> 이와 같이 양안 교역과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실현은 중국 또는 대만의 일방적인 정책완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대만 기업의 교류와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 또는 대만의 일방적인 완화 조치는 처음에는 서로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할 지라도 여러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인들과 양안의 당국자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실제적으로 인적 교류가 심화된 데에는 정부간 협상보다는 민간베이스 혹은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조치에서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 다. 중국·대만 사례가 남북한 관계에 주는 시사점

1999년 1월 30일 인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1988년부터 1998년 기간 동안 중국을 방문한 대만 주민의 연인원은 1,300만 명에 달하며, 공식·비공식 초청을 통해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약 4만 명이며 교류 항목은 5,000개에 이른다고 한다.<sup>30)</sup> 이와 같은 양안의 사회·문화적 교류의 증가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약화시킴으로써 전쟁 발발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의 영향으로 이미 정치적 적대 관계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양안간의 갈등은 ‘체제간의 갈등’에서 ‘권력집단간의 갈등’으로 성격이 변화되었으며 정치 우선 위주의 통일 논의의 방향을 다변화시키는 결과도 낳았다. 그리하여 중국과 대만 주민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존하면서 상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2000년 5월 대만에 陳水扁 총통이 취임하면서 그 연설을 통하여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임기 동안 “대만 독립을 선포하지 않고” “국호를 개정하지 않으며” “양국론을 헌법에 삽입

29) “CHINA: Review of Cultural Exchanges with Taiwan,” *FBIS-CHI-97-021*, 28 Dec. (1996); 『人民日報』(1996. 12. 28).

30) 『人民日報』(1999. 1. 30).

하지 않고” “독립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sup>31)</sup> 그리고 이어 蔡英文 대륙위원회 주임은 국가의 안전과 대등한 존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양안이 빨리 3통을 개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표명하였다.<sup>32)</sup>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양안관계의 관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양안문제 해결을 무기한 미룰 수 없다고 압박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적 입장은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2001년에 접어들어 1월 2일 대만 선박이 중국에 들어감으로써 3통이 처음 실현되었으며, 2월 6일 중국을 출발한 항공기가 대만에 도착함으로써 분단 이후 최초의 쌍방향 직항이 실현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신화사 대만 주재 기자에 대륙 언론인이 부임하기도 하였다.<sup>33)</sup>

이와 같은 중국의 경우를 살펴볼 때, 한국은 북한에 대해 우선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체육·경협·교육·관광·친척 방문 등 종류에 따라 다각적이고 다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관계가 미비한 상태에서라도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 즉, 정치 관계가 소원할수록 경제·사회·문화 부문의 교류와 협력은 실무 차원의 협상으로 상호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sup>34)</sup>

그리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남한은 사회·문화·예술 등 여러 방면의 교류에 있어 북한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예술가와 예술단의 상호 방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이견의 폭을 좁혀 나감으로써, 이해의 증진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먼저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1) 『人民日報』, (2000. 5. 20).

32) 『人民日報』, (2000. 5. 29).

33) 『人民日報』, (2001. 2. 8).

34) 최춘흠,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42.

### 3. 한국-조선족 문화예술 교류 사례

#### 가. 한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접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조선족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조선족 사회는 한국과의 교류 과정을 통해 지역의 경제가 예전에 비하여 호전되었고 조선족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 못지 않게 관광객의 추태나 한국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산업재해, 향락소비 문화의 만연 등의 부작용도 낳았다.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유산의 공통성만을 생각하면서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체제 속에서 생활하면서 축적된 문화적 차이를 간과한 데 있었다. 수십 년간의 단절과 상이한 문화체제에서 몸에 밴 생활과 문화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국의 정치, 문화와 시장경제의 한국적 상황은 서로에게 몸에 맞지 않은 옷을 강요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한 일이었다.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변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전개되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친한 감정과 분위기의 성숙이었다. 국권상실기에 모국을 떠났던 동포들에게 한중 수교를 통한 교류는 민족적 동질성에 입각한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제2단계에서는 반한 감정으로의 전환이다. 초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문화적 이질감을 겪으면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감정은 신뢰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감정적인 요인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조선족들의 불법취업과 한국인들의 우월감은 이러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제3단계는 상호 체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화해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사회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사회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대면적 접촉이 증가하면서 서로에 대한 생활방식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하기 시작하였다.

## 나. 한국·조선족 사회의 문화교류 현황<sup>35)</sup>

### (1) 매체

#### ① 방송

연변에서는 위성안테나를 설치한 경우는 한국의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TV까지도 모두 시청 가능하다. 현지에서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으며, 발견시에는 압수당하지만 도시와 농촌에 급속도로 설치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의 경우는 한국드라마를 보기 위해 저녁마다 위성안테나가 있는 집으로 모여드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위성안테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낮에는 숨겨두었다가 밤에만 설치하는 집도 있다고 한다.

위성안테나의 가격에 따라 수신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한데, 보통 1,200원 정도이면 공영방송은 모두 수신할 수 있다고 한다.

연변TV방송의 한국드라마 방영은 아침 6시~6시30분, 저녁 9시 30분 - 10시 30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음악전문방송으로 ‘연변문예가곡예약프로(延邊文藝點播頻道)’가 있는데, 한국노래, 중국노래, 팝송 등 다양한 노래를 전화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한 곡당 8원씩 전화비에서 빠져나간다.

연길시 라디오 방송국 FM88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한국 가요만 방송한다. 이전에는 저녁 9시대에 방송을 했으나 2002년 가을 개편이후 오전 11시로 바뀌었다. 연변자치주라디오 방송국에서도 ‘가요요청 무대’라는 프로가 있는데 생방송으로 청취자들로부터 전화 접수를 받아 한국노래, 북한노래 등을 틀어주고 있다.

#### ② 영화감상

CD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구입해 감상한다. 일반적으로 보는 CD와 비디오 테이프는 불법 복제된 것으로 연길시 서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동네

35) 이하 부분은 연변대학교 한국-조선문화연구중심의 유병수 연구원의 원고를 바탕으로 하였음.

마다 대여점들이 있어서 쉽게 빌려 볼 수 있다. 대여료는 인민폐 1원이다.

복제상들의 CD, 비디오테이프 구입방법은 보통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는 한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원본을 사다가 복사해 파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은 한국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것을 찍어다 CD로 구어서 중국어로 자막 처리해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비디오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비디오나 CD로 복제되어 유통이 된다. 대부분의 미국영화들은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 요즘은 컴퓨터로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다운받아 CD로 복제하기도 한다.

CD 한 장의 가격은 13원 정도이고,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는 10원 정도 하는데, 요즘은 비디오 테이프는 거의 나오지 않고 CD로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 ③ 인터넷

인터넷은 주로 PC방을 이용해 하는데 연결시의 PC방은 현재 한집 건너 한집이 PC방이라고 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 PC방 이용료는 1시간 3원, 밤12시 이후 2원, 밤샘의 경우는 7원 PC방에서는 주로 게임과 채팅, 영화감상, 음악감상 등을 한다. 한국영화를 PC방에서 많이 감상하고 있다. 학교나, 공공기관과 같은 단위들에서는 전용선을 설치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집에서는 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전용선을 설치해 사용한다. 전용선의 경우는 설치비가 360원이며 속도와 사용시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대학생들은 보통 한국인터넷 회사(hanmail이 가장 많음)의 ID와 중국회사의 ID를 많이 가지고 있다.

### (2) 문화취향

프로그램 내용상의 선호도는 한국과 별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악이나 드라마는 모두 들어오고 있다. 연변TV는 연변자치주 전역에 방송되는 데, 연변TV를 통해서 방송되는 한국드라마는 모든

조선족들이 즐겨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농촌의 경우는 저녁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텔레비전 앞에서 시청을 주로 한다. 2002년 11월 현재 아침에 <사랑을 할수록>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육망의 바다>를 방영하고 있다. <육망의 바다>는 이제 막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비단향꽃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었다. 비교적 한국의 드라마는 최근의 것이 바로바로 들어와 방영되고 있는 편이다. 드라마의 보급은 한국의 방송사에서 무료로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음악CD나 테이프도 최신유행가요라는 형태로 복제되어 판매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위성안테나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설치한 가정이 적은 편이어서 최신의 한국드라마를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를 녹화해두었다가 CD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 (3) 연변의 한국 문화보급

① 드라마 : <사랑이 뭐길래>(1992년), <질투>(1993년), <바람의 아들>, <육망의 바다>, <그대 그리고 나>, <느낌이 좋아>, <달빛가족>, <토마토>, <이브의 모든 것>, <영웅신화>, <사랑할까요>, <모델>, <파트너>, <결혼>, <프로포즈>, <거짓말>, <웨딩드레스>, <경찰특공대>, <비단향꽃무>.

② 영화 : 비디오를 통해 기본적 한국의 영화는 모두 보급되었음.

③ 만화영화(TV를 통해 방영) : <옛날 옛적에>(1994년경), <날아라 슈퍼보드>

④ 가요 : 노래방의 보급과 함께 한국노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초의 한류라고 할 수 있는 가요는 1992년 김범룡의 <바람바람바람>으로 한어로 번역되어 당시에 많은 인기를 차지했었다. 클론의 <콩따리사바라>보다도 더 일찍 사랑을 받은 노래이다.

#### (4) 한국문화 유입에 따른 변화

##### ① 노래방의 보급

노래방의 보급으로 최신 유행곡까지 젊은이들이 즐겨 부를 수 있게 되었다.

##### ② 댄스그룹 유행

한국에서 댄스그룹들이 유행을 하자 연변에서도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댄스연습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있게 되었다. 현재 아리랑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북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선족 그룹은 이전에 연변에 있을 때는 POP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다.

##### ③ TV프로그램의 변화

TV프로그램 중 한국 것을 모방하는 것들이 생겨남. 일요일 아침과 월요일 아침에 방송하는 ‘고향의 아침’이라는 프로는 한국의 ‘6시 내고향’과 같은 프로이다. 청소년프로 중에도 ‘청춘스타트’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부분 한국의 프로를 모방하고 있다. 아나운서들의 말투도 점점 한국의 표준어를 따라가고 있다. 이는 아나운서들이 한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연변 텔레비전과 연결시 방송은 한국방송의 패턴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 프로그램 배치시간이나, 프로그램의 진행방식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방영했던 아침드라마를 연결에서도 아침 시간에 방송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에서 미니시리즈로 저녁시간에 방영했던 프로그램들은 연변에서도 저녁시간에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일주일에 두 번씩 방송하는 것에 비해 연변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서 방송하는 것 정도가 차이점이다.

##### ④ 놀이문화

대학생들의 놀이문화는 한국의 것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 MT에 가서 많이 하는 007게임이라든가, 369게임이라든가 하여간 한국대학생들이

하는 놀이문화가 유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이다.

#### 다. 북한·조선족 사회의 문화교류 현황

##### (1) 유통경로

① 도서 : 현재 북한의 도서는 1년에 1번 정도 신화서점과 연변조선족 자치주 주정부 도서관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책을 많이 찍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의 책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 책들은 한국사람들에 의해 많이 팔리고 있으며,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에 비해 가격이 약간 비싼 편이다.

② 비디오 : 두만강호텔에서는 북한비디오(영화, 음반)를 팔고 있는데 이것은 심양에서 가져온다고 한다. 비디오는 개당 100원을 받고 있으면 모두 원본이다. 서시장에서도 몇 곳에서 비디오와 CD를 팔고 있는데 이는 복제 한 것들이며 가격은 비디오는 10원 정도이며, CD는 13원 정도이다.

③ 식당 : 연길시에는 북한식당이 세 곳이 있다. 유경호텔, 두만강호텔, 해당화식당인데 두 곳은 호텔에 있는 식당이다. 유경호텔은 김치가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으며 북한식당들 중에서 가장 비싼 곳이다. 이 세 곳에서는 북한의 냉면과, 술, 식혜 등 다양한 북한 음식을 맛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온 접대원들이 북한의 노래와 춤도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도 감상할 수 있다.

④ 공연예술 : 1999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대규모의 공연단이 와서 공연을 하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9월 3일은 자치주 성립 50주년이었었는데 이때 개막식 때 보여준 문예공연(카드섹션, 마스게임 등)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 총 감독을 맡았다고 한다.

(2) 연변에 소개된 북한 문화예술

① 드라마 방영 : <이름없는 영웅들>, <모란꽃>, <민족과 운명> 등

② 영화 : 북한 영화는 197,80년대 상영하였다. 상영된 작품으로는 <춘향전>, <홍길동전>, <명령027>, <남강마을의 여인들>, <금희와 은희의 운명>, <꽃피는 처녀>, <피바다>, <금강산 처녀>, <기관사의 아들>, <우리 처가집 문제>, <월미도>, <묘향산에서 다시 만나다>, <사과 딸 때>(1960년대), <로동일가>(1960년대), <비루강의 전설>, <정찰병>, <꽃피는 마을>(1970년대)

③ 만화영화 : <령리한 너구리>

④ 소설 : <한자위단원의 운명>, <피바다>, <꽃피는 처녀>, <고향>, <두만강>, <황혼>

⑤ 가요 : <피바다> 주제곡, <꽃피는 처녀> 주제곡, <금강산처녀들>, <사과풍년>, <휘파람>, <반갑습니다>, <나는 알았네>(월미도주제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왕자아리아>(콩쥐팥쥐 주제가), <봄노래>, <세상에 부럼 없어라>, <아무도 몰라>, <빨치산의 노래>, <샘물터에서>, <청춘의 자랑>, <일터의 휴식>, <총동원가>,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⑥ 가극 : <콩쥐팥쥐>

⑦ 만화책 : <령리한 너구리>, <다람쥐와 고슴도치>, <용감한 수탉>

라. 남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현지인들의 선호도

- 30대 이상은 북한노래 한두곡씩은 부를 줄 알고 있으며, 노래방에 가서도 한국노래와 함께 북한 노래도 즐겨 부르는 편이다. 즐겨 부르

는 북한 노래들은 힘차고 경쾌한 리듬의 노래들이다.

- 북한의 공연예술을 보고는 한국사람들은 보통 경직되었다거나, 딱딱하다거나 하는 비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곳의 사람들은 힘차고 경쾌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북한의 공연예술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편이다.
- 한국에서 와서 공연했던 국악공연들에 대해서는 지루하다거나 재미없다는 평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한국에도 북한 못지 않은 좋은 공연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공연들이 연변에서는 선보인 적이 극히 드물었던 것 같다.

## 마. 한국문화 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 (1) 불건전한 문화풍토의 확산

연변자치주의 불건전한 문화풍토의 확산은 자본주의의 병폐이지만 개혁 개방과 한중수교이후 조선족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한족은 조선족에 비해서 이러한 병폐가 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이러한 병폐 현상으로는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 ‘소비향락문화의 팽배’, ‘황금만능주의 팽배’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선족 사회에서는 빚을 얻어서라도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생각이 강하며, 한국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날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다시 한국에 가려 하지 중국에서는 결코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음. 중국에서 힘든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한국에 가서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의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36) 정관룡(1997), 세기교체와 중국조선족 가치관의 변화 및 민족전일체성문제 「중국조선족 현상태분석 및 전망연구」 연변대학 출판사, p.21 : “한국방문은 조선족 사회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전에 없던 과소비, 향락문화가 중국조선족사회에 확산되거나, 근면하게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관념이 조선족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 등이다.”

이이에도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조선족 사회는 조선족자치주로서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되어 오면서 한족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았었지만 한국과의 교류이후 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국문화에는 무관심하여 텔레비전 시청의 경우도 중국 것은 재미없다고 잘 보지 않으며 한국드라마를 즐겨본다.

## (2) 한국 출국으로 인한 가정 파탄

출국한 조선족들의 2/3가 여성이다. 자녀교육을 담당할 여성들의 부재로 인해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중학교의 한 반을 조사해보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이 절반도 되지 못한다고 한다. 둘 중의 한사람은 외국에 나가 있는 실정이다. 용정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는 90명이 출국을 했는데 이중 70명이 여성이라고 한다. 남편들이 남아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밥도 해 먹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으로의 출국을 위해 가짜이혼, 위장결혼 방법이 이용되는데,<sup>37)</sup> 가짜이혼이 나중에는 진짜이혼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에 따른 이혼율이 급증하였다.<sup>38)</sup> 또한 처녀가 없어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조선족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부농촌에서는 북조선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으나 불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편은 아니다.

37) 흑룡강신문, 1996년 9월 24일 : “1,500여명이 사는 목단강시 모 가두의 조선족 가운데서 위장결혼을 한 여성이 200여명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260호가 살고 있는 목단강시 교외의 모 조선족 마을에는 위장결혼이 30-40건에 이르고 있다.”

38) 「연변여성」 1997년 4월 : “연길시인민정부 혼인등록처의 1997년 1월6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조선족 리혼 31쌍, 한족리혼 7쌍, 기타민족 리혼 3쌍으로 집계되었다.”

료녕조선문보, 1997. 4. 5 : “심양시 화평구 조선족소학교는 현재 학생이 1,200여명이다. 이 학생중 부모가 리혼한 자녀가 177명으로 학생총수의 15.3%를 차지한다.”

### (3) 청소년의 문제 확산

한국과 수교이후 청소년은 들의 경제적 낭비와 청소년 범죄의 증가, 소비 문화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들이 한국으로 돈을 벌러 나갔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라고 있다. 그런데다가 부모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보내주다 보니 비교적 아이들의 소비수준이 높은 편이다. 부모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돈이 있는 아이들의 소비는 향락적인 부분에 쏠리게 된다. 부모의 보호가 없다 보니 청소년들의 범죄도 많아지고 있다.<sup>39)</sup>

한국의 방송을 접하면서 한국사람들의 패션, 신발,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젊은이들이 한국의 유행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따른다. 연길은 노래방이 많기로 유명한데 노래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의 경우 그들이 버는 돈의 대부분이 이러한 한국의 사치품을 사는데 사용되고 있다.<sup>40)</sup>

---

39) 홍만호, 한국나들이와 도시진출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문화산맥 2」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1997), p. 186 : “어떤 학교에서는 30-50%정도의 학부모가 국외로, 도시로 간 형편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교양은커녕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내버려지고 있다. 그 결과는 애들의 품행이 나빠지고 학습성적이 내려가는 것이다. 애들을 멀리 떠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사랑’하고 ‘교양’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애들에게 금전만능사상을 심어주고 물질적 향수에 물젖게 한다. 그것이 계속된다면 학업의 황폐뿐 아니라 영혼의 부식 심지어는 범죄의 길로 내몰게 된다.”

40) 한국제품들은 중국제품에 비해서 몇 배나 비싸지만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 한국의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사온 의류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빌딩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가게들이 들어서 있는데 한 달 임대료가 5,000원 정도라고 하며 한 달 순이익이 10,000원 정도라곤 곳도 많다고 한다. 이 외에도 한국상품도매센터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대량의 물건을 주문받아 도매로 공급하는데, 주로 속초에서 출발하는 배를 이용하여 러시아와 훈춘을 거쳐 연길로 들어온다.

#### (4) 민족교육 문제

조선족 사회의 한국진출은 지식인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식층의 한국 진출로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 한국기업 등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조선족 학교에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교원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sup>41)</sup>

#### 바. 한국-조선족 교류가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교류에 주는 시사점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한 문화교류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조선족 사회와 한국의 교류가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교류에 시사점을 주는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고유한 언어를 지키면서 독자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공식 언어로서 한글이 통용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문학, 예술활동을 비롯한 독자적인 방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국의 약 200만명의 조선족은 해외거주 한민족 5백 2십 만 명 가운데 38% 정도를 차지한다. 조선족의 대부분은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길림성에 120만 명, 흑룡강성 45만 명, 요녕성 23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조선족의 대부분이 19세기 후반의 농업개척자, 독립운동을 위해 민족사적 고난기에 모국을 떠나야 했던 유민들로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지키면서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변의 문화로는 ① 드라마 : <사랑의 품>, <쌈>, <초연속의 수리개>, <갈꽃>, <나은정 키운정>, <별찌>, <가족사진>, ② 영화 : <첫봄>, <김옥희>(1960년대), ③ 소설 : <춘정>(이원길, 문화혁명 이후), <몽당치마>(림원춘), <격정시대>(김학철), <하고싶은 말>(정세봉), <해란강아 말하라>(김학철), ④ 노래 : <연변인민 모주석을 노래하네>, <오래오래 앓으

41) 황유복, 21세기의 조선족을 생각한다. 「문화산맥2」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7), p. 178 : “민족교육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원유실문제다.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 한국 회사에 취직하거나 로무자로 한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조선족학교들은 경험있는 교원의 부족으로 머리를 앓고 있다.”

세요>, ⑤ 연극 : <사랑의 품>, <장백의 아들>, <털없는 개>, <희노애락>, <千萬不要忘記>, ⑥재담 : <삼노인> 등의 작품이 있다.

둘째, 현재 한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정도가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 견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 방문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서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한국인의 조선족 방문이 조선족들의 한국 방문보다 많은 상황이다. 조선족의 한국 방문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인의 조선족 사회 방문은 크게 뿌리찾기, 관광, 경제투자, 유학, 국제결혼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뿌리찾기를 위한 방문은 조선족 사회가 국권상실기에 생존의 일환으로, 혹은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 한반도를 떠나야 했던 동포 유민들로서 혈연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친인척 등의 뿌리찾기를 위한 상호 방문은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관광을 위한 방문은 중국과 수교가 되면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인 비용이 저렴하며 언어 소통의 문제가 없고, 오랫동안 갈 수 없었던 곳이었던 점이 이 지역으로의 관광 러시를 이루게 하였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내 기업 활동에서 조선족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 취업을 위한 조선족들의 한국 입국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이 지역으로의 유학이 늘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유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셋째, 개방의 과정과 사회발전 정도의 유사성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나 사회가 개방될 것이며, 개방의 방향과 과정은 중국의 경제개방 정책에 일정 부분 유사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개방에 따른 남북한의 교류가 추진되면서 한국과 조선족 사회가 겪었던 문화적 충돌 현상도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교류는 한국기업의 조선족 사회 투자, 조선족의 한국기업 취업, 한국 기업을 통한 제3지역 취업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다.

### Ⅲ. 남북한 문화예술의 구조적 분석

#### 1. 남북한 문화를 보는 시각

현재 국내에서는 남북한의 문화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두 갈래의 인식이 쟁점화되어 왔다.<sup>42)</sup> 그 하나는 민족내의 이질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견해이다. 이 같은 인식은 분단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산주의라는 이질적 사상체계가 동족간에 위화감과 이질화를 더 심화시켰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동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의식이 사상이나 이념 등으로 인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수 천년 동안 이어온 민족적 동질성이 단기간 내에 변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전자의 견해는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가 심각하다는 견해의 근거를 북한이 사회주의 정치체계를 건설한 점에서 찾고 있다. 즉 남북한 문화의 극심한 이질화, 다름의 초래는 전적으로 북한이 주도하였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굴절된 문화를 전개해 온 북한의 문화를 온전한 남한의 문화가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의 견해는 5000여 년의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형성된 문화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극히 작은 50여 년의 분단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이질화는 그 동질성에 비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남북한의 문화는 이질성보다 동질성이 강하며 따라서 동질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더욱이 이질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통일에도 저해요인이 된다는 주장한다.<sup>43)</sup>

이러한 두 논리가 지닌 공통점은 5천년의 역사속에서 남북이 분단되어 50여년 동안 상이한 이념과 체제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일구어오는 동안

42) 박상천외,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pp. 13-15 참조.

43) 에베레트 트라이안스 또한 이러한 견해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민족통일 : 그 문화적 측면,” 「통일정책」, 제4권 4호 (1978), p. 86 참조.

전통적인 규범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문화 부분은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질성이 문화를 포함하는 다른 여타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전제를 기초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절대적인 책임을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남북의 이질성의 형성은 남과 북 사회의 공통적이고 동일한 모습이다. 그 변화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제도와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건 또는 근대화의 정도에 따른 결과이건, 사실상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신도 달라졌다.<sup>44)</sup> 즉 남과 북이 다름의 측정을 남한의 현대를 잣대로 삼는 까닭에 모든 이질성은 북한의 현상으로 보인다.

분단 이전의 상태인 과거의 공통 기준점에서 보면 북이 남과 다른 만큼, 북에게는 남이 달라진 것으로 비칠 것이다. 즉 이질화의 상대성이다. 예컨대 남한은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전통문화를 지속시켜 왔으나, 공업화의 과정에서 전통문화의 변질과정을 경험하였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은 내면적인 전통문화의 변형을 의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sup>45)</sup> 남한이 형식적인 것으로 전통문화를 변형시켜 왔다면, 북한은 내부에서 외형으로 전통문화를 변질시켜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성의 상대적 진실을 망각하거나 무시하고서, 북한의 상대적 이질화를 반공논리로 절대화하게 된다면, 북한 사회의 이질화는 실제의 두배로 환상적 인식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동시에 어떤 면에서 남한이 민족의 전통적 특수적 고유의 생활양식이나 풍습 가치관 등으로 포기한 측면이 많은 것을 볼 때, 북한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감각하는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에서 남한 사회가 변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현상학에서 논한 바와 같이, 생활세계에 있어 풍습, 관습, 그리고 전통

44) 이영희, “남북한 정치사회상의 이질감과 극복,” 「남북한 이질감과 그 극복 전망」, 효성여대 현대사상연구소 주최 1993년 통일문제 교수 학술 세미나 (1993. 9. 23), pp. 5-6.

45) 이광규, 「새로운 민족관의 수립을 위하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 p. 141.

적 행태들은 고도로 사회화한 구조의 정형화된 지식이며, 이것은 나와 이웃의 사적 지식을 초월한다. 이 지식은 고유의 역사를 지니며 사회적 유산의 일부가 된다.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사회제도가 마련된다. 제도는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의 복합체이며, 생활세계는 바로 이 복합체이기도 하다. 이 세계안에서 나는 다른 개인과 언어 그리고 기타 상징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나누는바, 이것이 곧 문화이다. 일상어의 낱말과 어구는 사회적으로 유래하는 지식이 전파되는 정형화의 매체이다.<sup>46)</sup> 따라서 생활세계는 ‘활동적인 것이며 사회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다.<sup>47)</sup> 비록 그것들이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생활세계의 이러한 특성은 실제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현상의 전개를 현상학의 생활세계 개념에 적용시켜 보면, 우선 우리는 분단 이전의 한민족의 생활세계와 분단 이후의 남북한간의 생활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분단 이전의 생활세계는 한민족이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제도를 형성했으며, 풍습, 관습 및 전통적 행태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문화의 하위구조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분단 이후의 단절된 생활세계는 양측의 지향 이데올로기와 지배적 구성원들에 의해 서로 상이한 사회제도를 형성시켰고 이는 이질화의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즉 체제상응성이 없는 이념과 체제, 제도에 의해 문화예술과 같은 하위문화가 채색됨으로써 이질화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 제도가 각각의 하위 문화들에 대해 채색되는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각각의 하위문화는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실제 표현되는 문화예술 작품에 대해 기계론적으로 영향을 주지만은 않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전통적 동질성의 단서가 된다. 후자의 경우는 이념과 체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동질성과 이질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긍정적 다름, 즉 이질성의 요소가 추

46) 차인석, 「사회인식론-인식과 실천-」(서울: 민음사, 1992), pp. 113-116 참조.

47) Hwa Yol Jung, *Rethinking Political Theory : Essay in Phenomenology and the Study of Politics* (Athens: Ohio Univ. Press, 1993), p. 7.

출된다.

## 2.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sup>48)</sup>

### 가. 이질화의 요인

남한의 사회체제는 대체로 민주주의사회에 기초하는 다원주의체계로서 개인주의에 입각한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비집단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이다. 이러한 다원주의를 기초로 남한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에의 접근기회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증가시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문화지원정책이다. 따라서 남한에서 실질적인 문화활동은 개인이 담당하고 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한에서 문화의 목표는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제 자체의 자율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에 따라 남한의 문화는 국민의 공동체의식의 함양, 국민 정서의 순화를 통한 바람직한 가치관으로의 계도, 국민의 정서적 욕구의 충족, 순수예술론의 관점에서 예술 그 자체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sup>49)</sup>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 그리고 이에 토대하고 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론’과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라는 이념적 토대를 통해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사회를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문화는 정치적 예속물로서 최고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이 표방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북한의 문화는 대체로 당규약이나 김정일의 교시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메카니즘의 측면에서도 김정일

48) 남북한 문화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기성, “문화통합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내용의 개선방안 연구,”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종합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서울: 통일원, 1998), pp. 37-45; 오기성, 「남북한문화통합론」(서울: 교육과학사, 1999), p. 221-278 참조.

49) 정홍익,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예술논총」, 제5집 (1993), pp. 53-55.

의 문예정책을 실질적으로 관장,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와 내각의 문화예술성이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의 기본적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컨대 국가가 문화 예술에 개입하는 수준과 관련하여 남한에서도 문화관광부가 문화 예술활동에 관여하고,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지만, 북한에서는 정부와 당이 직접 문화 예술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사회와의 관련성에서도, 남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의 영향을 받고, 사회가 또한 예술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에 종속되는 정도가 강하다. 또한 남한에서는 문화활동이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인식되지만 북한에서는 여가생활인 동시에 정치적 활동이 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 요인은 구체적으로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해방 이후 남북한은 미군과 소련군에 분할 점령되면서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문화가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개인의 사상이나 행동을 집단에 귀속시키는 집단주의가, 남한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시되었다.<sup>50)</sup>

둘째로, 분단체제의 고착화이다. 남북한 상호 배타적인 정치체제와 한국전쟁의 경험은 남북한 정치주도 세력들간의 첨예한 이념적 갈등을 낳았고, 이는 남북한간 극단적인 체제대결로 발전하는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이처럼 양극화되어 대립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속에서 남북한의 문화예술을 포함하는 심미적 문화와 의식구조의 이질화가 증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셋째로,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남한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였으며, 북한은 급진적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토지와 산업의 국유화, 집단농장화 등 중앙집중적 경제체제를 성립시켰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차이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일상생활 문화와 가치체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남한에서는 대체로

50) 이현경, 최대석, “남북한 문화예술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편, 「통일문화연구(상)」(1994), pp. 308-309.

개인의 책임아래 모든 경제생활이 영위되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책임지는 경제사회구조아래 이른바 보호문화가 정착되었다.

넷째로, 남북한의 문화정책과 문화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국가계획체계의 하위개념으로 사실상 정치체제의 유지 및 우월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적으로 선전과 선동을 수행하는 문화선동정책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국민교화정책이다. 따라서 지도부가 문화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화활동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political selectivity)<sup>51)</sup>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반면 남한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에의 접근기회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증가시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문화지원정책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으나, 민주화와 더불어 그것의 정도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남한에서 실질적인 문화활동은 개인이 담당하고 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남북한의 이러한 문화정책과 문화관의 차이는 문화의 이질화를 초래하는 중요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로, 남북한 사회·문화적 이질화의 또 다른 요인은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남한사회의 개방성이라 할 수 있다.<sup>52)</sup> 북한주민은 조선의 봉건사회, 일제하의 군국주의를 거쳐 곧바로 폐쇄적 공산정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타문화와의 접촉을 통한 변화, 즉 문화접변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왕정사회의 잔재가 많이

51)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는 김경동 교수가 주창한 이론으로서, 어떤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힘의 배분원리에 따라서, 어떤 사회는 민주적 참여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여 변화의 우선 순위와 수단을 설정할 것이고, 또 다른 사회는 일인 또는 소수의 전체적 지도자에 의한 과두적 결정유형으로써 하게 될 것이다. 이 양극의 가운데는 갖가지 민주적인 조직원리로부터 권위주의적인 것에 이르는 유형들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김경동, 「한국사회 변동론」(서울: 나남, 1994), pp. 87-89.

52)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88-90.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한사회는 해방 이후 계속 이질적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문화접변에 따른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방사회인 남한 사회는 이질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적응력이 크며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문화와의 공존을 당연시하는 반면, 북한의 경우 정책적으로 유일사상과 민족 및 문화의 순수성을 강조하여 이질적인 것에 대한 허용 범위가 적고 타문화에 대한 적응력도 약하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성은 한반도에 지난 50여 년간 상응하기 어려운 두 사회체제의 존립과 근대화에 따른 사회구조 및 문화 변화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남한체제와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체제간에 체제 상응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문화적 이질성의 심화를 이끈 한 조건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 양 체제가 지향해 온 이념상의 현격한 차이와 이로 인한 하위문화의 이질화가 심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문화예술의 이질화 양상

### (1) 이념적 기초와 제도

우선 이념적 차원에서 남한은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영역에서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비교적 약하게 작용하고, 되도록 문화현상을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북한은 집단주의와 획일성을 특징으로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토대 위에 수령과 노동당이 문화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를 선택하여 집행해 왔다. 여기에 강력한 정책기구를 필요로 한다. 남한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제도와 기구들이 북한에서는 중앙권력, 특히 1인 중앙집권의 경향을 지님으로써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직업예술인의 조직체이자 문학·예술을 총괄하는 단체로서 ‘조선문학에

술총동맹'(문예총)이 있다. 이에 망라된 예술단체로는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사진가동맹 등 7개 동맹이 있다.

문예총은 김일성에 의하여 이룩되었다는 혁명문학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당의 문예정책 관철을 위해 투쟁<sup>53)</sup>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예총은 1946년 3월 25일 북조선문학예술총연맹으로 발족되었다가 1951년 3월 10일 월북한 남한 예술인들을 흡수하여 개편된 조선문학예술동맹의 후신이다. 이 조선문학예술동맹은 1953년 9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임화, 이원조, 김남천, 설정식 등 남로당계 문예인들의 숙청으로 해산되고 개별단체로 작가동맹, 작곡가동맹, 미술가동맹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2월 무용가동맹, 사진가동맹 등 몇 개의 예술동맹을 다시 망라하여 현재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재조직된 것이다.

북한의 모든 작가·예술인들은 의무적으로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은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소속된 철저한 조직인으로서 주체의 구성과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평가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문예총의 각 하위 동맹들은 각각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작가동맹의 「조선문학」, 영화인동맹의 「조선영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맹의 기관지들이 북한 문학예술계에서는 최고의 발표지면으로 꼽히고 있다.

주체문예이론의 대두와 주체사상체계의 확립 이후엔 김일성부자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그려내기 위한 집체창작이 각 예술분야의 창작단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문학 분야의 4·15창작단, 영화문학 분야의 백두산 창작단, 공연예술분야의 피바다 가극단, 만수대 예술단, 미술 분야의 만수대 창작사 등이 대표적인 창작 및 예술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는 작가·예술인 전문 조직인 문예총과는 별도로 아미추어 작가와 예술인의 모임인 문예소조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문예소조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각급학교, 인민군대에 폭넓게 조직되어

53) 「문학예술사전」中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p. 502.

있는데 문학소조, 연극소조, 음악소조, 미술소조 등 장르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예술소조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문화혁명의 한 조직체가 된다. 예술소조원들의 창작품은 각 동맹의 기관지를 통해 발표되기도 하고 이들 중 일부는 후보맹원으로 발탁되어 일정 기간 정맹원의 지도를 받은 후 문예총의 정맹원으로 가입하여 전문 작가나 예술가가 되기도 한다.

## (2) 문화예술의 외현적 형태

이념과 제도는 문화예술, 즉 심미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요 가치지향의 차원에서 보면, 남한의 문화예술은 다양성과 상대적 자율성 보장을 큰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 창작품들, 즉 심미적 문화의 외현적 차원에서 남한의 문화예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현실변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서구의 새로운 사조를 수용하여 문화예술적 형식과 내용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덕주의와 유희주의는 때로는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는 김정일의 주도로 문화예술이 지향해야 할 가치지향이 이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김정일의 「주체문화론」, 「영화예술론」, 「미술론」, 「연극예술론」이 상징적 차원의 경직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가치지향을 기반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작가동맹이나 예술가동맹의 구성원들에 의해 구체적인 문학예술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예술은 다양성과 상대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당정책, 문예정책과 문예이론, 문학예술작품이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창작방법에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사상적 알맹이라는 ‘종자’를 작품의 생명력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창작방향에서도 ‘우리식’이라는 말처럼 조선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서양적인 것을 인민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창작방법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주체사실주의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당성과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강조하고 있다.<sup>54)</sup>

## (3) 문화향수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생활이란<sup>55)</sup> 일상의 편의화와 의식의 안도감 단계를 넘어 자신의 계발, 발전, 성취에 기여할 문화예술적 환경과 향유의 생활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인간의 정신적, 지적 상승과 예술적 취향의 충족, 공동체적 삶의 연대성, 창조적인 행위에의 참여성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

현재 남한의 문화생활, 특히 여가문화는 여가의 상업화 현상, 계층분화 현상, 개별화현상, 공동체적 생활문화의 특성, 외래 여가문화의 추종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여가 개별화 현상은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으로, 경제적으로는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뒷받침되며 대표적인 활동에는 텔레비전 시청이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선진사회에서도 텔레비전 시청이 국민의 여가생활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실증적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가의 개별화 현상은 현대 여가문화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56)</sup> 또한 여가가 개별화되어 가는 측면과는 반대로 정서적 동질감을 구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독특한 여가문화 역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음주문화와 노래문화가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여가문화는 건강하지 못하고 강요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지만, 공동체적 생활정서가 생활의 한 에너지로서 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만이 갖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외래 여가문화의 추종은 일제의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쳐 서구의 신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한데

54) 이러한 ‘지침적’ 성격들은 김정일의 「주체문화론」, 「영화예술론」, 「미술론」, 「연극예술론」, 「주체음악론」 등을 관통하고 있다.

55) 도홍렬, 김남식, “삶의 양식,” 김학준외, 「남북의 생활상-그 삶의 현주소」(서울: 박영사, 1987), pp. 221-223.

56) 이기영, “가정관리자원의 변화,” 이기영외, 「광복 후 가정생활의 변천」(서울: 서울대출판부, 1996), p. 82, pp. 86-87 ; 이서행, “남북한 사회관 및 일상적 사회생활 관련 가치관의 갈등양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247-248.

서 기인한다. 한편으로는 외래의 여가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인 감각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부터의 단절과 정신적 사대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뒤따른다고 하겠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여가욕구는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데 반해 사회기구의 기능이나 물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하고 동시에 의식 및 욕구의 팽창 방향이 올바르게 선도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 강건한 기풍을 파괴함으로써 전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있는 무분별한 해외여행, 여가 행태의 퇴폐, 향락화 경향, 청소년 탈선문제 등이다. 여가생활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여가 활동 참여가 개인 및 가족,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여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적인 지원 역시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북한주민들의 문화생활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예술공연과 관람 등을 한편으로 하고, 유원지와 공원 등에서의 가족과의 유희를 즐기는 것 등으로 크게 나타난다. 물론 이것은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스스로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sup>57)</sup> 공연예술과 관련한 여가생활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군중선전의 의미도 같이 갖는 것이라면, 유희와 관련된 것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며 집단적 문화생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생활 자체도 조직되고 집단화되어 있는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보다는 오히려 가족단위로 혹은 집단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의 문화시설로 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남북한간의 개념상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온 나라의 예술화’, ‘전체인민의 예술향유사회’가 되어 있다는 향수자의 측면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본다. 그

57) 김귀옥, 정영철, “북한 ‘인민’ 생활세계 연구,” 「96 북한 및 통일연구논문집」(서울 : 통일원, 1996), p. 226 ; 임채욱, 「북한 주민의 문화향수 실태 연구」(서울 : 문화정책개발원, 1996), pp. 27-28.

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온 나라의 예술화, 전체인민의 예술창조자화는 '1인 1기'라는 북한 문예정책의 이상적 목표에 불과한 선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아마추어들이 각종 경연대회(전국 군중문학작품 현상모집, 전국 음악작품 창작경연, 전국 노동자 예술소조 종합공연)나 대학의 작가 양성반, 작가학원 등을 통해 문예계에 진출하는 길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개방되어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보다 용이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sup>58)</sup>

또한 군중문화사업과 같이 전군중적 참여를 중시하는 예술창작활동을 실시한다고 해서 높은 문화향유수준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양적인 차원에서 '높은' 또는 '많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지 몰라도 질적 혹은 내용적인 차원에서 '높은'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으리라고 본다. 다만 문화활동의 유형중의 하나인 '참여를 통한 문화향수'는 가장 수준 높고 바람직한 문화향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의 테두리 안에서 북한은 창작참여를 통해 '양적으로 많은' 형태의 문화향수를 영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주민의 문화향수 실태에 나타나는 문제점 내지 특징을 보면, 우선 북한의 문화예술은 정치, 경제정책에 과도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느 사회체제나 문화정책이 정치(당)나 경제정책과 관련되어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겉으로는 문화생활에 정치생활, 경제생활과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화예술정책은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치(당)와 경제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sup>59)</sup>

둘째로, 북한의 문화예술 향수는 지나치게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

58) 이는 임채욱이 중국 연변지역의 조선족과 귀순자 총 314명(각각 252명과 62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석이다 ; 임채욱, 「북한 주민의 문화 향수 실태 연구」, 앞의 글, pp. 87-88.

59) 이러한 공식적인 문화향수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주폐놀이와 장기가 많이 놀이로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 강태홍, 「금강산 메타팔면 우리가 더 부자다요」(서울 : 내가 사랑하는 책, 1996), pp. 94-95 ; 이영화, 「평양 비밀집회의 밤」(서울 : 동아출판사, 1994), p. 115.

다. 인간생활을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경우, 공적인 부분만으로 개인생활의 욕구는 채울 수 없다. 개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정치생활, 경제생활에서 집단주의적 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사적인 즐거움의 영역은 문화생활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은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는 것이다.<sup>60)</sup>

셋째로, 북한주민의 문화생활은 일종의 지속적인 전시동원체제하에 놓여져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시동원체제가 지속된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전시동원체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생산과 노력봉사에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동원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노동이나 생산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추가적인 문화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활동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창의력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3.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

#### 가. 동질성의 잔존 원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남한의 문화와 북한식 사회주의 문화간에는 상당한 이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60) 북한주민의 문화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 양상은 집단적 문화생활과 노동현장 문화생활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즉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 8.15 해방, 당 및 정권창건일, 각종 노력경쟁운동 등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영화주간이나 전람회 등을 개최하여 집단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토론회나 감상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과 후 해당 직장 단체별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각종 서클활동, 노동 및 무용보급, 야기모임, 독서감상회를 가지는 등 집단적 문화생활이 조직화되고 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의 문화생활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예술소조들을 파견하여 휴식시간을 이용, 노동현장에서 각종 공연을 함으로써 노동의욕 고취 및 정서함양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집단적 형태의 문화생활을 통해 북한주민은 문화생활의 향유도가 거의 평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도홍렬, 김남식, “삶의 양식,”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 (서울: 형설출판사, 1998), pp. 222-223.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문화적 이질화의 주 요인은 오히려 두 체제간의 대립과 교류의 단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내용 면에서도 문화적 이질성을 체제적 이질성에서만 찾을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사례를 통하여 분명히 실증되었으며, 한반도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남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의 각 부분에서 체제의 지도원리 내지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 문화, 주로 문화예술이 지향하는 가치지향과 실제로 나타나는 문화예술 작품, 즉 주로 심미적 문화의 외현적 차원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상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남북한 체제의 이념과 사회현실 상에 불일치가 확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 개개인들에게 있어 그러한 지도원리와 이념의 내면화정도가 일률적으로 측정되기 어렵다.

남북한의 이질적 체제와 문화접변의 빈도가 각각 주민들의 생활양식, 가치관,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의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경쟁지향적 사회와, 일당지배하에 집단주의와 조직지향적 성격을 띠며 사적 소유를 금하는 국가통제사회에 각각 익숙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양식은 큰 차이를 보일 것이 명백하다. 특히 남북한 인구의 각 70% 정도가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 문화의 체제피구속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체제가치의 내면화 정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sup>61)</sup> 이러한 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에 영향을 받는 측면과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측면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 발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질성이 존재하게 되는 주요 요인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반세기에 걸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즉 분단 이전의 남북한은 동일한 생활세계를 구성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

61) 김학성,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민족통일연구원 편, 「통일문화연구(상)」(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248-250.

적 현실이 분단 이후 이념과 체제에 의한 채색에도 불구하고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일상적 가치지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로, 근대화에서 나타나는 동질성이다. 남북한의 근대화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으나, 비교적 사회구조의 측면에서나 인구구성,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에서 서로 동질성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동질성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로, 문화의 보편성과 관련된 동질성이다. 예컨대 모든 문화는 체제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성을 지니는 경향을 띤다. 즉 사회주의 문화의 차원에서 독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의 경우 문학예술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즉 과거의 인식과는 달리 북한에는 비이념적인 문학예술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것은 남북한 공히 동질성 확보를 통해 공유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사회를 산업사회라고 부른다. 즉 현대사회란 산업화가 경제조직에 있어서 지배적인 형태를 지닌 사회구조를 일컫는다. 이는 자본주의체제나 사회주의체제 역시 산업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유형일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가 전개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양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는가하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측면을 우리는 공산권 사회의 이론적 접근을 위해서 사회변동론 일반에서 그 틀을 빌어 온 보기로 근대화론, 발전론 내지 수렴론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근본적인 공통의 관심사는 공산주의사회의 변동도 일반적인 근대화를 경험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수렴론의 기본 가정에 의하면 공산주의사회의 변동도 비공산권사회, 즉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사회와 마찬가지로 공업화라는 변동을 주축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중국에는 이념적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사회가 세계적인 공업화사회 또는 후기산업사회의 모습으로 변질하여 세계가 동질화될 것이라고 본다.<sup>62)</sup>

남북한의 경우를 보면, 각각의 사회구조는 계급구조적인 측면과 자본가 계급의 존재여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남한사회에서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이 급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노동자계급은 계급혁명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속성으로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노동복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용인하고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진다.<sup>63)</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렴론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은 남북한이 다 같이 공업화와 산업화를 추구하였고 사업화의 진척에 따른 사회구조의 개방적 변화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남북한은 다같이 생산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자체의 수정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남북한체제는 상이한 이념에 의하여 설정된 분단과 대결구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두 체제 역시 모두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양 체제에서의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이념적인 차이가 극복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동질성이 확보된다면,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도 쉽게 재통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이른바 두 체제는 수렴론적 동질성, 즉 인지적 경험문화의 외현적 차원에서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sup>64)</sup>

그러나 문화통합에 있어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동질적 요소들과는 달리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렴론적 동질성의 요소 중에서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다. 예컨대 남북한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이기주의적 성향, 권위주의, 뇌물수수를 포함하는 관료들의 부조리, 일

62) 이은숙, 「북한사회연구」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8), p. 55.

63) 도홍렬, “분단 반세기의 남북한 사회변화 비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반세기의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6), p. 22.

64) 임채욱 또한 북한에 있어 산업화에 따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테크노크라트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남북한 동질성 확립의 가능성을 준다고 보고 있다; 임채욱, 「남북한 접촉과 문화변용」 (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pp. 22-23.

부의 배금주의적 요소 등이 그것이다.<sup>65)</sup>

또한 남한의 경우 전통성과 근대성이 혼재하면서 나타나는 이중성, 예컨대 전통적 가치성향과 서구적 가치성향을 편의에 따라 이용하는 성향과, 북한 주민의 의식구조상의 이중성, 즉 공적인 차원에서 집단주의적 가치와 사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적 내지 개인주의적 가치의 혼재 등도 문화통합에 있어 장애가 되는 동질적인 요소이다. 물론 이러한 동질적 요소들은 주로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남북 공히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측면들이다.

#### 나. 문학예술 표출형태의 동질성

때로는 인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민속무용도 있고, 이념적인 춤이라고 해도 예술적인 표현체인 춤동작은 우리 춤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질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이념적인 주제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춤동작과 공연형식, 그리고 무용표기법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부분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한 예로서는 첫째로, 춤동작에 있어서는 민속무용인 경우 춤사위가 기계적이고 각이 많은 춤이기는 하지만 근원적으로 기후풍토나 북한사람들의 고구려적 기질로 볼 수 여기서 말하는 문학예술을 포함하는 심미적 문화의 동질성은 외현적 차원, 즉 엄밀히 말해서 창작을 통해 산출되는 문화예술 작품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동질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남북한 심미적 문화의 외현적 차원에서 부분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외현적 차원에서 동질성은 그

65) 예컨대 남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이기주의가 그 예가 될 것이다 ; 이에 대한 논의는 손기웅, 길태웅, “북한 노동자문화 연구,”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98; 윤덕희, “시민사회적 통일문화 이념의 체계화 연구,”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41 ;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위의 글, p. 206; 소설로서는 전택철, “상상봉,” 「청년문학」(1991. 11), p. 22; 이정수, “사랑의길,” 「청년문학」(1990. 12), pp. 19-24 ; 강학태, “사랑의 길,” 「청년문학」(1991. 4), pp. 11-12.

이질성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문학예술이 주로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라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라 수령을 형상화하는 데에 주요 강조점을 두는 것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화예술의 경우 많은 이질화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 등의 심미적 문화 전체가 완벽한 이질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문학의 경우, 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한 시문학이라든지, 남한의 노동자 문예운동과 상호동질적 측면의 확보가 가능한 벽시가 있고, 소설분야에서도 분단과 통일문제로 한 소설과 대학역사소설간의 동질적 측면을 볼 수 있다. 이문열의 「아우와의 만남」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66)</sup> 이에 관련되는 북한의 소설은 김명익의 「림진강」과 「쇠찌르레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하소설은 남한의 「태백산맥」이나 북한의 리유근의 「홍경래」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벽시와 남한의 노동자의 문예는 그것이 비전문적인 작가층에 의해 생산된다는 점, 직접노동현실에서 창작되고 있다는 점, 예술성은 떨어지나 현장감이 뛰어나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보여준다. 반면 벽시는 공공현장에 게시되어 발표되는 형식인 반면, 노동자문예는 출판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상이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용의 경우에도 모든 것이 이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무용의 대부분이 김일성 우상화나 혁명수행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춤이지만 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에 있어서 북부지역의 향토춤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물론 거시적으로는 북부나 남부가 다 같은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적인 춤동작의 요소를 찾아낼 수도 있다고 본다. 둘째로, 공연형식에서 보여 준 무대장치라든가 조형 등 무대공학적인 기술은 우리들이 수용해야 할 것도 있고 전해주어야 할 것도 있다고 본다. 셋째로, 북한의 무용학자

66) 이외에 김승옥의 「무전기행」, 이문구의 「관촌수필」, 김원일의 「노을」, 현기영의 「운이 삼촌」 등이 있다. 또한 시문학에서는 신경림의 「농무」, 조태일의 「국토」 등이 있다 ; 박태순, “문학이 교육에 기여하는 방향,” 경상대 통일문제연구소 주최 학술심포지움, 「통일을 준비하는 사회통합교육」 (1997. 11. 18), p. 4.

들이 만든 무용표기법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그것을 수록한 타자기와 전자 계산기가 정확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연구, 분석해 보아야 할 일이지만, 일단은 이러한 연구 자세를 본받고 다같이 공동으로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음악의 경우에도 남북한의 음악은 노동은의 지적과 같이 내용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르지만, 민족적 형식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족적 형식에서 남한은 민족전통음악이 강하게 보존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민족전통음악보다 이를 현재적으로 발전시킨 민족음악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남한은 현재적으로 발전시킨 민족음악 기반이 약하고, 북한은 민족전통음악의 기반이 약하다. 이 사실은 남북한이 서로 만남을 기획하여 함께 수용, 보완, 발전 시킴으로써 세계음악의 신질서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화의 경우에도 북한의 영화들이 이데올로기와 정치 사회체제가 판이한 풍토에서 만들어짐으로써 이념적인 색채의 영향이 이질화를 증대시켜 왔지만, 큰 안목에서 보면 우리의 영상언어와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고 영화의 저변에 흐르는 정서나 심성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북한의 영화는 특히 한국의 60, 70년대의 정서를 아직 간직하고 있어<sup>67)</sup> 남북한 영화는 초보적이고 일정 부분에서 동질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한국영화를 크게 예술지향적인 영화, 오락지향적인 영화로 나누어 볼 경우, 대부분이 오락영화에 편입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영화는 동질성 확보를 위한 교류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될 것이다.

반면 예술지향적인 영화의 경우, 이는 작가의식이 개입되어 있으며, 진지한 접근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관된 주제의식이 있는 영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성이 있는 영화라 할지라도 그 영화적 기법이 지나치게 현재적이어서 전위적인 성격을 갖거나 성적 표현이 대담한 것은 동질성 확보를 위한 작품선정에서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67) 장미진, “남북예술교류를 통한 문화적 통합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편, 「남북문화교류 및 문화적 통합방안」(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p. 139.

미술의 경우에서도 원동석은 비록 분단의 세월이 길고 깊어도 생래적인 민족의 동질성이 예술적 감성으로부터 공통분모를 이룬 것을 한눈에 느껴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68)</sup> 이는 극심한 양식상의 이질화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및 의식적 차원에서 공통적인 감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극의 경우에도 북한의 민족가극, 예컨대 「춘향전」, 「박씨부인전」, 「장화홍련전」, 「홍부전」, 「심청전」의 경우는 남북한이 큰 이견 없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69)</sup>

#### 4. 남북한 문화예술의 이질성과 통합

남북의 평화와 화해협력, 그리고 통일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남북한 문화가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이러한 견해는 남북한이 분단 반세기 동안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의 이질성과 전통적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sup>70)</sup>는 당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남북한 문화가 전통적인 측면에서 동질성이 있고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질성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주로 70년대에 남북한 냉전체제하에서 정립된 남북한 문화에 대한 시각에 기초한다. 그러나 남북한 문화에 있어 전통적 측면에서만 동질성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질성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북의 이질적 측면, 즉 ‘다름’일지라도 양자의 화해협력과 통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다

68) 원동석, “코리아통일미술전에서 본 남북미술의 성향,” 「민족예술」 (1994, 창간호), pp. 115-119 참조.

69) 오기성, 「남북한문화통합론」(서울: 교육과학사, 1998), pp. 257-259 참조.

70) 통일부, 「2001 통일교육지침서」(서울: 통일부, 2001), p. 4.

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sup>71)</sup>

먼저 음악의 경우를 보면, 북한 민족음악의 역사원칙은 민족전통음악을 복원하고 보존하되, 그것은 역사주체인 인민대중들의 현대적 미감을 중심적인 근거로 삼고 발전시키는데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민족음악이 현재적으로 발전시킨 민족음악은 풍부하게 발전하였지만, 바로 그 역사원칙 때문에 민족전통음악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남한의 음악과 만나야 비로소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

북한음악에 있어 새로운 악기를 개량하여 실제 음악계에 적용, 활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다름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 보여진다. 여기서 북한의 개량악기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전통음악 연주는 물론 서양음악도 연주할 수 있도록 한 점, 전통악기와는 달리 배음과 음량이 풍부해져 합주할 때 저음이 풍부하고 음량이 확대되고 독주악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독주때 전통악기보다 기교를 더 부릴 수 있게 된 점, 서양식 관현악단과 배합(전체 또는 부분배합)이 이루어져서 같이 편성(배합관협악)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그 특성이 있다.<sup>72)</sup>

무용의 경우 남한은 30년대 이후 민족문화의 복원과 회복, 활성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민족 고유의 무용들을 보존, 계승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순수 창작무용에 있어서도 발레무용,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다양 각색의 무용들이 나뉠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용은 순수한 민족무용을 개조하여 서양식 포크댄스적인 형식으로 꾸민 집단무용으로 획일화 시켰으며 예술적인 무용도 우리 춤과는 달리 나뉠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서양의 발레처럼 기본동작을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하고있다.<sup>73)</sup>

71) 오기성,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연구,” 「통일정책연구」, 10권 1호(2001)

72) 예컨대 개량단소나 옥류금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노동은, 「노동은의 음악상자」(서울: 웅진출판사, 1996), pp. 230-231; 전영태, “민족적 대서사시 창출을 위한 준비작업,” 「문학사상」(1992. 4), pp. 315-316.

73) 이병옥, “북한무용의 이념과 실제,” 「북한연구」, 제4권 2호(1993, 여름), pp. 102-103.

또한 남한의 무용은 민속춤의 경우 고유한 모습과 향토적 특성을 살려 가면서 계승시키고 있다. 또한 예술무용의 경우 서양무용인 발레와 현대무용의 기본을 바탕으로 창작을 하는 무용과 전통적인 각종의 의식무용을 비롯하여 민속무용, 예능적인 교방무용, 문화재로부터 보존되어 고전무용의 구실을 하는 춤의 내용과 형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창작하는 각양각색의 무용작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남한의 춤과는 대조적으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조선춤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혁명과업에 맞도록 가공하여 획일적인 민족무용으로 전형화시켰다.<sup>74)</sup>

따라서 남한무용과 북한무용을 놓고 볼 때 예술 철학적인 면에서는 한국무용이 개개인의 창작성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예술로서 예술자체에만 그 가치를 두고 있는데 비해, 북한 무용은 예술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무용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이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무용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로, 민속무용인 경우 춤사위가 기계적이고 각이 많은 춤이기는 하지만 근원적으로 기후풍토나 북한사람들의 고구려적 기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에 있어서 북부지역의 향토춤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둘째로, 공연형식에서 보여 준 무대장치라든가 조형 등 무대공학적인 기술은 우리들이 수용해야 할 것도 있고 전해주어야 할 것도 있다고 본다. 셋째로, 북한의 무용이 민족적 특성을 상당히 강조하여 조선춤의 특징을 나름대로의 시각에 입각하여 정선된 동작과 감각을 살려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오히려 오늘날 우리 남한에서는 새로운 창작예술, 자유예술의 구현, 외래예술의 무비판적 수용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적 색채와 전통성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sup>75)</sup> 넷째로, 1987년 북한은 새로운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을 완성하여 발표했다

74) 이러한 경향은 주로 무용창작의 기본방향에서 사상적 알맹이로서 종자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볼 수 있다; 김정일, 「무용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8-51 참조.

75) 이병욱, “북한무용의 이념과 실제,” 「북한연구」, 제4권 2호 (1993, 여름), p. 97.

다.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에서는 무용작품의 양상과 정서감정, 그리고 소도구의 이름이나 생활적인 동작 같은 것을 글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sup>76)</sup> 무용표기의 기호학적 발상인 무용표기법이 육체의 언어인 춤동작을 얼마만큼 정확히 표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극의 경우를 보면, 역사적으로 근대 이후 남한의 연극은 정치사 및 정신사와 궤적을 같이 해왔다.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일제 잔재 청산, 봉건 잔재 청산, 분단문제(좌우익 사상의 대립),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분단문제와 더불어 전쟁, 이데올로기, 독재권력의 인권 침해가 극작가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또 1980년대 중반부터는 ‘5공정권이 빚은 각종 정치사회악과 환경문제, 붕괴된 도덕성’,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산업사회에서의 윤리의 피폐성이 새롭게 쟁점화되고 있다.<sup>77)</sup>

반면 북한은 공연예술 분야로서 연극과 우리에게는 낯설다고 볼 수 있는 가극이라는 분야를 두고 발전시켜왔다. 우선 가극부터 살펴보면, 북한에 있어 혁명가극이란 김일성이 30년대 항일무장 투쟁시기에 직접 각본을 썼다는 연극을 60년대 말부터 김정일의 지도로 다시 가극으로 각색된 작품을 말한다.<sup>78)</sup> 북한에는 이 혁명가극 외에 혁명연극, 혁명가요 등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김일성이 지난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창작했다는 작품들이다.

남북한 연극의 주요경향을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경직된 정치

76) 정병호 외, 「북한의 공연예술Ⅱ」 서울: 고려원, 1991), pp. 91-145; 이현경, 최대석, “남북한 문화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395

77) 이외 한국연극의 흐름에 대한 논의는 김웅태, 「연극이란 무엇인가」(서울: 현대미학사, 1997), p. 185; 이미원, 「포스트모던시대와 한국연극」(서울: 현대미학사, 1996), pp. 36-37; 한옥근, “연극예술의 희곡문학,” 유종호외, 「한국현대문학50년」(서울: 민음사, 1997), p. 235; 양혜숙, “80년대 한국연극의 발전적 위상과 양상,” 「문학사상」, 제201호 (1989. 7), pp. 103-104; 유민영, “해방 50년의 희곡,” 유종호외, 앞의 책, p. 224 참조.

78) 한국비평문학회편, 「북한 가극, 연극 40년」(서울: 신원문화사, 1990), pp. 56-58 참조.

체제로 인해서 식민지 유산인 신파악극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접목시킨 혁명가극을 기본적인 연극형식으로 갖게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은 정치체제만 다른 것이 아니라 희곡형식도 그 이상으로 이질적이다.<sup>79)</sup>

남한의 경우, 열린 사회만큼이나 희곡이 다양하지만 어느 한 형태도 확고하게 정립시킨 것은 아니다. 특히 마당극이 1970-80년대에 풍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희곡형태로 정립되지 못했고, 뮤지컬은 오늘날 무대를 점유하다시피 하지만 그런 희곡을 제대로 쓰는 작가 한사람 없는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해방 50년의 희곡은 사실주의극 정립 노력과 탈사실주의운동이라는 두 가지가 상충 공존해 온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북한 희곡은 이와는 별개의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해방 50년 중 25년 동안은 사실주의 일변도였고 그후 25년 동안은 사실주의 희곡의 극복이 최대의 변수였다는 점이다. 역시 사회가 다변화, 다원화함에 따라 그것을 담아낼 희곡도 다양화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학 형식도 그 사회변화를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점에서 해방 50년의 희곡은 곧 해방 50년의 사회사 내지 정신사의 궤적 그 자체였다고 하겠다.

북한연극에 대한 강령적 문헌은 김정일의 논문인 “연극예술에 대하여”이다. 이 논문은 연극혁명의 필요성, 극문학론, 연극무대형상론으로 구분하여 연극예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sup>80)</sup>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연극무대형상 부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흐름식 입체무대 미술론이다.

흐름식 입체무대미술은 장면을 중단없이 전환시킴으로써 관객의 감정흐름을 단절없이 지속시키며,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81)</sup> 아울러 북한의 공연장들은 우리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무

79) 유민영, “해방 50년의 희곡,” 유종호 외, 「한국현대문학50년」(서울: 민음사, 1997), p. 227.

80)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 4. 20),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p. 103.

81) 이강렬, “북한연극 50년, 회고와 전망,” 「북한문화연구」, 제3집 (1995),

대의 깊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독창성은 무대장치나 공연에서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연극의 경우 남북은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공연장의 독특성과 흐름식 입체무대예술은 한국 연극의 독특성을 위해 서로 교류,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미술의 경우, 남한 미술은 일제식민지 치하에서는 일본을 통해 서구미술을 강제로 수용했고, 6·25 이후에는 대략 10년 주기로 신속하게 서구미술을 수용해 왔다.<sup>82)</sup> 1910년대부터 1940년대에 일본을 통해서 이식된 미술은 서구양식인 ‘리얼리즘’이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도입된 서구적인 미술양식은 이러한 한국의 전통미술과는 양식과 이념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sup>83)</sup> 또한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기에 도입된 ‘추상형식’은 리얼리즘 양식 및 이념과 거리가 먼, 특히 기하학적 경향의 것이었다. 이 시기 중엽에 도입된 ‘엥포르멜추상’(또는 추상표현주의)은 초기의 기하학적 추상과 대조적인 것으로 당시 한국 현대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반면 1970년대는 ‘미니멀 추상(minimal abstraction)의 영향속에서 정착기의 두 추상양식이 극복되고 리얼리즘 경향이 퇴조하였다. 70년대 후반 이후 ‘포스트 미니멀’의 영향가운데서 서술적 경향의 미술이 붐을 조성하였다. 이에 비해 80년대는 ‘변혁과 갈등’의 시대였으며 이에 따라 미술계는 이른바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첨예하게 진행되어 왔다.<sup>84)</sup>

p. 57; 흐름식 입체무대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은 성황당이다; 이춘길 외, 「김정일의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pp. 54-55; 현재원, “북한 혁명가극에 나타난 가요형식과 극적효과,” 「북한문화연구」, 제2집 (1994), pp. 192-193; 서연호, 이강렬, 「북한의 공연예술 I」(서울: 고려원, 1990), pp. 258-259

82) 이영철, “문화변동과 미술의 대응-창작과 비평의 비판적 소고-,” 「미술세계」(1992. 4), p. 37 ;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송수남은 동양화라는 명칭을 일제의 타율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한국화’라는 명칭의 정당성을 논하고 있다; 송수남, 「한국화의 길」(서울: 미진사, 1995), p. 31; 이구열, 「근대한국화의 흐름」(서울: 미진사, 1988), pp. 78-80.

83) 박영택, “90년대 미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 「미술세계」(1991. 12), p. 26.

84) 일제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미술의 주요경향에 대한 논의는 박영택, “90

반면 미술문화의 수용과정에서 서양미술의 무조건적 수용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즉 해방 이후 창의성 결여, 이념부재, 현실적인 참여의지 빈약에서 벗어나려고 한 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1950년대 중, 후반기에 앵포르멜과 액션페인팅으로 요약되는 추상미술운동에 자극받은 추상화물결이 그 하나이며, 일부이기는 하나 1980년 중반의 수묵화운동,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싹트기 시작한 새로운 채색화운동이 그것이다.<sup>85)</sup>

북한의 미술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주체사실주의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술은 당성과 노동계급성, 인민성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여기서 당성은 사회주의 미술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헌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식’ 유희기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실제 작품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로 혁명적 낙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실주의의 정향과 방법과 다른 미술사조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 이러한 북한미술이 보여주는 긍정적 측면은 이기주의적 사적 세계의 산물이거나 대중과 유리된 고급상품으로서의 미술이 아니라는 점이다.<sup>86)</sup> 아울러 현실에 사상미학적

---

년대 미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 「미술세계」(1991. 12), p. 26; 김복영, “80-90년대 한국미술의 다원화의 양상과 갈등구조,” 「대한민국 학술원 논문집」, 제34집 (1995), pp. 104-106; 오광수, “80년대 한국미술의 정황,” 한국미술평론가협회편,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서울: 미진사, 1993), pp. 133-136; 오광수, “한국미술의 현장”(서울: 조선일보사, 1988), pp. 60-61; 윤준근, “한국미술의 전환기인가,” 한국방송공사 TV심포지움 발표논문 (1988. 2), p. 1; 이영철, 문화변동과 미술의 대응,” 「미술세계」(1992. 4), p. 29; 서성록,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실제의 양상,” 한국미술평론가협회편, 「현대한국미술의 새로운 이해」(서울: 시공사, 1994), pp. 88-89; 서성록, 「한국의 현대미술」(서울: 시공사, 1994), pp. 358-400 참조.

- 85) 서성록 또한 서양미술의 자주적 수용을 위한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1950년대 모더니즘 작가들이 순수추상화 내지 기하학적 추상보다는 특정한 현실상황 속에서 민족정서, 자연주의적 풍경소재들과 결합한 색다른 미술, 즉 상징적이고 감각적인 화면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본다. 말하자면 서구의 냉랭하고 기계적인 추상형식과 구별되는 소재의 의미와 내용성을 갖는 회화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 서성록,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서울 : 미진사, 1993), p. 339.

근거를 두면서 주체적 시각에 의해 민족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조선화는 독특한 형식과 내용을 수립하여 대중 속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미술적 기량이 비교적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sup>87)</sup>

북한미술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념조형물 제작 기법, 쪽무늬 벽화 기법, 검은 옥돌에 수작업으로 초상화를 새기는 특이한 기법 등으로써 이들은 북한 미술가들이 창출해 낸 것이다.<sup>88)</sup> 이런 부분에서 남북이 협력한다면 외국 미술계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

86) 윤범모, “북한미술의 특징과 조선화의 세계,” 「북한연구」, 제4권 2호 (1993, 여름), pp. 64-65.

87) 정희섭, “북한미술의 이해를 위하여,” 「민족예술」 (1996.4), pp. 40-41.

88) “통일을 대비한 21세기 한국미술의 전망”; <http://art.joongang.co.kr/199912/art140.html>.

## IV.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문화예술의 갈등 양상<sup>89)</sup>

### 1. 문화예술의 이념과 제도의 상이성으로 인한 갈등

#### 가. 다양한 문화예술 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주체사실주의의 해체

앞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남한은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설정함으로써, 문화영역에서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비교적 약하게 작용하고 되도록 문화현상을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북한은 집단주의와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기초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토대 위에 수령과 노동당이 문화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를 선택하여 집행해 왔다. 여기에 강력한 정책기구를 필요로 한다. 남한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제도와 기구들이 북한에서는 중앙권력, 특히 1인 중앙집권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남한 주도의 통일 한국이 건설될 경우 북한의 문화예술의 핵심인 주체사실주의는 해체될 것이다. 특히 종자론은 통일한국에서 창조성에 기초한 다양한 문화예술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많은 거리감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서는 문화예술 작품의 형상에 있어 생명력과 가치를 나타내도록 해주는 종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종자는 주체와도 다르고 사상과도 다르다.<sup>90)</sup> 생활현상에 체현되어 있는 사상적 의미기

89) 본 장은 북한에서 문화예술 부문에 종사했던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초고가 완성된 후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검수를 받았음.

90) 사회과학출판사편,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p. 178; 김정일, “영화예술론”(1973. 4. 11),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10-123 참조.

데 그 생활현상 자체를 지배하며 모든 사상적 의미를 제약하는 가장 본질적이며 규정적인 것이 있다. 생활현상에 체현되어 있는 본질적이며 규정적인 사상적 내용은 그 존재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이자 기본핵이다. 바로 그 핵을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라고 한다.<sup>91)</sup> 따라서 작품의 핵이 되는 종자에 의하여 그 작품의 내용과 형식, 구조와 존재방식이 제약되며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사회의 발전을 추진시키는 작품의 생명력과 가치가 규정된다.<sup>92)</sup>

이러한 종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우선, 당정책의 요구와 맞게 선택해야 한다.<sup>93)</sup> 둘째로,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정치사상성과 예술적 의의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로, 문학작품의 종자가 새롭고 특색있는 것이 됨으로써 뜻깊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할 수 있다. 또한 인간과 그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고 특색있게 그려내는 문제도, 구성을 비반복적으로 새롭게 조직하는 문제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통일한국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이 창작될 것이다. 문학예술 작품 가운데는 정치현실을 풍자하거나 문제점을 폭로하는 작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문화예술 작품 창작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론, 특히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예술이어야 한다는 것, 북한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사상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 등은 폐기될 것이다.

물론 창작방법으로서 주체사실주의 중 어느 정도 민족성이나 대중성, 현대성 등의 차원에서 수용될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주체사실주의는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는다”는 특징이 있다.<sup>94)</sup> 이 명제

91) 위의 글, p. 179.

92) 이러한 종자의 기능은 ①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 기능, ②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과 창작열정의 고취 기능, ③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 보장 기능, ④ 창작가들로 하여금 속도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김정웅,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2), 문학예술작품창작」(평양 : 문예출판사, 1992), pp. 12-25.

93) 위의 책, pp. 28-35 참조.

94) 김정일, 「주체문학론」, 위의 책, pp. 108-115 ; 사회과학출판사편,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3」, 앞의 책, pp. 36-45 참조.

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을 의미한다. 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내용, 인간의 제일생명은 정치적 생명이며 사람의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 주체의 혁명관과 인생관,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세워나가는 내용을 비롯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고양시키고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데 있어 등장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95)</sup> 통일한국에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내용, 특히 혁명관과 같은 부분은 문화예술의 창작방향에서 배제될 것이다.

반면 문화예술의 민족적 형식은 자기 민족의 미감과 요구에 맞고 자기 민족이 좋아하는 형상 수단과 수법, 형상기교를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는 철저히 극복되어야 하며 민족적 형식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민족적 형식가운데서 낡고 진부한 것을 버리고 인민적인 것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키면서 새 시대와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여 나가는 것은 북한 노동당의 일관된 원칙적 입장이다.<sup>96)</sup> 전통의 현대화,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원칙은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원칙으로서 일부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체사실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표출될 경우 민족적 측면 또한 같은 범주로 취급되어 별다른 여과없이 사멸될 수도 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예술에 있어 수령형상화와 관련된 작품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에 있어 형상창조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수령의 형상 창조문제이다. 수령형상의 창조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

95)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류현호, “주체사실주의는 우리 시대 문학예술의 가장 좋은 창작방법,” 『조선예술』, 제1호 (1993), p. 56.

96) 이러한 입장에서 김정일은 민요도 고투가 나더라도 오랜동안 인민의 사랑속에 불리워졌다면 그것을 인민의 지향과 현대적 미감에 맞게 재창조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시조도 봉건유교교리에 대한 설교나 양반들의 신변잡사 또는 순수자연풍경을 노래하는 것을 척결하되, 김종서와 남이, 그리고 이순신의 시는 반침략애국주의사상과 감정이 강력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계승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궁중예술 또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알맹이를 찾아내어 문학예술을 민족적 바탕위에서 풍요하게 발전시키는데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김정일, 「주체문학론」, 앞의 책, pp. 86-89.

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여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문학예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수령의 혁명역사와 풍모를 형상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sup>97)</sup>

이러한 수령의 형상창조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은<sup>98)</sup> 무엇보다도 수령의 위대성을 높은 예술적 경지에서 그려내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급의 수령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위대한 사상이론가로, 위대한 정치가로, 위대한 전략가로 형상화되어야 한다.<sup>99)</sup> 또한 노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것과 함께 수령의 후계자를 잘 형상하여야 함을 강조한다.<sup>100)</sup> 특히 수령의 후계자를 형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심도있게 그리는 것이다. 여기서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최고 귀감이며 북한의 오늘과 미래에 있어 승리의 상징으로 나타난다.<sup>101)</sup>

이러한 수령형상 창조를 표출하는 문화예술 작품은 특정인에 대한 우상화와 이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주입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추구하는 정치이념과 민주주의적 문화예술관과 거리가 있으므로 조기에 폐지될 것이다.

#### 나. 국가 중심의 문예정책과 민간중심의 문예정책간의 충돌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 문화예술이 지향하는 주요 가치지향에 있어 이질성은 사회적 특성과 심미적 문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문학예술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차이와 관련하여

97) 김정일, 「주체문학론」, 앞의 책, p. 103.

98) 위의 책, pp. 110-114.

99) 이는 김정일에도 해당된다. 곧 김정일은 탁월한 사상이론가, 정치가, 군사전략가, 그리고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이므로 그 위대성을 잘 그려야 할 것이 요구된다 ; 김병훈, “주체의 면모를 확고히 갖춘 우리 식 문학,” 「조선문학」, 제2호 (1994), p. 45.

100) 김정일, 「주체문학론」, 앞의 책, p. 138.

101) 송학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무대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조선예술」, 제4호 (1997), p. 12.

그 이질적 측면을 보면, 첫째, 남한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반면, 북한은 획일화된 문화만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창작의 주체와 관련하여 남한에서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으나, 북한의 문화 예술 창작은 특정집단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국가가 문화 예술에 개입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도 문화관광부가 문화 예술활동에 관여하고,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지만, 북한에서는 정부와 당이 직접 문화 예술활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중심의 문예정책이 주류로 형성될 경우 아울러 자본주의에 기초한 문화예술 정책 속에 북한 문화예술과 예술인들이 던져질 때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문예정책에 있어 주목되는 것은 당의 영도와 문학사업문제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이 당의 영도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 명제이다. 당의 영도 하에서만 작가들이 노동계급의 문학을 건설하는데 있어 그 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다. 당의 영도를 떠나서는 작가들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창작활동을 할 수 없다.

반면 북한 당국은 당이 문학사업에 대한 지도를 포기하면 작가, 예술인들이 변질되고, 불만을 품고있던 자들, 이른바 서방의 부르주아 문학에 환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앞장에 나서서 ‘창작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당과 혁명에 도전하게 된다고 본다.<sup>102)</sup> 따라서 문학작품을 창조하는 작가와 이에 대해 정책적 및 형상적 지도를 수행하는 당의 관계에서 볼 때, 작가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당의 훌륭한 조언자로, 당의 문예 노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sup>103)</sup>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영화예술론」 또한 창작에 있어 ‘속도전’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으며<sup>104)</sup>, 창작지도체계에 있어 대안의 사업체계가 강조되고 있

102) 김정일, 「미술론」, 앞의 책, pp. 279-281 참조.

103)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298-299.

104) 김정일, “영화예술론”(1973. 4. 11),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다.<sup>105)</sup> 즉 지도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작에 대한 집체적 지도와 예술행정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예술단체들의 예술행정사업에서 낡은 틀을 없애고 우가 아래를 책임지고 도와주고 창작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게 하는 것”은 창작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의 중요한 요구로 강조된다.<sup>106)</sup>

이에 따라 영화배우에 있어 무엇보다도 혁명적 세계관이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배우는 자연주의와 형식주의를 비롯한 모든 불건전한 사상조류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를 반대하여 강력하게 싸울 수 있다. 나아가 형상창조의 전과정에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나갈 수 있다고 본다.<sup>107)</sup>

무용 부문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배우의 정치사상적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생활을 생동한 예술적 율동으로 진실하게 형상할 수

위하여 2」(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412-421 참조 ; “문학예술창작사업에서 속도전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문학예술건설의 기본전투형식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입니다. 문학예술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리는것은 혁명적작가, 예술인들의 본성과 혁명적문학예술창작사업의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창작원칙의 하나입니다” ; 김정일,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결론, 1971. 2. 15),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322.

105) 위의 책, p. 431 ; 현재 북한의 경제관리체계의 대표적인 유형인 대안의 사업체계는 ① 생산에 대한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체계, ② 공장당위원회를 최고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체계, ③ 자재공급과 후방공급을 중앙에서 책임지고 보장하는 체계로 요약될 수 있다.” ; 김일성, “새 환경에 맞게 공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할데 대하여,”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2)」(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 123.

106) 창작지도는 집체적 유일 심의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작총화에서는 전형의 일반화가 강조된다 ; 김정일, 「무용예술론」(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32-437 ; 또한 영화에 대한 당의 영도에 대한 최근의 글로는 김성호,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영화예술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담보,” 「조선영화」(1997. 6), p. 20 참조.

107) 김정일, “영화예술론”(1973. 4. 11),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305-306.

있다고 본다.<sup>108)</sup> 무엇보다도 무용배우가 정치사상적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령이 창시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다. 무용배우는 주체사상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하는 것과 함께 주체사상이 구현된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함이 요구된다.<sup>109)</sup>

음악에서도 사상성은 주체적인 음악예술의 본질적 속성이며 음악이 혁명에 강도높게 이바지하게 되는 근본요인이다.<sup>110)</sup> 사상성이 없으면 음악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한 높은 사상성에 고상한 예술성이 뒷받침될 때 명곡이라 규정된다. 이에 따라 명곡의 내용은<sup>111)</sup> 우선 “수령의 영광 찬란한 혁명역사와 혁명업적의 위대성, 영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힘있게 구가하고 수령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끝없는 충성심, 수령을 끝까지 따르고 모시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담아야” 함을 강조한다.<sup>112)</sup>

또한 음악작품은 당정책을 깊게 반영하고 그것에 철저히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중대하면서도 의의있는 문제를 적당한 시점에서 훌륭히 반영하여야 한다. 주로 음악작품에는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sup>113)</sup> 아울러 음악작품에서는 자주적인

108) 김정일, 「무용예술론」, 앞의 책, pp. 109-110.

109) 또한 무용배우는 춤형상에서 민족적 형상을 잘 살리기 위해 조선춤의 우수한 특징을 잘 알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야 함이 강조된다 ; 위의 책, p. 119.

110) 위의 책, pp. 33-34.

111) 위의 책, pp. 35-37.

112) 특히 수령에 대한 음악형상으로서 가요예술이 생활의 구체성과 다양성 그리고 풍부성을 주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보다 송가음악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그것은 수령의 혁명활동역사와 업적을 반영하면서 인민 대중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전체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충성의 노래」,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향도의 태양」,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아버이수령님 만풍년주셨네」, 「그이께서 다녀가신 일터랍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 김경해, “수령에 대한 가요음악형상에서 주체의 발전,” 「조선예술」, 제4호 (1997), pp. 13-14.

113) 김정일, 「음악예술론」(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북한은 김일성이 항일투쟁에서 창작했다는 「사향가」를 극찬하고 있다. 북한은 이 곡을 “조국광복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조국애의

인간의 영웅적 투쟁과 생활,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문예정책은 이러한 창작의 방향뿐만 아니라 실제 창작 활동, 공연활동에 관여한다. 노동당은 각 예술분야, 구체적으로 모든 작가, 예술인들에게 창작계획을 연, 분기, 월별 등으로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창작계획은 주제별 할당 비율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각 예술분야 및 작가들은 이 양적인 배당에 맞도록 연간, 분기간, 월간 창작 및 공연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해당 동맹단체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문화예술부의 기준을 받는다.<sup>114)</sup>

<표 1> 주제별 할당 비율

주 제	내 용	비 율
혁명전통	김일성 중심의 반일투쟁 업적	30%
한국전쟁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의 영웅성에 대한 찬양	30%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 건설과 발전에 관한 내용	20%
조국통일	통일에 대한 당위성	20%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 및 공연활동은 이 계획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각 동맹 지도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이루어진다.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작가들은 두 부류로 분류된다. 한 부류는 산업지구·공장·기업소 및 농촌으로 파견된 작가군(해방작가라고 칭함)이고, 다른 부류는 직장을 가진 작가군, 문예총, 각 출판기관, 당·행정기관 등에서 현직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다. 이들 두 부류의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과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에게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수고 기어이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적개심과 강의한 투쟁정신,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 락관주의를 심어준 노래로 평가"하고 있다 ; 리동철, “조국광복의 성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킨 불후의 고전적명작 - 불후의 고전적 명작 사항가에 대하여 -,” 「조선예술」, 제8호 (1997), p. 12.

114)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북한핸드북」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7), pp. 332-333.

통제를 위해 각 동맹 별로 ‘당생활총화회’를 소집한다.

아울러 작품 출판 및 공연에 대한 통제는 노동당의 직접 관할하에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출판과정에 대한 통제·감독은 문예총을 비롯한 해당 동맹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이 과정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작품의 회부과정, 작품의 검열과정, 작품의 출판 및 공연 과정 등이다. 특히 검열과정은 매우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검열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작품이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철저히 입각하고 있는가, 국가 및 군사비밀을 노출시킨 부분이 없는가, 사회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묘사된 부분이 없는가, 자본주의적 사상 요소가 나타난 부분은 없는가, 대중의 공산주의 교양에 도움이 되는가, 전투성, 혁명성, 계급성이 충분히 발양되었는가, 예술적으로 지나치게 졸렬하지 않는가, 단어 및 어휘 표현이 정확한가 등이다. 검열이 통과된 뒤 검열인을 받아야 비로소 출판할 수 있다. 공연 역시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무대에 올린다.

통일 한국에서 창작·출판·공연에 대한 국가 통제 중심의 문예정책은 창작자의 자율성에 기초한 다양성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당의 영도의 중요성, 속도전, 창작지도체계로서 대안의 사업체계, 문화예술인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세계관, 문화예술 작품이 지녀야 할 사상성, 수령 중심의 문화예술, 문화예술 작품의 기능으로서 혁명전통·계급·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기능 등은 통일한국의 문화예술 창작에서 그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다. 문예단체의 통폐합 또는 재구성

북한은 당·국가 체제로서 사회 각 분야는 당의 지도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문화 예술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당적 지도’ 아래 놓여있다.

북한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에는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내각의 문화예술성 및 문화예술총동맹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노동당의 선전선동부에서는 정책결정을 하며 내각의 문화예술성은 문예행

정, 문예총은 예술 창조작업을 담당한다.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행정통제의 힘을 가진 초권력 기관이므로 북한의 행정기관의 구조와 기능은 당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행정 조직도 선전선동부에서 당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모든 문화예술 정책을 입안하고 이에 따라 행정 지시 사항을 결정하는 조직의 중심체이다.

선전선동부는 당의 정책 등을 인민대중에게 선전선동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래서 선전선동부는 언론, 출판, 문화, 예술, 방송, 보도 부문의 모든 사업을 통제하고 지도한다. 따라서 신문, 방송, 출판물 등은 최종적으로 선전선동부의 검열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검열 등의 지도 감독 이외에도 각종 학습회, 토론회, 강연회, 전람회 등을 주관하며 선전선동을 위한 신문과 잡지의 발간, 그리고 군중집회 등도 주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당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던 때부터 현재까지 가장 중점을 두고 육성하던 기관이 선전선동부이며 따라서 모든 문화예술인들은 당의 목소리, 즉 김정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의무로 되어 있기도 하다.

정부기관으로서 북한의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부서는 내각의 문화예술성이다. 문화예술성은 당이 문화에 대한 기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면 그 정책의 집행과정을 감독한다. 이 문화예술성은 문학예술총동맹을 통해 대부분 그 사업을 수행하며 예술인들을 조직 통제하고 있다. 문학예술총동맹은 명목상으로는 사회단체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산하 단체의 구실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성은 이러한 문학예술총동맹을 지도 감독하여 문화예술이 창작활동을 지휘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총동맹에 조직화되어 있어 창작활동을 통제받을 뿐만 아니라 각 동맹의 지도부 감독을 받고 있는데, 문화예술부는 총동맹을 통해 작가들에게 작품의 창작방향과 창작량을 할당하고, 총동맹은 문화예술성의 방침에 따라 연간, 분기별, 월간 등의 작품 창작계획과 공연계획 등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성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고 이 계획서에 의거하여 엄격히 통제된 예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을 망라하여 결성된 통일

적인 조직이자 사회단체이다. 문예총은 모든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을 실시하며, 북한의 김정일이나 당의 정책을 예술문화화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예술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문예총의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당의 영도 밑에 모든 작가, 예술인들을 충실한 문예전사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의 수행, 둘째, 당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창작사업을 진행하도록 협의, 조직, 집체적 지도를 보장, 셋째, 인민의 생활감정과 맞는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하며 문학예술을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 넷째, 반당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의 침투와 발현을 반대하고 투쟁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군중속에서 문학예술의 새세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 다섯째, 세계의 모든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작가, 예술인들과의 연대성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문예총은 남한의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이나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그 조직 구성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예총이나 문예총이 예술단체 내지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결성되며 가입 탈퇴가 자유롭고 기능상으로도 예술인의 권익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조직된 이익단체적 성격의 민간단체임에 비해, 북한의 문예총은 사실상 노동당의 정책 집행 기관 내지 작가, 예술인들을 지도, 통제, 감독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서, 이를 통해 국가 배급과 작품 발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입이 의무화되고 맹원들은 공무원적 신분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sup>115)</sup>

자유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당에 의한 문예단체들에 대한 일상화된 통제는 북한의 예술창작 활동의 많은 부분을 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적 지도가 사라질 경우, 당의 통제하에 있던 문예단체들과 그 속에서 종사하던 문화예술인들은 통일한국에서 자유롭게 단체를 구성하거나, 한국의 단체로 통합될 수도 있지만, 종전의 단체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단체내 노동당 소속의 핵심 요원들은 자신의 지위와 소속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115) 이외의 북한 문화예술 단체의 계통과 위상에 관해서는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1995), pp. 28-50 참조.

한국의 단체에 통합되어 활동을 하려고 해도 남한의 문화예술인들과의 정서적 교감이 부족하고, 각종 문화예술 작품을 양산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서 보듯이, 북한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통일정부가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성과 문화예술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집중될 경우, 시간이 경과되면서 큰 무리 없이 남한 체제에 적응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계층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달리 문화예술인들이 남한의 문화예술정책에 적응하고 그동안 목말랐던 예술창작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일반주민들에 반해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은 적응속도, 경쟁력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문학예술에 관한 한 기초교육, 일반교육, 중등교육과정을 두루 걸친 사람들이 북한의 예술인들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그들의 사상적 예술의 동화가 환경의 지배라고 볼 때 또 다른 환경에서의 활동은 얼마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작가들의 경우는 경직된 사상의 해결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나 사상과 예술을 동시에 주장해 온 북한의 작가들이라고 볼 때 해결과정이 그다지 어렵다고 볼 수 없다.”

## 라. 문학예술 교육체계의 변동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교육제도의 개편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추진하였다. 먼저 일본 제국주의 교육제도를 탈피하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소련식 사회주의 교육제도는 북한 교육의 새로운 모형으로서 인식되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6·25전쟁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교육재건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사회를 복구 건설하는 일환으로서 학제를 개편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 교육은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정치사상 교양의 강화, 의무노동제도의 채택, 전반적

무상의무교육의 실시 등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지난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만큼 제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의무교육 기간도 보통교육 단계뿐만 아니라 취학전 교육인 유치원 1년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5세부터 15세까지를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미 교육의 기회를 놓친 미학습자에게 까지도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성인교육 기관을 두고 있다.

교육비의 측면에서 북한은 유치원의 높은 반부터 고등중학교까지는 전액 무상교육이며 비록 북한 체제에 의해 신분상 차별을 크게 받아왔지만 대학교육에서도 무료교육을 받았다. 특히 북한의 초, 중, 고 학생들은 과외교육이라는 단어나 과외교육비라는 단어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본인들이 직접 느끼는 교육비 부담은 거의 없었다.<sup>116)</sup> 물론 경제형편이 극도로 악화된 최근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무료교육과 의무교육의 틀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한편 남한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과외교육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의 과도한 과외비용지출, 대학진학 후 과도한 등록금 등의 ‘교육열병’을 앓아왔다.

통일 시 남한의 현 교육제도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에 북한지역 주민들은 통일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북한지역의 학령인구는 그만큼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지역 학령아동의 진학률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정규교육이외에 사교육에서도 남한지역 학령아동들에 비해 북한지역 학령아동들이 기회가 적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특히 취학 전 아동에게 중요한 타격이 될 수 있다.<sup>117)</sup> 이러한 남북한 지역 학령아동간 교육기회의 불균형은 사회경제생활에서의 경쟁력 차이로 연결되어 남북한 지역 주민간 소득격차, 생활수준의 차이 등을 발생시키는 등 실질적인 사회통합에 주요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116) 고영환, 앞의 글, p. 100.

117) 이삼석외, 「남북한 인구변동과 통일시 사회·인구학적 정책과제」(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p. 113.

일반 교육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교육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예술교육은 북한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반 교육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학원 같은 사설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실력이 바탕이 되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예술, 체육, 외국어 분야의 특수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11년제의 음악·무용·조형예술, 4년제의 체육, 7년제의 외국어 분야에 특수학교를 운영해 왔다. 또한 각 도에 예술대학은 지방예술인들의 양성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평양음악대학, 평양미술대학, 평양연극영화대학, 평양교예학교 등이 있어 전문예술인의 양성에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육체계들은 대부분 서양의 문화예술보다는 주체의 문예 이론을 지향하고, 아울러 정치사상교양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기 때문에, 남한의 예술종합학교와는 차이가 많이 드러난다. 아울러 남한의 경우 사교육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키워나가거나 조기에 외국에 유학하여 예술 창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예술고등학교부터 본격적인 예술교육이 시작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체계가 통일한국에서 지속될 경우 11년제 음악·무용·조형예술 학교들의 존폐문제, 남한과의 통합 문제 등이 거론되게 될 것이며, 아울러 통합 후 서양의 문예사조 등에 상대적으로 약하고, 외국어에 약한 북한 지역의 예술 관련 학교 학생들이나 교수, 교사들의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적응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통일 시 문화예술 교육분야에서 남한의 현 교육제도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에 북한지역 주민들은 통일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북한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원하는 인구는 그만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부분의 정규 교육 이외에 사교육에서도 남한지역 학령이동들에 비해 북한지역 학령이동들이 기회가 적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특히 취학 전 아동에게 중요한 타격이 될 수 있다.

### 마. 문학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

북한에서는 예술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각종 상훈제도를 마련해 두고, 예술인들을 등급에 따라 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사회적 대우를 받고 살고 있다. 국가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해당자에게 부와 명예를 충족시키고 있다.

북한에서 수여되는 상훈의 대상자는 “수령의 사상가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튼튼히 보위하며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세운 일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각 직장·사회단체에서 추천 후 ‘국가수훈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내각의 비준 후 수훈이 결정된다.

이러한 상훈제도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가, 예술인들을 물질적으로 자극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특히 연극 및 예술인들에게는 국기 훈장을 비롯하여 노력훈장, 메달 등이 주어지는데, 단체 창립 20돌, 30돌에는 빠짐없이 국기 훈장이나 천리마, 붉은기 칭호 등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 배우, 인민상 등의 각종 칭호도 부여된다. 여기에서 인민상은 주로 작품에 수여되며, 그 작품 창조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인민상 계관인이라는 칭호와 메달이 수여된다. 또한 주로 창작가에게 부여되는 인민배우 및 공훈배우 칭호를 받은 사람은 급수에 따라서 15-25%의 가산금을 받게 된다.

북한은 배우들에게 급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전문분야 대학 전문부 졸업자들은 8급, 학부 졸업자는 6급을 수여하며, 전문분야가 아닌 일반 대학 학부를 졸업한 자도 8급을 주지만, 승급은 상대적으로 빠르다. 일반 서클 단체 출신은 무급부터 시작한다. 급수는 해당단체에 조직되어 있는 급수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내각의 문화예술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눈에 띄이면 급수 여하를 막론하고 인민배우, 공훈배우가 될 수 있으나 원칙은 1-2급 이상이어야 한다.<sup>118)</sup>

남한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로부터 받는 상훈보다는

여러 단체에서 개최하는 문학예술 작품 대회에 출품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됨으로서 작가나 예술인의 지위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 정도의 상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다. 결국 출품되는 작품의 전시회 등을 통해 자신의 예술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작품에 당정책을 반영한다거나 특정한 인물의 명령 또는 지시를 따르지도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북측의 문화예술인들은 대거 실직상태에 놓여 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

반면 북한지역 예술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예술적 기량이나 그에 따르는 정서 등을 밑천으로 경제활동이나 서비스업체 등에서 활동함으로써 국가적 지원을 받던 시절의 대체보상을 받거나 보다 적극적인 예술활동을 벌임으로서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자고 하는 경향도 나타날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은 결국 남한의 현실을 그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처음에는 혼돈스럽겠지만 그 중에는 남한의 현실에 재빨리 적응하는 성공 케이스도 생길 것이고 점차적으로 적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2. 문학예술의 외현적 측면의 갈등

### 가. 문학예술의 부문별 경쟁력 제고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북한에 비해 한국은 문화예술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준이 북한보다 20년 내지 25년 정도 월등히 앞선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 문화예술의 수준 차이가 심화됨에 따라 북한 출신 예술가들은 변화된 사회구조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화예술부문에서 중요한 장르로 취급했던 '수령'이나 체제 우월성, 이상화 관련 문화예술작품들은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북한 영화 중 기록영화는 대부분이 왜

118)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1995), pp. 64-67 참조.

극된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졌거나, 수령이나 가계 이상화와 직접적인 관련을 지니기 때문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서 다큐멘터리 기록물을 지칭하는 북한의 기록영화는 현실에 실재하는 모든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사실성이며, 바로 이 점에서 사실을 가공하는 극영화와 구별된다. 기록영화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주제는 ①김일성·김정일 행사와 행적의 과장 및 미화, ②변모·발전했다는 북한사회의 모습, 도시·농촌·공장 등의 모습과 생산광경, ③자연·지리·사적 등의 선전 및 소개, ④전쟁기록, ⑤중요 행사 등이다. 이러한 주제 중에서 자료로서 활용도가 있는 부분은 자연·지리·사적 등을 다룬 기록영화이다. 이러한 영화들은 통일 한국에서도 우리 나라의 자연, 인문지리, 사적 등을 소개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김일성·김정일 행사와 행적의 과장 및 미화한 영화들은 그 활용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예술영화의 경우는 주로 우리의 60년대 정서를 간직하고 있고 비교적 이념적 색채가 약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 사회에서 남한의 블록버스터 등의 최신 영화가 북한 지역에 밀려들 경우 북한의 예술영화는 경쟁력을 남북 지역 모두에서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수령이나 체제우월성, 이상화 관련 문화예술작품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폐기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며, 잔존한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물정도로 찾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과학영화들 중 일부와 이념적인 색채가 없는 아동영화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예술적 경쟁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각 산업분야별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각 분야의 선진적인 경험, 의학기술 상식 등의 보급을 위해 과학영화를 제작한다. 과학영화는 ‘조선과학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다.<sup>119)</sup> 과학영화는 대상과 목적

119) 최척호, 위의 책, pp. 36-40; 최척호, 「북한영화사」(서울: 집문당, 2000), p. 184;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앞의 책, p. 172 참조; 통일교

에 따라 대중과학영화, 교육교재영화, 연구용 영화로 분류된다. 대중과학 영화는 일반 기초과학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대중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교재영화는 관련부문 종사자와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전문 과학 기술적 문제를 보급·일반화하기 위해, 연구용 영화는 과학탐구를 보조하는 자료로 제작한다.

최근 작품으로는 「강냉이밭 흙갈이」, 「가득누에 보호치기」, 「무병장수」, 새로운 만능분쇄기, 「질 좋은 비날론」, 「건설에서의 자재절약」, 「벼농사의 종합적 기계화」, 「강냉이 가공에서 새로운 방법」, 「접조개 가공」, 「산소와 열」, 「주문제에 의한 상품공급」, 「두부 순물로 만든 젓산 음료」, 「겨울철 메탄가스 생산」, 「산탄경화기술」, 「밀폐식 벼종합탈곡기」, 「태권도와 건강」, 「플라즈마에 의한 보이라 불지피기」, 「해충을 죽이는 농작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통일한국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아동영화는 대부분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우화로 일정한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①욕심부리지 않기, ②강한 적을 상대로 해서 지혜로 이기기(용감과 지혜), ③교만하지 않기(겸손), ④몽친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보여주기(단결심) 등 보편적 주제를 다루는 영화가 많다.

물론 북한의 아동영화의 목적은 단순한 아동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교양하는 수단으로써 집단주의, 계급의식,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등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북한의 아동영화 중 만화영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남북이 합작할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은 1999년 춘천 국제 애니타운 페스티벌에서는 「호동왕자와 락랑공주」, 「토끼전」, 「령리한 너구리」,<sup>120)</sup> 「소년장수」 등이 상

육원, 앞의 책, p. 13.

120) 조희문, “영상시대와 한국영화,” 「신문연구」, 통권 제58호 (1994, 겨울호), p. 77; 영리한 너구리는 1992년 일본 히로시마 국제 애니매이션대회 출품작인데 당시 내용이 지나치게 교육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는 하였으나 제작상 수정사항은 찾지 못할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영되어 북한 만화의 수준을 소개했다.<sup>121)</sup> 이러한 영화들은 남북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122)</sup>

## 나. 우월적 냉소주의와 상업주의적 대중문화

남북한은 동질적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지만, 분단으로 인해 상이한 이데올로기가 전반적인 사회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로 배타적이고 이분법적 논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는 북한주민들의 가치관이나 행동규범에 있어 혁명성과 과격한 집단주의를 강화하여 왔다. 이에 반해 남한주민들은 개인주의, 실용주의 지향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문화가 남한의 개방적인 문화와는 전혀 이질적인 체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공산사회의 경우보다 전체주의적 요소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특히 북한과 같은 현존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사회변동이 ‘위로부터’ 그리고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문화의 성격은 그 정치경제적 특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상대적으로 ‘주체사상’이 표방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sup>123)</sup> 이러한 속성 때문에 북한의 문화는 대체로 당규약이나 김정일의 교시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외형적으로는 인민들의 실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내재적으로는 북한의 전주민을 사회주의적으로

121) 최척호, 「북한예술영화」(서울 : 신원문화사, 1989), pp. 51-453 최척호, 「북한영화사」(서울: 집문당, 2000), p. 184;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북한의 영화산업 현황과 영화진흥정책 연구」(1997), p. 172 참조.

122) 유희톤의 남한 애니메이션과 파스텔톤의 북한 애니메이션을 한민족의 전통적인 미적 정서와 결합하여 독창적인 애니메이션을 개발할 경우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123) 오기성, 「문화의 구조분석에 의한 남북한 문화통합 연구」(서울대학교 원 박사학위논문, 1998), p. 205.

교양시켜 새로운 당과 지도자에게 충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서 나타나듯이, 서구의 다양한 문예사조와 기법에 익숙한 남한 예술인들은 통일한국에서 북한 예술인들을 열등하게 취급하려 할 것이다. 창작에서든 기능에서든 남측 예술인들은 ‘제깃게 뭇’하는 식의 냉소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지금 현재 남한 사회에서 활동하려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실제 겪는 일들이다. 또한 남한의 문화예술에 맞게 스스로 노력해야 하지만, 북한 예술인들은 열등감이나 남한 동료예술인들의 냉소적 태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지니게 됨으로써 양측 예술인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북한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정책을 견지해 왔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북한은 남한 예술에 대해 양키식 문화라고 비방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보편적인 예술관과는 거리가 있는 폐쇄적인 예술관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이 되는 경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든 남한예술에 대해 이미 형성된 자신들의 관점으로 보려 할 것이고, 이런 일은 양쪽 예술인들의 감정적 대립까지 가져올 수 있다. 또 북한 문화예술에서 가장 강조되는 측면은 사람들을 혁명투쟁으로 이끌고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과 절대적인 복종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예술인들 중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밀려나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sup>124)</sup>

현재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대중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성문제, 대중음악, 영화 등과 같은 대중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낀다.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혐오감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남한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부정 부패와 썩고 병든 사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현혈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돕는 사람도 많아서 감탄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대중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단정하기도 한다.

124) 장해성, 앞의 글, pp. 114-115.

대중문화로 인한 갈등은 상이한 체제 속성과 그 속에서 양산된 문화예술 작품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남한에서는 미국과 서구의 문화, 일본의 문화 등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세계적 문화를 섭취하고 동화하며 살아왔다. 통일 이후 이러한 것들은 문화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최근 X세대, N세대로 표현되는 신세대의 춤문화 같은 것은 그들이 마치 타행성에서 온 외계인 같은 인상을 북한주민들에게 줄 수 있으며, 사대주의와 서양풍속 등으로 인해 저질문화가 판치는 세상으로 남한이 보여질 수 있다.<sup>125)</sup>

그러나 다음의 탈북자의 증언과 같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문화예술에 익숙해 질 경우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이 갖는 거부반응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남한의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을 보면 너무나 남녀의 사랑에 집착해 있고 상품화되어 있는 듯 합니다. 시청율이나 이익을 따지다 보니 심오함이나 깊은 매력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혐오감은 결국 부적응자들이 품게 되는 감정일 것입니다. 통일초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자본주의 상품화된 문화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많겠지만 결국은 남한사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질 것도 사실입니다.”

#### 다. 문화예술 관련 전문 용어에서의 이질화

기본적인 수준에서 남북한의 언어관의 차이는 크게 다원주의의 사고와 일원적 사고의 차이 내지는 이성관에 바탕을 둔 서구적 사고와 혁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적 사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 변화와 관련하여 남한에서는 언어의 자연스런 변화를 원칙으로 하면서 언어와 사상을 하나로 보는 언어사상일체관의 관점에서 서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어도구관의 입장에 있으나, 언어가 사람

125) 고영환, 앞의 글, pp. 103-104.

들의 목적적 작용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변화되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사상, 의식을 개조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언어사상형성관의 관점에서 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민간단체 주도하에 언어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노동당 주관하에서 언어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민족어의 발전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민족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개인우상화를 위한 수식어로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영장이시며” “위대한 전략가로서 특출한 평도적 풍모를 지니고 계신 경애하는 수령”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빛나는 향도의 별,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등 최고의 존칭수식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남북한 주민간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양자간의 의사소통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화된 언어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며, 서로 다르게 발음하거나 글자가 다른 명사가 2천4백 여 개에 이른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문법용어, 어휘, 맞춤법이 다르고 발음, 억양, 리듬의 음성학적인 차이가 있다.

어휘분야의 차이는 특히 심다. 남한은 국어순화운동의 결과 바꿈말을 제정하였고, 북한은 어휘정리사업을 통해 새로이 다듬은 말이 5만 단어에 이르렀다. 이외에 남한에서는 산업화, 개방화와 함께 수많은 외래어가 유입되었고, 북한에서는 어휘에 체제이념이 내포되어 의미가 왜곡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언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통일 이후 발생할 문제는 지금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언어생활에서 위축감을 느끼고 자신이 없어 하는 것은 외래어의 사용이다.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외래어를 알아듣지 못해 당황했던 일이라든지, 적절한 우리말이 없어 외래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다. 예컨대 일상적인 언어에서도 수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랐다가 들어가 보고 상점이라는 것

을 알게 된다든지, 북한이탈주민들의 말투를 이곳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웃음거리가 되어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다. 식당문화, 특히 레스토랑의 양식에 익숙하지 않아 곤혹스럽기도 한다.

또한 순수한 우리말의 사용을 언어정책의 기조로 삼아온 북한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한자어의 사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남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학술적인 분야에서는 한자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 한자에 익숙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sup>126)</sup> 이러한 상황에서 컴퓨터 관련 용어나 전자제품, 자동차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문화예술 부문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의 경우,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같은 외래어를 쓰더라도 다르게 발음하거나, 한자어를 한글로 풀어쓰는 경우가 있고,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에서 사용되는 각종 전문적인 지위에 대한 명칭의 차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서로간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예컨대 음악의 경우 남북의 용어차이를 보면, 가름소리표(잇단음표), 높이표(음자리표), 대보표(큰보표), 리가(붙임줄), 소리표(음표), 웅근소리표(온음표), 변음표(변화표), 조식(조), 대조(장조), 소조(단조), 연장부(페르마타), 마무리(종지), 대화음(장화음), 소화음(단화음), 돌이(옥타브), 주성(화성, 단성), 복성(대위, 다성), 소리맞추기(조율), 남성고음(테너), 남성중음(바리톤), 남성저음(베이스), 여성고음(소프라노), 여성중음(메조소프라노), 여성저음(엘토), 런곡(모음곡), 런결곡형식(다악장형식), 누르개(건반), 사설노래(레시타티보), 달림곡(푸가), 민족음악(전통음악, 국악), 민족악기(전통악기, 국악기), 풍년가장단(굿거리장단), 옹헤야장단 또는 안땅장단(단모리장단), 양산도장단(세마치장단), 긴모리장단(진양조장단)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음악용어는 한자어를 그대로 쓰거나 원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대부분인데 비해 북한의 음악용어는 우리말로 풀어쓰는 것이나 노래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sup>127)</sup>

126) 이장호외,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 방안 연구」(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pp. 33-34.

## 라. 외래문화 거부와 자문화 미화(美化) 및 옹호

통일한국에서 접하게되는 문화예술은 대다수 북한주민들에게는 남한의 시장경제적인 자본주의에 기초한 문화예술이 결코 긍정적인 모습으로 부각되기보다는 ‘변태적이며 서양화된 비극’으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이는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복고주의적인 사회심리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대부분 북한의 현재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도 “제도는 본래 좋은데” 라는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북한은 사상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아주 좋으나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sup>127)</sup>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간 개조 사업에 의하여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주의 가치관이 오랜동안 형성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행동과 생활에서는 집단주의 가치관이 충성, 단결심, 공동체 의식, 헌신과 봉사의 정신 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sup>128)</sup> 북한에서는 궁극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충성과 복종으로 귀결되기는 하지만, 집단주의 가치관은 국가와 사회, 집단과 조직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강하다. 이러한 의식과 태도가 북한 사회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 가치관의 영향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 남한에서의 개인주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개인주의 가치관의 부정적인 현상으로서 타인에 대한 무시, 예의범절의 등한시, 도덕적인 퇴폐 성향을 지적하고 있다. 즉 남한 사람들은 타인과 이웃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고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멸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기도

127) KBS 아름다운 통일; [http://tongil.kbs.co.kr/knowledge/know\\_summary\\_view](http://tongil.kbs.co.kr/knowledge/know_summary_view)

128) 오기성, 「남북한문화통합론」, 앞의 책, p. 283.

129) 최운실 외, 앞의 책, pp. 117-118.

한다. 예컨대 한 북한이탈주민이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편견 내지는 비꼬는 사람도 있어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볼 때, 보다 발전된 문화예술 산업과 다양한 서양 문화예술 사조에 익숙한 남한의 문화예술인들과 이러한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주체의 문예이론을 습득해온 북한의 문화예술인들간의 갈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문화예술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개인의 소유욕에 대하여 북한 문화예술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즉 남한은 “인정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냉혹한 점이 있다. 남한 사람들은 딱딱하고 여유가 없으며, 모두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남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한다.” 반면에 “북한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소박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정신, 인정, 인간적인 면이 많다”라고 평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간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남한 사람들은 포용력이 적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서 보듯이, 통일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에 기초한 다원주의 문화예술 창작에 종사해 왔고, 비교적 낮은 것, 외국인 등에 대해 배타적인 속성을 지닌 남한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배타적 속성이 북한의 문화예술인들과의 관계에서 표출될 경우 북한예술인들의 소외감이나 열등감이 증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3. 의식구조 및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

#### 가. 문화예술인의 의존심과 독립적 자아의 미성숙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이웃하여 살게 될 때 겪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의존구조의 붕괴에 따른 북한사람들의 열등감의 노정과 새로운 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생겨날 심리적 혼돈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의존심리를 극복하고 자율성을 배우게 되며 열등감을 이기고 당당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야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sup>130)</sup>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의존심(dependence)을 극복하여야 독립적 자아(indipendent self)가 형성될 수 있으며, 독립적 자아가 형성되어야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관계로서의 대등한 민주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된다. 민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사람들이 이런 심리적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사회주의 체제는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국가소유를 지배적인 형태로 만들었다. 시장은 계획으로 대치되었고, 기업은 중앙집권화된 체제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경제행위에서 자주성과 시민권차원의 자유가 결여되었으며, 사회구조 역시 중앙집권화되었고, 위계적인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부문에서 행정-명령 체계와 정치적인 요소를 통한 과도한 억압은 사회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무력감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고,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성은 사회주의에 특유한 문화예술인의 인성형태를 잉태했다.<sup>131)</sup>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존형’(state-dependent)이라는 점으로 귀결된다. 이는 시장체제의 노동자들과 중요한 차이들을 내포하고 있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구 체제의 해체와 신 질서의 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체제의 형성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을 야기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과정에서 국가의존적 특성에서 수혜를 입던 층들의 반발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국가의존체제와 관료적 분배체제는 개인들의 위험을 극소화시키며, 직업의 안정성과 생산성에 관계없이 균등한 임금정책을 보장해 준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육체노동자와 중화학공업부문 노동자들은 사무직이나 서비스 부문의 노동자 보다 유리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비숙련 노동자들과 군산복합체의 숙련노동자, 그리고 집단농장의 농민 등은 시장체제에로의 개혁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수령의 절대권력하에 구축된 전체주의적 당관료제도와 이에 기초한 문

130) 이화수, 앞의 책, p. 298.

131) 조한범,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러시아 사회변화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66.

화예술 관련 제도는 경직된 권위주의의 표본이다. 철저한 하향식 명령체제이기 때문에 하위의 사람은 상위의 사람에게 절대복종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권위주의는 의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권위주의구조와 의존구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sup>132)</sup>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은 당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하에서 명령대로만 모든 창작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고, 시키는 대로 주어진 역할만 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다. 따라서 결정능력, 자신감, 자율성 등은 취약하거나 개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규제들은 북한 문화예술인들의 의식 속에서 창의성과 자주성, 그리고 주인다운 태도를 없애버렸으며 북한의 문화예술인 전체를 사고하지 않는 집단으로 만들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은 아이디어를 새로 내놓고 그것을 집행하려 하지 않았으며 체제가 요구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실지체험으로 느꼈다. 또한 주체성을 잃고 자주적 의식이 없어졌으며 자기가 맡은 일은 무조건 자신이 책임지고 한다는 주인다운 태도를 없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며 부단한 경쟁을 통하여 자아를 개발하여 온 자주성이 강한 남한 문화예술인들과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기계적으로 순응하여 온 수동성이 강한 북한 문화예술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sup>133)</sup>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볼 때 통일한국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북한 지역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예술인으로 남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기가 힘들어 질 것이다.

## 나. 문화적 대응능력 상실과 자기 회의

통일과정을 통해 남북한 문화예술인들은 상대방 문화의 실상, 이질성과 동질성, 장단점을 보다 정확히 접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접촉 경험의 부족

132) 이화수, 앞의 책, p. 296.

133) 고영환, 앞의 글, 「백천통일논총」, 통권2호 (1998), pp. 99-100.

으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 및 편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로 이질화된 문화예술의 하위 영역에서도 서로가 협력할 경우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서로의 편견이 확인되고 분단 상태에서의 막연한 이질감이 공동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 구체적인 갈등 및 적대감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한의 자율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북한의 획일화되고 이념성이 짙은 문화를 접함으로써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폐쇄적 사회에서 외부문화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북한 문화예술인들은 남한의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문화예술을 새로이 접함으로써 일종의 문화충격을 겪게 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통일국가의 사회 체제가 세계적 추세나 남북한 변화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에 기반한 다원주의적 민주체제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이 자본주의적 경쟁이나 개방적 성문화에 기초한 문화예술 등과의 접촉을 통해 가치관의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집합적 정체성은 물론, 개인적인 자기 정체성까지도 동요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은 그들에게 생소한 문화예술 관련 법체계와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생활 세계와 가치관, 행동패턴을 파격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입장에서 서게 됨으로써 ‘기능적 문맹’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sup>134)</sup> 더욱이 남한이 우세한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배적 위치에서 통일과정을 주도할 경우 남한의 문화예술인들이 일방적인 우월 의식을 가짐으로써 북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입히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문화 통합에 역행하는 저항 문화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의 반응은 문화통합형보다는 문화동화형이나 문화분리형 또는 문화주변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sup>135)</sup> 문화

134)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건설」, 민족통일연구원 제14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1994. 11), pp. 127-128.

135) J. W. Berry,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 a

동화형(assimilation)은 기존의 북한의 문화예술과 새로운 남한의 문화예술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새로운 남한의 문화예술을 재검토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수용하려고 보다는, 스스로 남한 문화예술의 일부가 되는 식으로 적응한다. 즉, 자기가 과거에 지녔던 것은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환경에 동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외형적으로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람직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 속하는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은 무조건 남한의 문화예술이 좋다고 여기면서 기존의 북한 문화예술을 무조건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화예술인들은 갑작스런 문화 변동으로 인해 정체성 혼돈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문화주변형에 속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남북 문화예술권 어느 쪽에도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적 위치에서만 맴돌게 된다. 즉 남북의 어느 문화예술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기존의 문화가치에 향수를 느끼거나 현재의 문화가치를 부정하면서 허무주의 및 쾌락에 빠지기 쉽다. 반면 문화분리형에 속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다른 문화예술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며, 남한 문화예술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다.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위축되어 있다.

#### 다. 집단주의 차원의 문화향수와 여가생활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있어 하루일과를 포함한 일상생활은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 활동과 생활의 공간은 대부분 김정일체제 유지를 위해 할애되기 때문이다. 직장생활도 순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절반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사상생활, 노력동원으로 보내진다.

북한주민들의 대부분 하루 일과는 직장에서 시작하고 마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구체적인 작업교대 시간대로 나눠 보면 1직(06:00~

---

conceptual overview (Berwyn, PA : Swets North America, 1998) ; 이장호·김용범외,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pp. 23-24.

14:00), 2직(14:00~22:00), 3직(22:00~06:00)으로 순환노동을 하고 1주 단위로 근무시간제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평균적으로 북한주민들이 기상하는 시간은 오전 6시며, 기본일과는 오전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난다. 또 기본일과가 끝나면 작업장별, 직장별 1시간씩 작업총화를 실시하고 이것이 끝나면 모든 사람이 1~2시간씩 사상교육을 위한 학습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로써 모든 하루 일과가 끝나려면 오후 8시가 훨씬 지나서다.

뿐만 아니라 주중, 월별로도 개인 시간을 가지기란 무척이나 힘들다. 주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월~목요일에는 “8시간노동시간은 침범할 수 없다”는 명분하에 퇴근시간 이후 수시로 사상학습, 소속단체회의 행사 등을 ‘조직’(실시)하기 때문에 저녁시간대의 개인시간을 갖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금요일에는 금요노력동원에, 토요일에는 종일 생활총화(자아비판)와 사상학습 강연회, 영화문헌학습(김부자 찬양 주제의 기록영화·예술영화) 등에 참가해야 한다. 이외에도 퇴근해서는 동 인민반에서 조직하는 각종 노력동원과 모임에도 참가해야 한다. 일요일 휴식은 연중 절반이던 많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문화향수 실태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우선 북한의 문화예술은 정치, 경제정책에 과도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느 사회체제나 문화정책이 정치(당)나 경제정책과 관련되어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겉으로는 문화생활에 정치생활, 경제생활과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화예술정책은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치(당)와 경제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sup>136)</sup>

둘째로, 북한의 문화예술 향수는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인간생활을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경우, 공적인 부분만으로 개인생활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 개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136) 물론 북한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에 따라 창작된 문화예술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의 문화예술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정치생활, 경제생활에서 집단주의적 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사적인 즐거움의 영역은 문화생활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은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북한주민의 문화생활은 일종의 지속적인 전시동원체제하에 놓여져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시동원체제가 지속된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전시동원체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생산과 노력봉사에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동원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노동이나 생산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추가적인 문화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활동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창의력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sup>137)</sup>

따라서 북한사회는 동원이나 ‘집단주의 원리’ 아래 움직여지기 때문에 남북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일상생활상의 여가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주민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업,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는 남한 사람들의 생활태도에 대해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sup>138)</sup>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 풍요롭게 물질생활을 하는 남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상대적 빈곤의식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여가생활수단은 대부분 대중매체, 즉 영화, 연극, 집체예술 등 집단주의적 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지며 개인적 차원의 여가 향유수단은 극히 제약된다. 대중매체 활용이 허락된다 해도 통제사회인 북한에서는 TV시청과 라디오 주파수가 제한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바로 이 여가생활에서 남북의 차이와 갈등을 느낀다고 한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주 초기에 남한 사회생활 부적응기에 같은 동료끼리 과음을 하면서 자신의 소외감을 극복하고, 차차 종교생활을 해나가면서 정상적인 자신의 여가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137) 오기성, 「남북한문화통합론」, 앞의 책, pp. 190-191.

138) 이서행, “남북한 사회관 및 일상적 사회생활 관련 가치관의 갈등양상,” 앞의 책, pp. 255-256.

## 라. 경직된 도덕적 판단과 태도

북한의 교육은 물질적 측면보다는 ‘가장 숭고한 삶’을 추구하도록 강조한다. 물질은 필요한 만큼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며, 인민은 수령의 명령에 따르고, 공산주의 도덕성에 따라 살면 된다. 인간은 물질에 속박되어서는 안되며 정신적 도덕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의 결정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 정신과 사상과 도덕은 물질보다 우월하며 위대하다.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옳은 것이므로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은 항상 최고의 도덕적 선을 향하여 살아간다. 그리고 옳은 것 (수령과 당)은 따르고 그른 것은 증오해야 한다. 교조주의적으로 화석화된 공산주의이념으로 주입된 북한사람들은 이와 같은 흑백논리적 사고로 굳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도수 높은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부도덕하고 타락되어 있으며 악한 자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비추어진다.<sup>139)</sup> 더욱이 경쟁사회에 속에서 황금만능사상이 만연되어 있는 남한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예술은 북한의 일반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눈에 냉혈한 생존논리만 존재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고정화된 사고방식과 이념체계는 북한의 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남한사람들, 문화예술인들과 사귀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그들끼리도 가까운 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고 생활관이나 양식이 다른 사람과는 상종하지도 않으려는 태도는 북한체제에서 형성된 철저한 흑백 논리적 사고와 절대적으로 주관화된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한 사람들의 흑백논리적 사고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양자가 충돌할 경우 갈등은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아울러 소위 과잉사상성과 몰사상성의 경향으로 인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에 따르는 철저한 생활수칙이 주입, 교화되었으므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 원칙에 따라서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

139) 이화수, 앞의 책, pp. 283-284.

다. 북한은 과잉사상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자연히 모든 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은 거기에 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모든 사물을 주체사상적인 고정된 관점으로 보도록 하는 시각이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학습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에 기초하여 볼 때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은 전체나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의식이 강하나 순응적이고 타율적인 획일적 사고양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남한의 문화예술인들에게서는 개인적 자유의식을 기반으로 자아의식과 자기주장이 뚜렷하나 개인중심의 이기주의와 자유로 포장된 방종주의를 보일 것이다.

모든 중요판단을 지도자에게 의존하고 지식인들은 지도자의 판단을 재해석하는 작업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자유’와 ‘이기’를 주축으로 한 남한사회에 던져졌다고 가정할 때, 그들이 인식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남한사회는 ‘썩은 사회’로 비쳐질 것이다.<sup>140)</sup> 반대의 경우 북한은 ‘있을 수 없는 사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사회’로 비쳐질 것이다. 이처럼 쌍방간의 인식의 틀이 조정되지 않는 한 다양한 차원에서 한편에서는 ‘옳다’고 보는 것이 다른 쪽에서는 ‘그르다’고 인식되는 일이 허다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의 상충은 다양 한 갈등을 양산할 것이다.<sup>141)</sup> 특히 공산주의적 왕정체제하의 신민으로서의 획일적 도덕교양으로 교화된 문화예술인들이, 특히 당에 명령에 복종해 온 문화예술인들이나 이념과 체제의 색채가 강한 문화예술 작품에 종사해 온 사람들의 경우, 남한 대도시 생활의 복잡성, 개인위주의 익명성, 무규범이라고 보아도 좋을 다양한 가치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140) 비록 1990년대 초반 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는 썩었고, 북한사회는 미쳤다”라고 지적했던 표현은 통일 이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141) 박병권, “남북한 도덕규범관의 갈등양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통일 후유증 극복방안 연구」(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191- 192.

## V.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문화예술 통합 방안

### 1.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과 문화예술단체

북한의 문화예술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종합공연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많다는 점이며, 주요 분야별로 산하에 세부 단체가 조직되어 있어 독립성과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남한의 문화예술단체와 구별되는 점이다. 북한 문화예술단체의 이러한 특성은 실질적 통합 단계시 단체 단위의 통합방안보다는 단체 내의 세부 분야별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구체적일 수 있다.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단체는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 창작과 보급의 전 과정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된다. 국가에서는 전문 예술인들을 일정한 조직 안에서 통제하고 창작 방향을 제시하며, 창작된 작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열과정을 통해 수정을 요구하며, 국가 조직망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급된다. 반면 남한의 문화예술단체는 국립단체, 민간단체, 기업산하 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성격과 지향이 다양하다. 남북한의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은 남한의 공연예술 단체 특성에 맞추어 단체의 특성과 성격을 재편해야 하는 문제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이나 제도의 통일에 앞서 통일이후 재편된 문화예술 단체의 조직개편에 대한 예비적 성격의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경제가 계획에 의해 운영되듯이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예술인의 창작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창작의 활성화와 문화향수의 기회증대라는 복지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가 국가계획에 의해 통제되듯이 문화예술 부문도 창작과 보급의 전 과정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된다. 국가에서는 전문 예술인들을 일정한 조직 안에서 통제하고 창작 방향을 제시하며, 창작된 작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열과정을 통해 수정을 요구하며, 국가 조직망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급한다.

북한 문화예술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은 예술인들의 조직, 작품 창

작, 보급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관리 속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모든 예술인들이 일정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북한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으로는 크게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문화성, 문학예술인총동맹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장으로 있었던 선전선동부는 문화예술의 정책적인 결정과 내용에 대한 검열을 하며, 정무원의 문화성은 문예행정을 실제로 집행해 나간다. 그리고 문학예술총동맹은 선전선동부에서 결정한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창조 작업을 진행하고,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지도 등을 실시한다. 각 기관별 주요 역할과 관할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전선동부는 문학예술 작품의 내용을 규정하는 핵심부서로서 전분야에 걸쳐 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모든 문화예술정책을 입안하고 행정 지시 사항을 결정한다. 선전선동부는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언론, 출판, 문화, 예술, 방송, 보도 부분 등의 모든 사업을 통제하고 지도한다. 그리고 검열 이외에도 각종 학습회, 토론회, 강연회, 전람회를 주관하며 신문과 잡지의 발간 및 군중집회를 주도하는 일을 한다. 노동당 선전선동부 직속 관할 단체로는 조선중앙방송위, 국가심의회, 4·15창작단, 4·15집단체조창작단, 보천보전자악단, 칠보산전자악단, 만수대창작사, 조선노동당출판사, 윤이상음악연구소와 중앙당각부선전대가 속해 있다.

문화성은 문화에 대해 당이 기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면 그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집행과정을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정무원의 조직관리는 실질적으로 문학예술작가총동맹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화성 직할 관리 대상인 기관으로는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모란봉예술단(민속예술단), 평양시예술단, 영화 및 방송음악단, 국립교향악단, 왕재산경음악단, 평양교예단, 각도 예술단(9개), 각도·시·군 선전대, 공장기업소 기동선전대, 가도선전대(비편제), 정무원 각부 동맹선전대(비편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8예술영화촬영소,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가 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북한의 전문예술들은 의무적으로 소속되는 단체

이다. 문학예술총동맹은 명목상으로는 사회 단체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정무원의 산하단체로서 구체적인 작가들을 관리를 비롯하여 지도하고 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문학예술총동맹은 작가들에게 창작 방향을 알려주고 창작량을 배당하는 역할을 한다. 문학예술총동맹에서는 상부의 명에 따라서 배당받은 창작량에 따라서 연간, 분기별 창작 계획과 공연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문화성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는다. 비준이 내려지면 작가들에게 할당량을 배당하고 통제를 받으면서 예술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당의 영도 밑에 있는 모든 작가, 예술인들을 충실한 문예전사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수행이다.

셋째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창작 사업을 진행하도록 협의, 조직, 집체적 지도를 보장한다.

넷째, 인민들의 생활과 감정에 맞는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하며 문학예술을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한다.

다섯째, 반당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의 침투와 발현을 반대, 투쟁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군중 속에서 문학예술의 새세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여섯째, 세계의 모든 진보적이면서 혁명적인 작가, 예술인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sup>142)</sup>

이 외에도 조선인민군과 인민보안성에서도 예술단체를 관할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관할 단체로는 조선인민군협주단, 조선인민군 교예단, 조선인민군 문예창작실, 조선인민군 예술학원, 각 군단선전대, 최고사령부 군악대, 각 사(여)단 기동예술선동대, 조선인민군 군사과학영화촬영소, 조선인민군 영화문학창작실, 조선인민군 문예창작실, 조선인민군 예술학원, 최고사령부 군악대, 조선인민군 군사과학영화촬영소가 있다.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성) 관할 단체로는 국가보위부(현 국가안전보위부) 선전대, 사회안전부 영화문학창작실, 사회안전부 문예창작실, 사회안

142) 윤재근 공저, 「북한의 문화정보 I」(고려원, 1991), p. 20.

전부 협주단(해산), 인민경비대총국 선전대, 사호안전부 각국 선전대, 인민경비대 각국 선전대 등이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일반적인 대외공보 사업은 ‘조선공보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조선공보위원회는 북한의 대외선전기관이지만 비상설기구로 관련 기관 간부들이 위원장 등을 겸임하거나 사안에 따라 실무책임자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 역대 공보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이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강능수 문화상이 담당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대외교류는 ‘조선예술교류협회’에서 담당한다. 문화성 산하기관으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비롯한 미술전시회, 영화분야 등 문화예술 분야의 대외업무를 담당한다.

북한의 문화예술 단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북한의 주요 문화예술 단체와 활동(1)

분야	단체명	세부조직	주요 활동
문학	4·15문학창작단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산하단체로 북한의 대표적 소설가로 구성.	총서 '불멸의 역사', '세기와 더불어',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실기 '21세기를 보다'.
종합공연단체	국립민족예술단 (구 평양예술단)	민족가극, 음악, 무용 등 종합공연단체로, 연출, 지휘, 배우, 미술, 무용, 민요가수 등	민족가극 <춘향전> 혁명가극 <밀림이야기하이라> 무용 <손부춤>, <강선의 노을>
	피바다가극단	가극 및 무용 등 공연예술단체로 창작지도부·합창부·무용부·무대미술부·교향악단이 있음	혁명가극 <피바다> 무용 <금강선녀>
	만수대예술단	혁명가극, 무용, 음악무용이야기 등 종합공연단체 무대미술부, 3관 편성으로 된 관현악단과 민족관현악단·무용단·여성중창조·남성중창조·기악중주단 등 예술인과 행정조직 300여명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무용소품 <조국의 진달래>
	조선인민군협주단	북한군소속 종합공연단체 300여명 작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분야의 예술가들이 가요, 민요, 무용, 성악, 단막극을 비롯한 연극, 가극까지 공연예술 전분야에서 활동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음악무용서사시극 <대부대선회대전> 무용 <밀영의 봄>
	청년협주단	작곡, 성악배우, 경음악, 배우	
	기동예술선전대 각시도예술단		작업현장을 순회공연하는 예술단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예술단
연극	국립연극단	연극단체로 연출, 배우, 분장, 무대미술 등 연극관련	혁명연극 <성황당> 등 5대혁명연극
	국립인형극단	단장, 연출, 작가, 무대미술가, 의상, 배우, 인형미술가 등	인형극 전문단체
	국립희극극단		재담이나 소극 등 대중 공연
교예	평양교예단	교예전문단체로 기계 부문의 700여 단원과 300여 명의 교예배우, 교예연출가, 교예평론가	교예, 요술, 막간극

<표 3> 북한의 주요 문화예술 단체와 활동(2)

분야	단체명	세부조직	주요 활동
음악 공연 단체	왕재산경음악단	16명으로 구성된 전속 악단과 6명의 가수 및 16명의 무용수	국내 및 해외공연 경음악, 가요, 무용곡
	보천보전자악단	기악 앙상블과 성악가들, 창작가, 지휘자 등으로 약 15명, 신디사이저 등 전자 악기를 중심으로 피아노 등의 양 악기와 전통 악기를 혼용하고 있으며, 공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속배우(성악, 무용)와 합창단을 두고 있음.	텔레비전 공연, 해외공연
	조선국립교향악단	단장, 지휘자, 작곡가, 성악가, 연주가	교향곡연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교향악단
	윤이상음악연구소	윤이상음악연구소 전속 관현악 단원	
	조선인민군군악단	인민군 내 군악단으로 2001년 4월 창단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전문합창단	

<표 4> 북한의 주요 문화예술 단체와 활동(3)

분야	단체명	세부조직	주요 활동
영 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평양시 형제산구역 당산동 위치. 부지 면적 100만㎡에 4개의 대형 촬영장과 야외 촬영거리, 배우양성소가 있다. 촬영소에는 실내촬영장, 녹음 및 편집설비, 필름 가공설비 등 현대적 시설들이 있어 10개의 창작단이 동시에 촬영, 녹음이 가능.	‘백두산창작단’, ‘왕재산창작단’, ‘대흥단창작단’, ‘삼지연창작단’ 등 주로 김일성의 혁명전적지 이름을 딴 10개의 창작단이 활동.
	조선4·25영화촬영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소속의 극영화 제작 기관, 시나리오 작가, 연출가, 배우로 구성되어 있음	‘월미도창작단’, ‘대덕산창작단’, ‘일비산창작단’의 3개의 창작단이 소속되어 있고 연간 15편 정도의 극영화와 20~30여 편의 문화영화
	과학교육영화촬영소	아동영화, 과학영화전문촬영소	교육용 영화 전문 촬영
	만경대촬영단		기록영화부문에서 김일성 주석일가의 기록 담당
	영화문학창작단	영화문학전문 창작단체	
	영화교향악단	영화에서 사용되는 관현악을 연주하는 영화교향악단	

<표 5> 북한의 주요 문화예술 단체와 활동(4)

분야	단체명	세부조직	주요 활동
방 송	방송문예창작단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교향악단	텔레비전 방송음악을 맡고 있는 방송교향악단	
	방송예술단	극단, 합창단, 관현악단, 가야금병창단, 민족관현악단, 문예효과편집부, 무대예술부, 연출부, 음악지휘부로 구성.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예술 창조와 근로자를 위한 무대공연도 진행.

## 2.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 문화교류 상황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교류와 협력은 남북간의 분단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상호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완전한 통합체를 이루는 핵심분야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의 통합과정은 통합단계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통합과정이 병행 추진되어야 통합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갈등의 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 통합을 앞둔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남북한은 모두 상호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학생과 국민들에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와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비록 규범적, 제도적으로 효율적인 통일정책이 추진된다고 해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과 이질감은 내적 불만 그 자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세력화 될 경우, 통일이라는 의미 자체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규범적 통합이 곧바로 내적 통합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 독일통일사례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정치사회적 제도의 차이에서 발생한 가치관의 혼란에 대한 대비 없이는 통일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통일 이후의 사회는 분명 과도기적 상황을 겪게 될 것이고 따라서 가치관의 혼란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남한 사회의 아노미적 개인주의와 북한사회의 맹목적 집단주의는 남북의 의식구조와 삶을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 통일 후 그대로 방치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 내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문화예술의 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남한 주민이나 북한 주민들에게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화해를 도모하고 남북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문화 예술 분야의 통합과정은 제도적 차원을 넘어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란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증진되어 인적·물적 교류가

추진되고 있는 통일직전의 상황을 의미한다. 이 시기는 사회문화에 대한 접촉이 시작되고 인식이 확산되는 시기를 지나 사회문화의 완전한 접촉이 가능하고 교류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면서,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자유로운 상호 비판과 공동 작업이 가능해진다. 문화예술 분야에 이러한 단계를 적용시킬 때, 현재의 상황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의 독립적 교류이다. 현재의 남북 문화예술 교류도 일정 부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되는 면이 크다. 따라서 정치적 사건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정치, 경제와 독립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독립적 교류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예술인과 예술 작품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남북한 사이에 ‘문화예술 교류협정’ 등과 같은 제도화된 협정이 이루어지고, 현재의 교류상황과는 달리 국가의 통제나 규율이 완화된 상황에서 인적, 작품 교류가 진행될 것이다. 다만 인적 교류의 경우 통합이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작위의 대단위 규모보다는 소규모의 계층적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남북한 사이의 대중 매체가 단일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중파나 위성방송의 수신이 자유로와 짐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대중매체가 시간차 없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북한의 문화산업이 개방된다는 점이다. 통합단계의 남북한의 교류는 문화산업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 문화산업 시장이 개방될 것이다. 이때 문화는 문화고유의 특성보다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더욱 중시될 것이며, 남북한 사이의 문화예술 작품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각 분야의 교류가 큰 폭으로 증대될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현재의 정부나 공적 기관의 주도나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제한된 인원이 참여하는 교류와는 달리 민간 중심의 다수가 참여하는 폭넓은 교류가 추진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남북한 문화교류 형태 비교

	현재 상황	실질적 통합단계
교류주체	정부주도(선정부 후 민간)	민간교류 중심
교류성격	정치중심의 부대행사 방송·언론의 복합 상징적 행사	문화예술의 독립적 교류 음악, 미술 등 분야별 단일사업 실질적 효과에 기대
교류방식	방문공연 중심 단발성, 부정기성 기획중심	공동창작, 방문공연, 순회공연, 합동공연, 교환공연 등 교류 형태의 다양화 상시, 정기적 교류
교류범위	전문가, 관련자 중심의 제한적 범위	전문가 포함 일반인이 참여하는 광범위의 교류 지방자치, 예술단체, 기관별 교류
교류방향	남한 예술의 대북교류 중심	순수예술 : 상호교류 증대 대중예술 : 대북편향성 증대
교류내용	문화적 인식 차이 해소	문화적 동질감 확대
일반인의 접근태도	호기심	민족적 이질감 극복 문화자원을 통한 문화산업 자원
교류효과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상호 문화적 차이와 북한의 전통문화의 현대화 성과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통한 민족문화사 복원 한국 문화의 세계적 보편성과 문화적 역량 제고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

이러한 몇 가지 상황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사이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본 연구도 이 정도의 단계를 상징하고 작성되었다.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문화예술 교류 및 통합과정은 남북한의 이벤트성 교류나 제한적 인적 교류, 작품의 교류가 아닌 통일한국의 국가적 위상에 걸 맞는 문화예술 분야의 재편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분단의 이질감을 극복하며, 세계 문화발전에 동참하면서, 문화산업적 측면의 장기적 플랜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시에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양시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가 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보다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문화를 통한 국가적 이미지 제고를 경제 산업 활동가 연결시키기 위해 문화적 외교를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문화산업화가 가속되면서 문화산업의 독점이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 3.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환경과 문예정책

#### 가.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환경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남북한 통합을 대비한 문화예술 분야와 인접 문화분야를 포함한 문화예술의 공적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기능과 목적으로 정책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분명한 문예정책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문화정책은 해당 국가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예술 분야(공연예술), 문화시설 분야(박물관, 도서관/자료관), 기념물(역사적 기념물), 문화산업(영상, 저작권), 교육분야(전문 예술교육, 대중교육), 매체(방송), 관련기관 분야 등으로 법적인 지원제도를 통하여 문화기반의 확대 조성, 예술활동의 장려와 지원, 국민문화활동의 기회확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다.<sup>143)</sup> 문화정책의 범위는 크게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이러한 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통합단계의 문화환경과 교류현황에 맞추어 증대될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환경은 ‘문화창조자의 창작 여건 개선’, ‘문화향

14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일본 문화정책의 현상과 과제」(1990) 참조.

유의 기회 증대’, ‘매체의 다양화·거대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유통과 수용, 산업분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7>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환경

분야	문화환경	문화행태
문화 유통	매체의 다양화 다채널화	문예진흥을 통한 창작활성화 공연장 등 직접 관람
		비디오, DVD 등의 신매체 확대
		디지털 방송의 보편화
		위성방송을 통한 다국적 문화수용
문화 수용	향유기회증대	시민교육 프로그램강화
		전문예술인 교육 프로그램
		문화공간 확대
문화 산업	문화상품의 경쟁력 확대	컨텐츠 중심의 문화산업
		문화적 독점화 가속
		문화국경의 전면적 개방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정책은 남과 북의 문화적 우열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동시에 남북한 문화예술의 취사선택이나 적절한 조합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문화정책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북문화 교류의 현실문제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통합은 문화공동체로서 새로운 출발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이념은 문화예술이 통일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민족적 정통성을 강조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 정통성의 내면적 의미를 살리면서 당대사회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나.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예정책 방향

미래의 문화현상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와 같은 지식기반 사회(Knowledge-based society)가 지속된다면 문화예술은 보편적 삶의 가

치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창의성을 발양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창의적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지식기반 사회에는 인간형은 지식정보 산업시대의 개인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가치 창출의 기본이 되는 ‘창의적 인간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문화정책 기조도 기존의 국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향수기회 증진을 통한 삶의 가치향상과 창의적 인적 자원을 통한 국부창출이라는 두 축을 기조로 창의적 사고와 창조적 상상력을 계발할 수 있는 문화기본시설의 확충과 문화 학습 체계를 갖추면서 가정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문화정책의 기조는 지식산업사회를 근간으로 예상되는 정책기조로서 문화환경의 변화를 예상하여 설정하여, 문예정책의 기조와 방향, 세부지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 정책 기조와 세부지침

문예정책 기조	문예정책 방향	문예정책 세부지침
보편적 삶의 가치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li> <li>- 재교육프로그램</li> <li>-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프로그램 개발 보급</li> <li>- 지역사회 복지관, 여성회관, 문화회관의 문화프로그램개발</li> <li>-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li> <li>- 문화예술 기반 확대</li> </ul>
고부가가치 문화 산업을 통한 국부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주관기관과 정보통신, 산업관련 기관의 업무영역의 효율적 조율과 통합을 통한 국부 창출의 연원과 국가발전의 동력화</li> <li>- 고부가가치 지식산업형 산업으로 육성</li> <li>- 예술영재교육의 체계화</li> <li>- 문화산업 인프라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보호제도</li> <li>- 디지털화, 멀티미디어</li> <li>- 개인정보 보호</li> <li>- 영재교육의 체계화</li> <li>- 영재교육 기회 확대</li> <li>- 지역별 영재교육 프로그램</li> <li>-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li> <li>- 특수대학원 설립</li> <li>- 예술전문인력 양성</li> </ul>

보편적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영역이 여가활동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편적 삶의 가치 향상이라는 문화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창의성을 발양할 수 있는 일반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비롯하여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확충으로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사항, 문화취약 시민을 위한 접근을 용이하기 위한 복지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에서 창의성 발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될 것이다.

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식산업 육성,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 정책은 문화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문화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산업화에 대비해야 한다.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의 독자적 역량보다는 정보통신 관련 부처, 통상관련부처 등 관련 기관과의 효율적 업무 조정과 협력을 통하여 국가 발전의 동력원으로 문화예술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지식형 고부가가치 이 시행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창의성을 높이고 창조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제도의 확충과 현실화’, 문화예술의 적시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화, 멀티미디어화 지원’, ‘영재교육의 체계화’, ‘영재교육 기회 확대’, ‘전문화된 특수대학원 설립’, ‘예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 4. 남북 문화교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의 문화교류는 정치적 배타성을 극복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통합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교류에 따라서 오랜 동안 대면적 접촉이 없었던 만큼 상호 문화에 대한 이질감의 확대, 청소년 모방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예술의 교류는 적극적인 교류 추진에 따라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필연적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오랜 동안 상호 왕래나 상호 문화접촉이 중단되었다시피한 만큼 상호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접촉에서 익숙한 기호(약속)와 상징들을 잃어버리고 낯설고, 과거에서 습득한 과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체제 안에서 새로운 체제로 강요당하는 ‘문화적 충격(Cultural Shock)’ 상황은 남북교류를 통해 최소한으로 완화되어야 한다.<sup>144)</sup>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은 상호 이해의 어려움이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문화적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문화교류가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가. 실질적 통합단계 문화교류의 긍정적 측면

첫째, 상호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이다. 남한문화의 경우, 북한에서 추진해온 민족문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추진해온 민족문화정책에 따라 개량약기, 민족교예, 조선화, 민요 등은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의 보존을 중심으로 해 온 남한의 전통문화 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냉전적 문화인식의 극복이다. 분단이후 지속되었던 전투적 문화, 냉전적 문화의식을 극복하고 상호 공존·공생의 문화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동안 냉전 체제에 대립적 인식은 남북교류시에도 남북갈등은 물론 남남갈등을 야기하여 왔다. 이런 혼란한 상황이 남북간의 문화교류가 촉진되면서 해소되어 갈 것이며, 신세대들의 건전한 통일의식, 상호 인정적인 남북인식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문화 향수의 선택 폭 확대이다. 남북한 문화는 그 동안 상호체제

144) 이상면, “통합과정에서의 문화적 충격과 사회·문화적 문제들” 「남북한의 사회·문화, 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 (문화방송, 1997.1), p. 202.

속에서 형성된 문화가 교류됨으로써 문화향유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한의 경우 상업주의 대중문화 중심에서 북한이 강조해온 공동체의식과 민족적 정서가 풍부한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경우, 남한의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의 장르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다. 남북한은 문화예술의 기본 개념과 범주에서 차이를 보임으로써 독특한 형태의 예술이 발전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개발되고 있다. 북한의 교예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조선보석화, 수예, 분문화 등의 장르는 남한에서 접하기 힘든 장르를 예술 범주로 확대될 것이며, 남한의 비디오 아트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결합한 예술형태가 소개됨으로써 남북한 모두 문화예술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문화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명, 녹음시설, 녹화시설 등의 발전이 문화예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음악의 녹음시설이나 연극이나 가극에서는 무대장치, 조명, 영화의 편집 기술, 미술에서는 염색기술, 세공기술의 발전, 건축술의 발전 등이 문화예술 발전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 나. 실질적 통합단계 문화교류의 부정적 측면

남북한의 문화예술 교류는 상호 이질적으로 형성되어왔던 남북한의 이념이나 체제운영에서 야기된 이질감을 극복하고, 협력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문화창작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자유로워질 경우, 문화예술 교류의 기본적 목적에 충실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정적인 측면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남북한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여야 하듯이 남북교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예술 교류의 편향 심화 가능성이다. 남북 문화교류의 기본적 취지와 달리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남북한의 문화예술 단체, 작품의

불균형으로 인한 남한 문화 중심의 교류가 전개됨으로써 상호교류보다는 일방적인 교류가 전개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교류가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유통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 문화예술의 소개는 경쟁적이며 이벤트적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 문화에 대한 식상함으로 이어져 배타적인 국민인식을 낳거나 무분별한 정도로 이어져 확대재생산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문화예술 교류의 원래의 목적과 달리 역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교류를 위한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전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 문화분야에서 북한 문화의 경쟁력 한계도출로 인한 대중문화 분야의 종속화이다. 북한의 문화예술 운영시스템은 국가의 집중적 중앙관리를 기본으로 하기에 문화예술 단체의 수나 예술인 수가 남한과 비교할 때 적다. 또한 예술단체의 공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남한은 창작극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북한은 레퍼토리 공연방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한 상호 교류시 교류의 인적 자원이나 프로그램에 있어 상대적으로 북한이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대중 문화의 경우, 남한 문화예술의 유입으로 인한 종속화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셋째, 대중문화, 상업문화의 유입이다. 일반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류에서는 상업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청소년 모방범죄의 확산, 남한 문화의 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문화예술을 통한 건전한 의식함양과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인성개발보다는 남한 문화의 소비적, 향락적인 측면에 노출되기 쉽다. 남한의 방송을 접하게 되면서 방송을 통한 남한의 패션, 신발,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남한의 유행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는 한중 수교 이후 연변족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문화모방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도 증대될 것이다.

넷째, 대중문화의 소비력 차이로 인한 이질감 형성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문화교류는 문화예술 관련 매체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므로, 인공위성 수신이나 디지털 방송의 수신, CD, 비디오, 정보통신 기간 시설 구축에 소요될 비용에 증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민들 사이에서 문화

수용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이질감이 형성될 수 있다. 위성안테나의 경우 가시청 채널의 수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한다.

연변 조선족 사회의 경우 위성안테나를 설치한 경우는 한국의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케이블 TV까지도 모두 시청 가능하기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으며 발견시 압수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에 급속도로 설치되어 가고 있다. 농촌의 경우는 한국드라마를 보기 위해 저녁마다 위성안테나가 있는 집으로 모여드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위성안테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낮에는 숨겨두었다가 밤에만 설치하는 집도 있다고 한다. 위성안테나 설치의 경우 가격에 따라 수신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하다. 보통 1,200원 정도이면 공영방송은 모두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중국내 대중문화가 확산되면서 음악전문 방송사가 생겨났다. 연길의 연변문예가곡예약프로(延邊文藝點播頻道)의 경우 한국노래, 중국노래, 팝송 등 다양한 노래를 전화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한 곡 당 8원씩 전화비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그 비용이 적지 않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화소비력의 차이가 균형적 문화소비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심리적 박탈감을 형성할 수 있다.

다섯째, 불법 복제 등의 불법 복제의 확산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 보호는 개인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문화를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단속이 더욱 철저해 질 것이나 남북한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문화교류가 진행된다면 불법복제가 성행하게 될 것이다. 불법복제의 경우 제도권 내의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작품까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남한 문화의 왜곡 현상도 심화될 수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예술인 개인 영역의 교류를 비롯하여 예술단체,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교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 교류는 상호 배타적 인식을 허물고 협력적이며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일조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무분별한 교류와 원칙없는 정책으로 남북문화 교류과정의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게 제기될 것이다.

남북한 통합과정은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상호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완전한 통합체를 이루는 과정이지 그 자체로서 결과

물이 아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비록 규범적, 제도적으로 효율적인 통일정책이 추진된다고 해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과 이질감이 정치 세력화하거나 지역간 갈등으로 남는다면, 통일이라는 의미 자체를 반감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도적, 규범적 통합이 곧바로 내적 통합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 문화예술이 시대와 단계를 초월하여 통일을 이루는 내적 디딤돌로서 의미를 갖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통일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적 갈등의 문제는 한중수교 이후 진행되었던 조선족과의 교류를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다. 한중수교 이후 같은 민족이라는 강한 동질성과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제도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빚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는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물론 조선족은 중국 내의 소수민족으로서 국가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이 상이한 경우이지만 조선족 사회는 동일한 문화적 전통과 언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통합 과정의 적지 않은 점을 시사해 준다.

남북한 교류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남북한 문화의 장·단점을 토대로 통합단계의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의 장단점을 취합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독자적인 문화를 전개해왔다고 해도, 이는 극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완화, 또는 적응의 대상이거나 서로의 장점을 인정함으로써 통합의 필요성을 줄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5.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문화교류 지향점

### 가. 미래지향적 창의적 통합문화 형성

남북한은 반만년 역사 속에 축적된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다. 남북한이 공유한 문화적 전통은 단일 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저가 되었지만 분단 이후 남북한 체제 차이에서 발생한 문화적 이질감은

심화되고 있으며,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문화로의 지향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민족문화를 통합문화의 한 영역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는 실제 생활을 규정하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문화예술은 정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접근하기 쉽다. 그러나 문화는 문화를 생성하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한 해석 없이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은 철저하게 작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남북 문화의 형성기반인 정치체제의 문제로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화 갈등 해소에 초점에 기여하여야 한다. 당연한 문제이지만 통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상대 체제를 인정하고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문화뿐만 아니라 남한의 문화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의 불신과 적대감 해소에는 동질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남북한 문화통합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그러나 통합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동질적 요소도 엄존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문화의 집중화와 분권화로 인한 중앙문화와 지역문화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단위 단체와 지역단위 문화예술 단체의 특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교류는 남북한 문화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문화예술에 반영된 특성을 분석할 때 가능한 일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 문화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남한 문화의 장점으로는 대중문화의 기반이 견고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남한의 문화는 북한과 달리 수용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문화적 수용층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발전하여 왔다. 문화정책에 있어 창작과 교류에 대한 지원과 함께 문화 향수의 기회 확대를 추진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문화의 한국 문화의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여 2000년 들면서 대외적인 문화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문화활성화를 추진하여 부산 국제영화제, 광주 비엔날레, 부천 환타스틱 영화제 지역문화의 국제화에도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반면 오랜 기간동안 문화적 자생력을 갖지 못하면서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른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 같이 중앙단위 공연단체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며, 국립극장과 같이 예술단체의 독립경영이 확대되면서 정통문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체제는 미약한 편이다.

북한 문화의 경우 장점이라면 전통문화의 현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강조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책에 따라서 민족문화를 현대화하면서 고유의 특색있는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수용자 중심보다는 국가정책의 선전과 선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나 국가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수십 부로 이루어진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와 같은 총서의 창작, 대집단체조 예술 공연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이나 <아리랑>, 음악무용서사시극과 같이 수만명이 참여하는 공연예술, ‘천리마동상’, ‘주체사상탑’과 같은 기념비, ‘조선의 별’, ‘민족과 운명’과 같은 수십편의 다부작 영화 창작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문화예술 종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규모 작품의 창작을 가능케 한 지원체제는 북한의 문화체제가 장점이 된다.

반면 북한 문화의 단점으로는 문화향유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문화적 세계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북한 문화는 공급자 중심으로 수용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당정책을 반영하면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창작논리로서 ‘속도전’이 있지만 문화시장의 논리로 볼 때 문화 수용층의 욕구를 앞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북한 나름대로의 전통문화를 현대화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왔지만 대외적인 문화폐쇄성으로 대외적 경쟁력이 약하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미적 세계에 대한 다양한 탐구와 창의성보다는 현 시대에서 제기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성의 측면에서 약점을 보였다. 이는 제도화된 틀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지 못한 북한 체제의 한계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 문화의 장단점은 비교 대상으로서가 아닌 상호 발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미래지향적 문화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나.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기여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는 남북한의 동질성을 확대하고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국립단체에 대한 제도적 통합과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중문화 창작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통합 문화의 통제와 규율로 인한 문화향유의 기회의 축소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제도적 통일단계에 이르면 어쩔 수 없이 남북한 한 쪽의 중심세력이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심리적 저항감이 발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남북한 통합단계에서는 북한 문화예술의 주류를 이루던 내용이 상당 부분 제약될 수 밖에 없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이러한 공백이나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치유와 인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상품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대중적 친화력이 강한 매체에서는 남북한 통합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작품이 창작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남한, 북한 내의 갈등을 줄이는 데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중문화를 통한 동질성 회복은 대중문화의 흑백논리와 도식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수 대중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대중적 전파력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북한 소재 대중문화 작품을 통한 접근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통일의 의미와 교육을 홍보하는 데 있어 대중문화적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특정 장르의 작품이 지니는 내적 구조와 미학적인 문제가 아니

라 대중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이해할 때 대중문화의 힘은 매우 크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홍보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대중문화의 프로파간다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내면적으로 접근할 때 보다 큰 파장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중문화는 당대 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 가치 인식을 은유적이며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남북관계는 냉전체제의 대립 개념 속에서 대립적 양상을 보여왔다. 그동안 남북한의 대중문화에서 분단과 체제의 문제는 창작의 주요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냉전체제 구도 하에서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는 분단 이데올로기와 대립의 식으로 잉태된 대북 관계를 바탕으로 남북한 각각 승공·방공교육과 주체사상·혁명교양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상호 경계심과 적대감 양산하는 작품이 창작되었고, 사회적 통합이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중적 반공이데올로기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오면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증폭시켜왔다.

냉전체제 하에서 제작된 할리우드의 영화의 대립구조는 CIA와 KGB의 대결로 그려졌으며, 007시리즈에서는 적대 세력의 미사일은 항상 런던을 향하고 있고, 할리우드 영화에서 미사일은 언제나 뉴욕이나 워싱턴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체제 구도 해체 이후 할리우드 영화의 주제는 국제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집단(트루라이즈)이거나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앙(토네이도), 지구 밖의 우주(에어리언 시리즈)로 설정되었으며, 이제는 권력 내부의 모순 쪽으로 관심이 돌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에도 남북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한 대중문화는 크게 분단된 조국의 아픈 가족사에 대한 문제와 민족적 비극에 대한 문제를 다른 단계, 이념적 대립을 전제로 한 첨예한 갈등의 단계, 대립적 인식 속에서 민족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한 단계로 크게 3단계로 전개되어 왔다.

제1단계는 분단과 ‘6·25전쟁’이라는 민족사적 비극 앞에 놓여진 가족개개인의 체험적 소재를 작품으로 한 것이었다. 부모와 자식, 형제, 부부가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빚어진 비극적 운명을 다루었다. 특징적으로 한

가족 구성원을 소재로 전쟁의 비극이 현실에 미치는 아픔을 소재로 한다는 점이다. 즉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원의 해체를 소재로 한다.

제2기는 대립과 경쟁 구도 속에서 제작되었던 텔레비전 ‘전우’, ‘꼬마장군 똥이’ 등에서는 대립적 남북관계를 기본 구성으로 적으로 규정한 북한과의 전제로 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이념적인 갈등이 극대화 되면서 냉전적 이데올로기를 반복, 재생산 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켰던 단계이다.

제3기는 1990년대 이후 남북의 대립적 인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남북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본 시기이다. 남북한이 경쟁과 대립보다는 형제라는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기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과 ‘88서울 올림픽’ 이후 세계화에 대한 관심은 한반도의 비극적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였고,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남별’, ‘쉬리’, ‘간첩 리철진’, ‘2000년 4월 봄봄봄’ 등의 작품이 창작되었다. 제1기와 다르게 분단이라는 문제가 후세대의 문제, 젊은이들의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혈연 공동체에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성숙한 남녀로서 심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쳐질 수 없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 작품은 대중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작품들이다.<sup>145)</sup>

145)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먼저 소설로 출판되어 백만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베스트 셀러를 기록한 책이다. 세계적 핵물리학자였던 이휘소 박사의 실종 사건을 기본으로 축으로 남북한의 대립 속에서도 시베리아 개발권을 농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남북한이 손을 잡고 핵미사일로써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내용이다. 이후 영화로 제작되어 정보석, 황신혜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현세의 만화 ‘남별’은 대학생들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다. 통일 남북을 가상으로 통일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면서 남북한의 정예부대원들이 연합으로 재일동포들을 구출해 내는 것을 비롯하여 전쟁 속에 신화적 활약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강제규 감독의 영화 ‘쉬리’는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2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였으며, 전세계에서 자국영화로 ‘타이타닉’보다 많은 관객을 기록한 유일의 영화라는 기록을 남긴 대한민국 최고의 흥행작이다. 북한의 특급 저격수와 남한의 특수부대 요원과의 사랑과 이념문제를 축으로 한 작품이다. 소설로 다시 출판되었으며, 비디오로도 높은 판매를 기록하였다. 영화 ‘간첩 리철진’은 남한의 슈퍼패지를 얻기 위해 남과된

<표 9> 1990년 이후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

제 목	장 르	제작년도	비 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설(전3권) (영화, 비디오)	1994	일본과의 전쟁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일본과 전쟁을 벌인다는 내용으로 100만부 이상 판매됨
남별	만화(1,2부 전 9권)	1992-1995 (일간스포츠 연재, 단행본)	일본과의 전쟁에 남북한 특수부대요원이 참여하여 일본과 싸운다는 내용으로 100만부 이상 판매됨
쉬리	영화 (소설, TV 방송 영, 비디오)	1999년	남북대화를 앞두고 남북한 첩보요원이 벌이는 사랑과 액션물로 한국영화사상 최고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해외로 판매되고 있음
간첩리철진	영화	1999년10월	남과간첩이 한국에서 겪는 일을 코믹하게 그린 블랙코메디
2000년 4월 봄봄봄	TV드라마 KBS일요베스트	1999년 4월	한국에 내려온 북한 여배우와 경호원 사이의 사랑을 그린 로맨스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는 남북한의 정치적 변화와 관계의 개선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의 대중문화 작품이 창작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작품이 창작될 수 있도록 창작을 지원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통합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류는 문화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문화는 향유층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문화의 다양성은 현

---

간첩이 엉뚱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겪게되는 사건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로 상영된 이후 비디오로 판매되어 많은 인기를 모았다. '2000년 4월 봄 봄 봄'은 1999년 4월 KBS '일요베스트'에서 상영된 단막드라마로서 텔레비전 드라마이다.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진전되면서 남북 합작 영화가 제작되었고 이를 위해 북한의 인기 배우 백미향이 도착하면서 보디가드를 인 강현우와의 애뜻한 사랑을 나누고 주위에도 안타까워 하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제보다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은 계층에 따라서 청소년문화, 노인문화, 가족문화로 존재하며, 지역에 따른 문화적 특수성도 존재할 것이며, 성별 혹은 직업에 따른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별도로 존재하는 대립적 문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가 아니라 다층적이고 통합적 체제 안에서 상호 융합적으로 공존한다는 인식 하에서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적 통합은 문화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문화는 향유층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통합단계 이르면 문화는 현재보다 한층 더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교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세련된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도 분단기간 동안 상이한 체제하에서 개인 및 사회를 지배해왔던 規範, 價値, 信念 등의 惰性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발생한다.

북한지역의 청소년들 가운데는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청소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성윤리의 혼란과 빈부의 격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교육제도하에서 체계적인 사회화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 장년이상의 세대들은 기존체제에 익숙하고 재사회화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므로 새로운 체제에서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제도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로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극복의 의미는 제도적으로 하나의 통합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的 分化(differentiation)가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문화를 다양화시키는 것이다. 계층에 따라서 청소년문화, 노인문화, 가족문화로 존재하며, 지역에 따른 문화적 특수성도 존재할 것이며, 성별 혹은 직업에 따라 형성되는 문화를 통하여 계층간, 직업간, 연령대 간의 문화소통의 창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정치, 경제의 일원화와 달리 문화적 다원화를 지향해야 하며, 그 다원화 속에서 연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통합이라는 큰 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실질적 통합단계

에서 계층적, 지역적 문화는 통합대상이 아닌 활성화의 대상이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별도로 존재하는 대립적 문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가 아니라 다층적이고 통합적 체제 안에서 상호 융합적으로 공존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라. 세계적 보편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통합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문화예술은 통합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민족문화의 확립과 함께 보편적 인류 문화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남북통합 과정의 문화예술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우수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 민족문화가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 핵심 콘텐츠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콘텐츠를 표현하는 형식은 보편적 형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세계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적 보편성은 배타적 민족문화를 지양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지향적 국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통합이후 통일국가의 배타적 민족주의로 인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통일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원화, 다각화 양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 자국의 고유한 문화의 대외적 발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사회 속에서 급증하는 문화접촉에서 야기되는 문화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계문화의 보편성을 수용하고 서로 다른 문화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문화외교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문화는 남북한의 교류뿐만 아니라 남북한 공동으로 주변국가들과의 교류확대, 문화협력의 형태를 통해 문화와 외교라는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변국들의 불안감이나 한국에 대한 부정

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차원의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입체적인 인지 관리 작업을 통해 통일국가의 평화적 이미지를 개발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홍보는 장기적으로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통한 협력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기업 활동 증대와 관광산업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발굴하고 문화적 브랜드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홍보는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차원의 교류가 가능하지만 문화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문화가 있어야 한다. 좋은 문화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작가들의 경제적 여건과 창작환경의 개선, 창작된 문화예술의 효율적 홍보시스템의 개발은 한 개인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특히 국제홍보에 있어서 문화의 창작과 보급은 과거 한 개인의 예술적 재능에 의존하는 시스템과는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쌓아온 국제사회의 상이한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된 문화를 전세계에 보급 확산하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통합단계에서는 남북한의 문화정책 기관에서 통일한국의 국제문화홍보를 전문으로 담당한 기관이나 부서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은 문화 관련 부서를 비롯하여 외교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북한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나 남한의 여러 국제문화제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교류하여야 하며, 국제 문화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마. 남북한, 해외 한민족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기여

남북한의 문화예술적 통합은 해외 한민족을 포함한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통합이후 대두될 민족문화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남북한의 통합은 남북한과 함께, 분단의 이념 속에서 살았던 해외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된다.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심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족사적 전통의 정립을 위한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남북한은 역사적 인식차이로 인해 민족사의 해석에서 상당한 부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사를 정립하는데 문화예술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남북한의 문화예술적 통합은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민족 구성원들은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국권 상실기에 흩어진 민족들이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하와이, 원동 시베리아, 중국의 동북 지방, 일본의 교민들의 대부분이 국권상실기에 해외로 나간 경우이다. 두 번째는 해방 후에 경제적 문제로 나간 이민자들이다. 브라질 및 남미, 미국 LA지역, 독일 등에 흩어진 교민들이 그들이다. 세 번째는 최근 80년대 이후 소위 투자 이민의 유형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나간 교민들이다.

통합단계의 문화예술 분야는 이들을 포함할 수 있거나 이들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해외 동포는 100여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세대가 흐르면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 말과 글이 문화적 표현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이민들에게 하나의 민족의식이나 국민의식을 심어주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 남북한의 문화적 통합이 민족적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를 통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 재외동포들의 지위향상을 통해, 권익보호와 권익 신장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지원을 통해 모국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으며, 모국과의 경제교류도 촉진할 수 있다.

## 바. 문화산업적 측면의 접근 필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말은 곧 문화가 산업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의 시대란, 농경제 사회의 토지, 산업화시대의 생산수단과

같이 문화가 곧 돈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남북통합 과정은 곧 북한이라는 새로운 문화시장의 개방을 의미하며, 이 시장은 남한이 독점할 수 없는 개방된 시장일 것이다. 문화시장은 어떤 문화가 선점하느냐에 따른 문화적 선점효과가 어느 분야보다 크다. 이런 점에서 문화산업적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 문화교류는 민족적 사명이자 과제인 동시에 실제적인 의미에서 북한 문화시장에 대한 개방을 의미한다.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남북한 문화의 통합은 문화산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국가간 영역이 실질적으로 개방됨으로써 문화영역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이는 중화권의 한류열풍을 통해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류열풍으로 대만, 중국에서 ‘클론’이 1997년부터 대만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방송사의 가요 차트 상위 10위 랭크되면서 대만에서만 30만장 이상의 앨범이 팔려나갔으며, 베트남에서 방송된 <의가 형제> 이후 장동건의 인기, 1997년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에서 방영되어 큰 인기를 누린 이후 중국 케이블TV의 ‘아스팔트 사나이’, ‘달빛가족’, 방영, 홍콩의 봉황(鳳凰) TV의 ‘토마토’(SBS), ‘미스터 Q’(SBS), ‘별은 내 가슴에’(MBC) 방영 등의 성과를 거두면서 ‘한류’열풍이 시작되었고, 애니메이션 ‘성춘향전(The Story of Choon Hyan)’이 한미 합작으로 극장용으로 제작되어 수출된 사례를 비롯하여 최근 영화분야의 경쟁력이 생기면서 문화상품의 수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남북의 문화통합은 북한 문화시장의 개방, 남북합작을 통해 해외 문화산업 진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북한이 고립적, 폐쇄적 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북한이라는 새로운 문화시장의 개방을 의미한다. 이 시장은 남한이 독점할 수 없는 개방된 시장이 될 것이며, 북한 문화시장을 두고서 남한을 비롯하여 중국, 미국, 일본의 대중문화가 경쟁하게 될 것이다. 문화시장은 문화적 선점효과가 어느 분야보다 큰 만큼 통합단계에서는 냉정한 시장논리에 의한 접근을 통해 북한의 문화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하

여, 적절한 문화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장점을 가진 문화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통일이후 북한 사회의 문화시장을 지키고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해외진출을 모색하여야 한다.

남한 문화의 해외진출 사례는 최근 한류로 대변되는 중화권의 문화산업 진출을 통해 경험한 바 있으며, 북한 역시, 평양교예단을 비롯한 중앙공연 단체의 해외공연이나 국제영화제 참여 등으로 문화를 통한 대외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최근 남북 합작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덩가>의 해외 수출은 문화산업적 측면의 남북교류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북한의 문예단체 가운데 일부는 적극적으로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협력하여 북한 문예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 6.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 관련 법적, 제도적 측면은 문화예술의 개념과 규정을 분명히 함으로써 실제적인 접근을 통한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진흥에 목적이 있다. 실질적 교류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교류의 내용과 교류의 주체로서 역할보다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주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문화예술 교류에서 정부는 문예진흥과 문화교류, 문화인력 양성, 관련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지원 등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즉 하드웨어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자체의 교류를 뒷받침하는 선에서 머물러야 한다. 정부차원의 개입은 문화예술 교류의 기본 목적인 정치성 배제, 상호 이해 증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교류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sup>146)</sup>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문화교류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교류지원, 문화인프라 구축, 인력교육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교류내용에 대한 내용 문제는 자율적으로 맡겨야 할 것이다.

146) 이우영,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적 효과,”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와 문화교류」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7), p. 58.

### 가. 교류협력을 위한 안정적 제도 구축

여타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남북문화교류의 문제점은 장기적이고 제도화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문화교류가 추진된다면 단기적이고 이벤트적인 교류, 중복교류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합단계의 문화동질성 회복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교류협정과 같은 합의성의 체결이 필수적이다.

정부 당국간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 교류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교류의 기간이나 횟수를 규정하기보다는 문화예술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상이나 내용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소수의 전문가나 특수한 계층만이 접할 수 있다면 문화교류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의식변화를 통한 동질성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당면한 문화적 상황과, 민족적 특수성과 함께 문화적 보편성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정치적 변화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듯이 문화적 동질성을 통한 인류 보편적 문화발전에 남북한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문화적 갈등이나 혼돈, 부작용, 문화적 저항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의 급변이나 급속한 문화적 유입으로 인한 거부감은 통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 당국의 역할은 교류의 촉진과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참여하되, 그 역할을 줄여 나가야 한다.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정착되면서 행정이나 지원 등 공적 기능으로 정부 역할이 축소되어야 하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교류의 주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남북교류 추진과정에서 남한 문화예술의 균형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책의 투명성과 함께 남북한의 문화교류가 남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한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제공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나. 문화통합을 위한 법령정비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정부는 문화통합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여 통일시대의 문화활성화를 위한 법령을 준비하여야 한다. 현재 문화예술 관련 법령은 크게 1) 문화예술 진흥관련 법령, 2) 전통문화 보존관련 법령, 3) 문화산업관련 법령, 4) 문화인프라 관련 법령, 5) 방송언론 등 매체 관련 법령, 6) 기타 문화관련 기관설립 법령 등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법령에다 통합단계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여 문화통합에 대비하여야 한다. 기존의 법령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예술 진흥 관련 법령

문화예술 진흥 관련 법령에서는 교류촉진과 지원을 위한 법령, 북한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증대를 위한 법령, 북한의 우수 문화 해외 소개를 위한 세부적 지침 마련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해외공관이나 해외 문화 거점을 활용하여 남북한 문화를 함께 소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북한의 우수 저작물에 대한 번역, 출판, 소개를 위한 공동기구의 설립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문화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 (2) 전통문화 보존관련 법령

전통문화 보존관련 법령에서는 전통사찰, 유적지,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 방침과 정책은 해방 직후부터 북한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민족문화건설’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이 원칙에 따라서 문화재는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문화 유적 및 유물을 일컫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원칙하에 문화재는 국보급, 보물급,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호되고 있다.<sup>147)</sup> 북한의 문화유산보호체제는 유형 유물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역

사적 유물이란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역사적 문화유산인 유물인 역사적 기념물(조개무덤, 고분, 성터, 궁궐터), 건조물(사찰, 성곽, 석탑)과 1900년을 기점으로 한 근세이후의 기념물을 지칭하는 유적으로 구분한다.

1900년을 기점으로 한 기념물을 유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북한의 역사관 때문이다. 북한은 조선의 역사성을 부정하고<sup>148)</sup>, 일제시기 항일무장혁명 투쟁에 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천연기념물 관리정책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북한에서 천연기념물은 “학술적 및 풍치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관리하는 대표적인 자연물”<sup>149)</sup>이다. 동식물, 광물, 지질 등 진귀하거나 희소하여 법률로써 지정하여 보존하는 모든 자연물을 총칭한다.<sup>150)</sup> 그러나 북한에서 규정한 천연기념물은 자연물 그 자체의 특성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천연기념물의 대상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역사적 의의가 있는가의 부분이며, 이것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관련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천연기념물은 크게 ‘식물천연기념물’, ‘동물천연기념물’, ‘지

147) 2000년 현재 북한의 지정 문화재는 국보급 50건, 보물급 53건, 사적 73건, 명승지 17건, 천연기념물 445건 등 모두 638건이다.

148) 「조선전사」와 「조선통사」에서 조선시대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세종대왕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판도를 되찾는데서 일정한 작용을 한 봉건국가의 국왕으로, 이순신 장군은 양반지주계급, 무관으로 봉건왕권에 충성하며 양반지주계급을 위해 싸운 장군으로, 퇴계 이황은 관념론적이며 반동적인 철학으로 이조봉건통치배들의 사상적 도구로 복무하면서 당시 인민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발전과 창조적 활동에 해독을 끼친 학자로, 율곡 이이는 16세기 양반 계급안에서 일부 진보적인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표한 사상가로서 철학사상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로서는 일정한 진보성을 가지고 있었던 학자로 평가한다.

149) “제1장 천연기념물과 그 대상,” 「천연기념물편람」(농업출판사, 1994), p. 9.

150) 식물천연기념물은 천연기념물나무를 비롯하여 ‘특산식물 천연기념물’ 등 13가지로 세분한다. 동물천연기념물은 짐승류, 황새와 두루미류, 바다새와 물새류, 기타 새류, 물고기류와 조개류, 광서류와 파충류, 곤충류, 집짐승류 등 다시 8가지로 세분한다. 지리천연기념물은 기묘한 바위, 바다기슭의 경치, 폭포, 담소, 호수, 동굴, 명소와 지형체 등 7가지로, 지질천연기념물은 화석, 암석과 광물의 구조, 지층의 구조, 온천과 약수 등 4가지로 구분한다.

리, 지질 천연기념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희귀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선정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준보다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와의 연관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남북한 사이의 전통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한 문화보존위원회'의 설치로부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금 조성, 문화보존 관리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 (3) 문화산업관련 법령

문화산업관련 법령에서는 북한의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는 북한의 학술저서나 문화예술 작품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도가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이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북한 연구물의 무단 복제나 상호도용, 이용에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개인의 창작보다는 집체창작이 중심이어서 저작권 협의의 대상이나 저작물의 범주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에서는 교류의 대상의 저작물이나 이용 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예방할 수 있는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공동협의위원회'를 비롯하여 문화산업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남북한 문화산업교류 촉진법'이나 '남북한 영화·영상 제작지원금' 같은 지원제도 정비, 공동제작단지 건설을 위한 제작, 조세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문화인프라 관련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 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분류를 그 기능에 따라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정보제공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문화시설 대신 '문화교양 건물'로 규정하고 관람형의 문화교양건물(극장, 영화관 등), 학습형의 문화교양건물(인민대학습당, 도서관 등), 전시형의 문화교양건물(박물관,

전람관), 소조운영형의 문화교양건물(문화회관, 궁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51)</sup>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 따라 문화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교류의 활성화를 지원과 북한 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과 교류 관련 법령을 규정해야 한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기관 사이의 자료 이용과 공개, 소장자료의 확대, 문화인프라를 이용한 공동 문화행사 개최, 공동전시회 개최 등의 공동주관 행사를 진행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함께 문화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과 남북한 상호 문화적 체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인프라 관련 법령의 경우 특히 혁명교양시설인 혁명유적지나 혁명사적지 등 남북한의 역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5) 방송매체 관련 법령

동서독의 통합과정에서 보듯이 방송분야의 교류는 남북한 주민들에게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동시에 방송은 남북한의 통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방송매체 관련 법령에서는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으로서 공적 책임과 임무를 다할 수 있으며, 방송을 통한 남북한 주민의 권익보호와 여론 형성과 통일한국 시대의 문화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실질적 통합기간 동안 방송과 언론의 공적인 기능이 특히 중요하므로 공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매체와 채널의 확보하여야 한다.

방송 매체의 중요성은 독일 통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통일 이전 동독은 폐쇄적인 방송정책을 채택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고 방송의 교류

151) 이 외에도 북한에서는 학교·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병원·진료소·요양소와 같은 보건시설, 극장·영화관·문화회관·체육관 등의 문화체육시설, 밥공장·식당·여관·양복점·목욕탕·이발소·미용 등 여러 가지 편의수리시설과 생활편의 및 위생편의 시설을 '문화후생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는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독과 서독은 1987년 5월 6일 “TV분야의 협력을 위한 서독 ARD와 동독 DDR간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12조로 구성된 이 협정은 주요 내용은 상호 프로그램 구입, 상주 특파원의 카메라팀 지원, 공동제작, 상호 정보와 간행물 제공, 상호교류를 위한 대표자 파견, 지속적 교류와 회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통일이전에 방송분야의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실질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통일 후 독일의 공영 방송은 국민통합을 위한 방송 지침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동독의 문화를 보존하고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욕구와 불만을 해소시키고 있다. 이에 비추어 남북한 사이에서 민간방송과 달리 공공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표 10> 통일 이후 독일공영방송의 방송 지침<sup>152)</sup>

기본지침	세부내용
동독지역 문화의 동질성을 보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독의 통합과 동독 지역의 문화보존은 모순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li> <li>- 동독 지역 고유의 문화적 동질성을 보존하는 프로그램 제작 방영</li> <li>- 동독에 대한 유대감 조장이나 강조 태도 지양</li> <li>- 통일 이후 동독인의 피해의식을 과장하거나 일반화시키는 보도 태도 지양</li> </ul>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독 주민들이 한 국가의 소속감을 갖는 데 도움</li> <li>- 상호 선입견 불식</li> <li>- 동서독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시켜 하나의 민족의식을 고취함</li> <li>- 언어통합을 위해 노력함</li> </ul>
상호이해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프로그램 더 많이 방영</li> <li>- 민영방송과 구별되는 높은 질적 수준, 독창성, 흥미 등의 요소가 충족된 방송 개발</li> <li>-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상이한 시청자 만족</li> </ul>

152) 이 부분은 김영한, “남북한 사회통합의 원칙과 방향” 「남북한의 사회·문화, 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문화방송, 1997.1), pp. 118-119를 정리한 것임.

## (6) 문화정책·연구 기관 설립 법령

‘문화정책·연구 기관 설립 법령’은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예술을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의 연구기관이나 문화예술진흥 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령정비이다. 통합에 대비한 문화정책으로부터 세부 기술적 교류에 이르는 수직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 7. 실질적 통합단계의 세부적 문화교류 협력방안

앞서 제기된 전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 문화교류와 통합 관련한 지원은 크게 국가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원과 민간산업적 측면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단체의 성격 단체는 통일한국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면, 애니메이션이나 보석화, 도자기 등의 분야는 문화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영화촬영소, 교예단, 국립연극단, 국립인형극장, 국립희극극단 등의 단체는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민간단체로 전환에 대비한 공동제작, 합동공연, 순회공연에 대한 협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방향은 ‘작품창작지원’, ‘남북교류협력지원’, ‘대외교류 지원’, ‘북한 내 인프라 구축지원’, ‘문화예술인 교육’, ‘문화산업관련 종사자 교육’, ‘문화산업적 측면의 지원’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문화통합의 지원 주체는 국가기관, 국가산하단체, 기업이 될 수 있으며, 지원방법으로는 실질적인 예술인에 대한 인건비지원, 창작과 교류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행사공간 활용지원, 세제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가가 직접 개입할 부분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단체의 교류와 창작, 남북한 해외 순회공연, 북한내 문화인프라 구축, 문화예술인 교육 등의 분야이며, 준공공기관의 지원은 작품창작지원, 남북한 내 합동공연, 남북한 문화단체의 교류 지원 등이며, 기업을 통한 우회적 지원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세제지원의 방법이 가능하다.

## 가. 통일국가의 국가이미지 제고 프로그램지원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러 남북한 대립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통일국가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주변국에서 우려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는데, 문화예술 분야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문화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가 중요한 다른 이유는 한 나라의 이미지가 곧 그 나라의 상품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이미지는 특정한 어느 한 분야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포함하여, 미디어, 협력관계, 상호교류 등 국내외 전반적인 제반 활동을 통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이나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해외홍보는 국정 홍보처의 하위 기구인 ‘해외 홍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외 홍보원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국제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현지의 지도층과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 10개의 문화원과 19개 도시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화홍보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전시실·자료실 등을 갖추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여 문화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남북한 공관의 잉여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공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남북한 합동공연’, ‘해외 한국학 연구기관의 전문가 파견’ 등이 가능하다. 남북한 합동공연의 경우 남북한의 문화예술 단체 가운데 국립단체의 성격이 농후한 대표적인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다. 이들 단체에 통일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합동공연, 순회공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데, 합동공연은 남북한이 하나의 공연물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것으로 ‘1990 송년 통일음악회’가 그 예이다. 프로그램의 형식은 음악, 무용, 합창, 막간극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이며, 민족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지향적이고 평화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합동공연은 남북한의 국가적 행사나 명절을 중심으로 한 국내 공연, 해외동

포 공연을 비롯한 국제적인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해외 합동공연이 될 수 있다.<sup>153)</sup>

‘해외 한국학 연구기관의 문화예술 전문가 파견’ 사업은 통일한국에 대한 관심을 국제적 학술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통합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한국학에 대한 해외 연구기관이 설립 될 것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한국의 위상을 홍보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협력관계가 증진됨에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한국학을 배우려는 학생과 국제교류를 위한 센터가 있다. 한국학을 배우려는 이들에게 한국어와 더불어 한국학 강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국학 전문강사 풀(pool)제를 도입하여 각 대학간 협동강의 개발이 필요하다. 각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강의의 전문성을 꾀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전문기관에서 일부 과목이나 일부 시간을 대행하거나 방학 기간을 이용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홍보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지원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교환공연이나 순회공연을 통해 상호 문화에 대한 접촉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제기된 문화예술의 역할은 통합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회 전문가가 통합에 따른 일정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관이 주도할 경우 정부주도시 예산안이나 부처간 협조가 용이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담당할 수 없다. 또한 작품의 수준 등 내적인 부분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

153) 이 경우 남북한이 중복된 해외 공관들의 협력을 통한 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의 문화가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해외공관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하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문화홍보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홍보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와 달리 통합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창작에 대한 직접적인 간여보다는 지원을 통한 창작 방향의 유도하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으로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개인별 창작지원은 작가, 시나리오, 영화문학 등의 문학분야의 창작 지원, 문화단체 차원의 지원은 공연, 교류,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등이 될 것이다.

#### (1) 공연단체의 교환공연, 순회공연

교환공연은 1985년에 이루어졌던 남북한 예술단체의 교환공연처럼 남북한 예술단체들이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순회공연은 교환공연의 폭을 넓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대표적인 예술단체가 상호 체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부터 이질적인 공연을 통해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광복절, 추석, 한식, 단오 같은 민속명절이나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는 공연으로서 주요 공연 종목은 클래식공연, 무용공연, 전통문화(민요, 판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들 공연에 대한 교환공연과 순회공연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사업이므로 초청과 공연장 사용에 대한 제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문화교류 초기단계에서는 중앙문예단체를 중심으로 특정사업이나 행사를 중심으로 민족적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의 교류는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러서는 주요 단체의 순회 공연으로부터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연으로 확대되며, 프로그램도 한층 확대될 것이다. 지방단체의 공연이나 남한공연단체의 북한 순회 공연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 (2) 방송프로그램 제작

현재 남북한의 방송교류는 KBS의 북한스페셜 취재보도, 백두산 다큐

방송, 민족문화유산 공동 제작, EBS제작 교육방송 북한 상영, Q채널의 두만강 생태 다큐 등 자연생태 분야로 제한되고 있으나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남북한 배우가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이 추진될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통일이후 남북한 방송시스템의 통합과 연계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2002년 8월의 남북한 방송교류회담에서 방송협력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KBS, MBC 등의 방송교류 사례를 통해 방송교류의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sup>154)</sup>

방송의 특성상 국경이 존재할 수 없으며, 치열한 경쟁 속의 세계화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채널화 현상을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위성방송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 변별되는 편성전략이 필요하면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방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시청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편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오락과 함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도되어야 한다. 매체의 일부분을 통일대비 채널로 전환하여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방송프로그램은 남북한 내 방송프로그램 활용, 대외 수출을 통한 통일국가 이미지 홍보의 두 측면에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통합단계를 거치면서 북한의 개방된 문화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중국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경험이 풍부하며, 거부감도 없어, 일본이나 미국의 방송보다는 시장경쟁력이 더욱 강할 수 있다. 남북한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문화시장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방송은 더욱 다채널화 될 것이며, 다양한 방송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기호에 맞는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 이 경우 남한의 방송이 직접하기보다는 북한이 방송의 내용을 제공하고 남한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154) 방송교류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방송 송출방식의 경우 남한이 NTSC 방식을 북한이 PAL 방식이었지만 2002년 방송교류와 부산아시안 경기대회에서 NTSC 방식으로 송출한 선례가 있음.

다음으로 방송프로그램은 대외 수출은 21세기 문화정보화 시대에 한국을 알리고 우리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상품으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은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세계에 있는 다양한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질과 양을 높이고 전략적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출프로그램의 사전기획, 제작 방식의 선진화, 전략적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 애니메이션과 같은 수출전략 장르와 상품 개발, 국제공동 제작 등과 같은 전략을 준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북한의 애니메이션 분야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공동협력은 효과적인 상품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 (3) 문화 인프라구축

문화인프라 구축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하나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진흥에 필요한 분야이다. 북한의 영화촬영소, 문화예술 교육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문화향수의 기회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인민들 사이에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나 도서관, 박물관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전파의 거점 기지는 대규모 공연시설보다는 다목적이면서 소규모로 생활 친화적이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과 같은 문화보급 거점 기지의 설립이 필요하다.

### (4) 기타 : 전시회·문화관련 체험 관광

사진이나 미술 분야로부터 역사, 문화재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남북한 사이에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순회전시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국토순례 대행진과 같이 남북한의 유적지를 답사하거나 문화프로그램은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 다.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협력 지원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질적인 문화라고 할지라도 남북의 장단점을 취합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음. 따라서 다름의 문화를 전개해왔다고 해도, 이는 극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완화, 또는 적응의 대상이거나 서로의 장점을 인정함으로써 통합의 필요성을 줄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문화산업 분야는 통합과정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 단계에서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북한의 문화예술단체는 국립단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도안,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산업과 연관된 분야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교류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보다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계발하여야 한다.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문화교류는 단계별, 분야별, 규모별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가능하므로 단계에 맞게 방안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표 11> 단계별 문화산업 교류 방안

단기	중기	장기
저작권협약 기존 자료교환 공동 제작 참여 제작 협조 상호행사(영화제 등) 참여	공동창작 분야별 인적 교류 해외시장 개척	관련 인프라 공유 신규 인프라 구축 기술자 장기교류 관련 분야 장기교육 문화자원의 상품화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는 분야이며, 남북한 공유의 문화컨텐츠를 공유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로부터 대규모 합작투자까지 협력의 폭이 넓으며,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IT·CT 분야의 협력은 남북한 공유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남한의 첨단 산업

과 북한의 우수한 인적 자원의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비정치적 분야로 이념적 이질감이 적다는 점이다. 남북문화 교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념적인 문제이다. 이 분야의 이질감은 교류가 성숙된 단계에서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다. 전통을 소재로 한 문화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통합한다면 이러한 이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sup>155)</sup>

둘째, 남북한이 공유한 문화컨텐츠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전통놀이나 설화 민단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 개발, 남북한이 단일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번역 소프트웨어나 음식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북한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적 고증과 북한의 문화예술 속에 표현된 역사이야기나 음악, 복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001년 (주)중원기업은 북한의 체질진단 소프트웨어 ‘금빛말 3.0’을 판매하였으며, 삼성전자는 ‘류경바둑’, ‘류경장기’, ‘금강산’, ‘조선료리’, ‘천하제일강산’ 등의 북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였던 것은 교류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셋째, 첨단 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기술력이 적다는 점이다. 북한의 산업기술이 업종에 따라 남한에 비해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뒤져있다. 특히 자동차 전력 조선 화학섬유 방직 제지산업의 기술적 격차가 가장 큰 반면, 컴퓨터, 비철금속 분야는 비교적 기술적 격차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56)</sup> 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 1960년 <금

155) 현재 우리 게임시장에는 한국적 소재로 출시한 게임과 우리 기술로 개발된 상품들이 있다. 삼성에서 개발한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인 <충무공전>은 왜적에 맞선 이순신 장군을 모델로 하여 개발된 게임이며 동서게임 채널에서 개발한 <광개토대왕>은 광개토대왕의 동북아 정벌사를 게임으로 만들어 역사적 교육 효과와 재미를 동시에 맛보도록 했다. 그리고 1993년 7월 SKC 소프트 랜드에서 발매한 ‘게임 홍길동전’이다. IBM PC로서는 최초로 상용소프트웨어로서 한글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게임 홍길동전’은 2편까지 제작되었다. 1995년에는 (주) LG 소프트웨어에서 게임 ‘돌아온 영웅 홍길동전’을 제작하였다. 고소설 ‘홍길동전’의 소재로 8단계의 레벨을 두고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여 악을 무찌른다는 내용이다.

도끼 은도끼>를 시작으로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시작하여 1980년대말부터 프랑스와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한 실례가 있어 이 분야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은 기본 시설인 통신망의 미비, 장비의 부족, 그리고 국가 정보독점 등으로 인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그 동안 하드웨어 분야에서 단기적 발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 지원한데 힘입어 90년대 중반 이후 소프트웨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57)</sup> 최근 국내 기업의 북한 소프트웨어 수입이 늘어난 것도 북한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도 이러한 기술적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통합에 대비하여 북한 문화예술 단체 가운데 일부를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협력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숙련된 양질의 인력을 결합하여, 문화산업기술을 활용하고, 생산기지 확대 및 이전을 통해 민간차원의 협력과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자체의 시장을 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및 세계 시장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가능하다.

구체적인 방향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 문화 단체의 공연이다. 북한의 보천보전자악단, 왕재산경음악단이나 평양교예단의 공연은 일반 대중들 특히 청소년층에게 상호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협력과 공연이 지원되어야 한다. 전통문화나 클래식 공연과 달리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공연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공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

둘째, 영화·애니메이션 제작이다. 남북한 협력이 가장 높은 분야로 북

156)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한국경제』 2001. 5. 28.

157) 북한의 컴퓨터 정책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강조한다. 원도우즈용 조선글 처리프로그램인 ‘단군’, 문서편집프로그램인 ‘창덕 5.0’ 등의 30여종 SW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1998년 조선컴퓨터센터에서 개발한 온라인 바둑 프로그램 ‘은별’이 일본에서 열린 포스트배 세계컴퓨터 바둑대회에서 1위 차지하기도 하였다.

한의 영화시설이나 전문 인력을 남한의 기술력과 결합할 경우 문화산업 분야에서 효과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현재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결합한 공동창작으로부터 기존의 작품 교환, 해외시장 공동 개척,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관련 인적 자원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교류와 협력의 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셋째, 게임 등 IT·CT 분야 교류이다. 남북한 협력이 가장 높은 분야로 전통문화의 산업화는 다음과 같은 민족문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전통놀이의 게임 실현화는 오락적 요소와 교육적 요소의 적절한 결합을 통하여 오락적 요소를 확대한다. 평양예술단에서 공연하는 민족교예, 북한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류경바둑’, ‘류경장기’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문화상품 개발, 전래 고전소설이나 전설, 민담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 전통무예를 바탕으로 한 상품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건축, 복식 등 남북한 공유의 콘텐츠를 응용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개발 등에서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 바. 단위별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 방향

남북한 예술단체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지원하기보다는 예술기관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서 국가적 차원, 공기관적 차원, 민간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개인별 차원으로 구분하여 교류하는 것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단위의 교류와 협력이다. 문화예술 단체로서 민족적 특색이 강한 단체나 남북한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예술단체간의 교류에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의 주요 중앙 단위의 예술단체인 ‘조선국립민족예술단’, ‘조선국립교향악단’, ‘만수대예술단’, ‘윤이상음악연구소’ 등의 단체는 이와 걸맞는 규모와 성격의 단체간 교류를 지향해야 한다. 국립교향악단의 경우에는 ‘KBS교향악단’과 같이 국립교향악단에 준하는 단체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들 단체간의 교류는 주로 국가의 이미지 제고나

국가의 주요 행사를 기점으로 남북한 문화의 대표적인 차원의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준공기관으로서 교류 협력이다. 순수예술 분야나 북한의 특수한 분야는 문화관련 산하기관으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이다. 국가 차원의 교류에 준하는 교류와 협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북한의 기관으로서 만수대창작사의 조선화창작단을 비롯하여 조각, 공예분야, 조선수예연구소, 고려미술창작사,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등의 경우이다. 이들 기관의 교류는 공공적인 특성에 맞추어 공동창작과 전시회, 작품전 등의 교류가 가능하며, 조선4·25영화촬영소 등 영화촬영소의 경우 공적 기능의 영화제작이나 다큐멘터리 등의 분야와 극영화 촬영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남북한 단체의 공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상업화된 특성을 결합하여 정기적인 교류보다는 교류의 성격과 규정을 협약에 의한 교류, 특별한 목적에 따른 기획 교류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단체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이나 세계 지원 등을 통해 남북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왕재산경음악단, 보천보전자악단과 같은 전자음악단, 미술에서의 선전화, 조선보석화 분야, 영화에서 애니메이션 분야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통해 직접적인 교류 지원보다는 문화산업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교류 자체보다 문화산업의 직접적인 성과에 목적을 두고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가능한 분야이다.

문화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캐릭터개발, 공동창작, 해외진출 등에서 남북한의 기술, 경험, 자본, 노동력, 산업 차이 등의 현실문제를 고려하더라도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 민간단체의 교류에 중심을 두는 것으로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한 사이에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지원이다. 통일한국 시대의 문화예술은 지역 문화와 중앙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동질성이 높거나 지역간 교류가 추진된 지방자치단체간의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한 강원도나 접경지역, 과학기술단지로서 평성과 대전, 남북 교류의 창구로서 인천과 남포 등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지역간 교류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교류를 활성화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타 목적에 포함된 종합적 차원의 교류 협력이다.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통합단계에 이르렀으나 국사분야와 같이 통합직전까지 기관 단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류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단체별 교류보다는 다른 사업을 통한 우회적인 교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선인민군 산하 예술단체, 보안성 산하예술단체, 기동예술단 등의 예술단체는 단체 자체간의 교류보다는 2002년 아시안 게임의 북한 응원단의 주축이었던 인민보안성 여성취주악단의 거리공연과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교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섯째, 개인적 차원의 교류이다. 시인, 소설가 등의 작가, 영화문학가, 대표적인 예술가 등의 경우에는 작품집 발간, 개인전 등의 방법으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인 분야인 분장, 무대미술, 촬영, 컴퓨터 그래픽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교육은 향후 남북한의 방송, 영화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 VI. 요약 및 결론

### 1. 요약

#### 가. 남북한 문화예술의 구조적 분석

□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성은 한반도에 지난 50여년간 상응하기 어려운 두 사회체제의 존립과 근대화에 따른 사회구조 및 문화 변화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남한 체제와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체제간에 체제상응성이 전혀없다는 사실이 문화적 이질성의 심화를 이끈 한 조건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음.

□ 분단 이전의 상태인 과거의 공통기준점에서 보면 북이 남과 다른 만큼, 북에게는 남이 달라진 것으로 비칠 것임. 즉 이질화의 상대성임. 예컨대 남한은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전통문화를 지속시켜 왔으나, 공업화의 과정에서 전통문화의 변질과정을 경험하였음.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는 내면적인 전통문화의 변형을 의도적으로 진행하여 왔음. 남한이 형식적인 것으로 전통문화를 변형시켜 왔다면, 북한은 내부에서 외형으로 전통문화를 변질시켜 온 것임.

□ 객관적으로 보면 남북의 이질성의 형성은 남과 북 사회의 공통적이고 동일한 모습임. 그 변화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제도와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건 또는 근대화의 정도에 따른 결과이건, 사실상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신도 이질화의 과정을 걸어왔음.

□ 우선 이념적 차원에서 남한은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설정하였음. 이에 따라 문화

영역에서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비교적 약하게 작용하고, 되도록 문화 현상을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함. 반면 북한은 집단주의와 획일성을 특징으로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토대 위에 수령과 노동당이 문화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를 선택하여 집행해 왔음. 여기에 강력한 정책기구를 필요로 함. 남한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제도와 기구들이 북한에서는 중앙권력, 특히 1인 중앙집권의 경향을 지님으로써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됨.

□ 이념과 제도는 문화예술, 즉 심미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침. 문화예술의 가치지향의 차원에서 보면, 남한의 문화예술은 다양성과 상대적 자율성 보장을 큰 특징으로 함. 그러므로 외현적 차원에서 남한의 문화예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현실변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함. 또한 서구의 새로운 사조를 수용하여 문화예술적 형식과 내용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속에서 도덕주의와 유희주의는 때로는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함.

□ 북한의 경우는 김정일의 주도로 문화예술이 지향해야 할 가치지향이 이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즉 김정일의 「주체문화론」, 「영화예술론」, 「미술론」, 「연극예술론」이 상징적 차원의 경직적인 구조를 형성함. 그리고 이러한 주요 가치지향을 기반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작가동맹이나 예술가동맹의 구성원들에 의해 구체적인 문학예술의 형태로 나타남.

□ 주민들이 심미적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 향수 또한 이질화의 양상을 보임. 현재 남한의 문화생활, 특히 여가문화는 여가의 상업화 현상, 계층분화현상, 개별화현상, 공동체적 생활문화의 특성, 외래 여가문화의 추종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하였음. 여가 개별화 현상은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으로, 경제적으로는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뒷받침되며 대표적인 활동에는 텔레비전 시청이 있음.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

겉으로는 문화생활에 정치생활, 경제생활과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화예술정책은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치(당)와 경제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문화향수 또한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지 못함.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문화생활은 집단주의적 성격, 일종의 지속적인 전시동원체제하에서의 문화생활 등을 특징으로 함.

□ 이질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공식적인 체제가치가 기계적으로 주민들에게 내면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임. 다른 말로 하면 문화예술의 부분에서는 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에 영향을 받는 측면과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측면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리고 이것은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 발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심미적 문화의 경우 남북한사회가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화예술의 경우 많은 이질화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심미적 문화 전체가 완벽한 이질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님.

□ 남북한 문화가 전통적인 측면에서 동질성이 있고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질성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주로 70년대에 남북한 냉전체제하에서 정립된 남북한 문화에 대한 시각에 기초함. 그러나 남북한 문화에 있어 전통적 측면에서만 동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질성만이 있는 것도 아님. 나아가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음. 마찬가지로 남북의 이질적 측면, 즉 '다름'일지라도 양자의 화해협력과 통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이는 '긍정적 다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임. 대표적으로는 음악, 무용, 연극, 미술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문화예술의 갈등 양상

□ 남북한이 제도적, 영토적, 법적 통일을 이룬 후 본격적인 문화예술 부분의 통합이 시작될 것임. 그러나 남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속에서 오랜 동안 문화예술을 전개하여 왔으므로 여러 부문에서 갈등이 발생할 것임.

- 첫째로, 문화예술의 이념과 제도의 상이성으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음. 특히 단체내 노동당 소속의 핵심 요원들은 자신의 지위와 소속 문제로 갈등을 겪게될 것임. 아울러 기존에 존재하던 북한 지역의 상훈 제도는 통일한국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로부터 받는 상훈보다는 여러 단체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에 출품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됨으로서 작가나 예술인의 지위가 상승하는 제도로 변하게 될 것임. 기존의 북한의 상훈제도는 폐지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북측의 문화예술인들은 대거 실직상태에 놓여 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임. 통일 시 문화예술 교육분야에서 남한의 현 교육제도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에 북한지역 주민들은 통일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북한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원하는 인구는 그만큼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임. 또한 문화예술 부분의 정규교육 이외에 사교육에서도 남한지역 학령아동들에 비해 북한지역 학령아동들이 기회가 적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특히 취학 전 아동에게 중요한 타격이 될 수 있음.

- 둘째로, 문화예술의 외현적 측면의 갈등을 들 수 있음. 남북한 문화예술의 수준 차이가 심화됨에 따라 북한 출신 예술가들은 변화된 사회구조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화예술부분에서 중요한 장르로 취급했던 '수령'이나 체제 우월성, 우상화 관련 문화예술작품들은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하게 될 것임. 문화예술 부문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의 경우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같은 외래어를 쓰더라도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 한자어를 한글로 풀어쓰는 경우,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에서 사용되는 각종 전문적인 지위에 대한 명칭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간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 예술인들의간의 갈등 측면에서 보면, 통일 한국에서 서구의 다양한 문예사조와 기법에 익숙한 남한 예술인들은 통일한국에서 북한 예술인들을 열등하게 취급하려 할 것임. 창작에서든 기능에서든 남측 예술인들은 북한측 예술인들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냉소적 태도를 보일 수 있음. 이러한 지금 현재 남한 사회에서 활동하려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실제 겪는 일들임. 또한 남한의 문화예술에 맞게 스스로 노력해야 하지만, 북한 예술인들은 열등감이나 남한 동료예술인들의 냉소적 태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지니게 됨으로써 양측 예술인간의 갈등이 예상됨.

□ 남한의 문화예술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개인의 소유욕에 대하여 북한 문화예술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임.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은 전체나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의식이 강하나 순응적이고 타율적인 획일적 사고양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것임. 반대로 남한의 문화예술인들에게서는 개인적 자유의식을 기반으로 자아의식과 자기주장이 뚜렷하나 개인중심의 이기주의와 자유로 포장된 방종주의를 보일 것임.

□ 마찬가지로 수령의 절대권력하에 구축된 전체주의적 당관료제도와 이에 기초한 문화예술 관련 제도에 익숙해 진 북한 예술인들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며 부단한 경쟁을 통하여 자아를 개발하여 온 자주성이 강한 남한 문화예술인들과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기계적으로 순응하여 온 수동성이 강한 북한 문화예술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집합적 정체성은 물론, 개인적인 자기 정체성까지도 동요될 수 있음. 더욱이 남한이 우세한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배적 위치에서 통일과정을 주

도할 경우 남한의 문화예술인들이 일방적인 우월 의식을 가짐으로써 북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입히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문화 통합에 역행하는 저항 문화를 양산할 수 있음.

□ 문화향수 차원에서도 일반 주민들간의 갈등이 예상됨. 특히 북한사회가 동원이나 ‘집단주의 원리’ 아래 움직여지기 때문에 통일 한국에서 발생할 일상생활상의 여가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예컨대 북한주민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업,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는 남한 사람들의 생활태도에 대해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것임.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 풍요롭게 물질생활을 하는 남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상대적 빈곤의식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될 것임.

#### 다.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문화예술 통합 방안

□ 통일이란 분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상호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완전한 통합체를 이루는 과정이지 그 자체로서 결과물이 아님. 정치적 차원에서 비록 규범적, 제도적으로 효율적인 통일정책이 추진된다고 해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과 이질감이 정치세력화되거나 갈등으로 남는다면, 통일이라는 의미가 반감될 것임.

□ 문화예술 분야는 정치, 외교, 군사 분야와 달리 하나의 집중된 제도나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님. 문화는 계층별, 직업별,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성이 바로 정치, 경제적 제도 통합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불만과 불안을 수용하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 적응력을 높이며, 이념과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요소임.

□ 실질적 통합단계란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증진되어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하게 추진되는 상황, 통일직전의 상황임. 실질적 통합단계는 현재의 남북교류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문화예술 분야의 장르별, 분야별 독립적 교류가 진행됨.
- 둘째, 교류를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예술인과 예술 작품의 자유로운 가능해 짐. 남북한 사이에 ‘문화예술 교류협정’ 등과 같은 제도가 된 협정이 이루어지고, 현재의 교류상황과는 달리 국가의 통제나 규율이 완화된 상황에서 상호 자료교환, 공동창작, 인적 교육 등의 교류가 진행됨.
- 셋째, 남북한 사이의 방송을 매체가 단일화됨. 특히 공중파나 위성방송의 수신이 자유로와 짐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대중매체가 시간차 없이 공유함.
- 넷째, 북한의 문화시장이 개방되어 남북한과 외래 문화가 수용됨.

□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현상과 동시에 부정적인 현상도 발생할 것임.

- 긍정적 영향 : 정치적 배타성을 극복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줌.
- 부정적 영향 : 상호 문화에 대한 이질감의 확대, 청소년 모방행동에 따른 부정적 인식의 확산, 문화소비력의 차이·문화적응력의 차이에 의한 소외감 형성.

□ 남북한은 오랜 동안 상호 왕래나 상호 문화접촉이 거의 중단되었던 만큼 체제차이로 인한 이질감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사회적 접촉에서 익숙한 기호(약속)와 상징들을 잃어버리고 낯설고, 과거에서 습득한 과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체제 안에서 새로운 체제로 강요당하는 ‘문화적 충격(Cultural Shock)’ 상황은 남북교류를 통해 최소한으로 완화되어야 함.

□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은 상호 이해의 어려움이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문화적 대응력을 높여야함. 남북한 문화교류가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함.

□ 남북한의 통일은 세계역사에서 이념적 냉전의 종말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담고 있음.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통일 한국의 국가이미지, 민족적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분단의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적 정체성 정립해 나가야 함.

□ 실질적 통합단계 문화예술 교류는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화 갈등 해소해야 하고, 통합 문화의 통제와 규율로 인한 문화적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하며, 통합이후 대두될 민족문화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해야함.

동시에 대외 문화유입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남한의 문화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따라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예술 교류와 지원사업은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남북한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분야’, ‘문화산업적 협력을 위한 분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남북 문화교류 사업으로 1) 미래지향적 창의적 통합문화 형성, 2)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기여, 3)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통합, 4) 세계적 보편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통합, 5) 남북한, 해외 한민족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기여, 6) 문화산업적 교류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류 형태에 있어서는 예술기관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서 국가적 차원, 공기관적 차원, 민간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개인별 차원으로 구분하여 교류하는 것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할 수 있음.

- 남북한 문화예술 단체로서 민족적 특색이 강한 단체나 남북한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예술단체간의 교류에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순수예술 분야나 북한의 특수한 분야는 문화관련 산하기관으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이다. 국가 차원의 교류에 준하는 교류와 협력에 대한 지원이 있음. 이 경우 남북한 단체의 공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상업화된 특성을 결합하여 정기적인 교류보다는 교류의 성격과 규정을 협

약에 의한 교류, 특별한 목적에 따른 기획 교류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단체의 교류를 촉진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남북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 문화교류 자체보다 문화산업의 직접적인 성과에 목적을 두고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지원으로, 통일한국 시대의 문화예술은 지역 문화와 중앙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추진해야 함. 지역적으로 동질성이 높거나 지역간 교류가 추진된 지방자치단체간의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목적에 포함된 종합적 차원의 교류 협력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통합단계에 이르렀으나 국사분야와 같이 통합직전까지 기관 단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류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단체별 교류보다는 다른 사업을 통한 우회적인 교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적 차원의 교류로서, 시인, 소설가 등의 작가, 영화문학가, 대표적인 예술가 등의 경우에는 작품집 발간, 개인전 등의 방법으로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음.

- 분야인 분장, 무대미술, 촬영, 컴퓨터그래픽 등 기술 분야의 종사자들의 교육은 향후 남북한의 방송, 영화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

## 2. 결론

문화예술 분야는 정치, 외교, 군사 분야와 달리 하나의 집중된 제도나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문화는 계층별, 직업별,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성이 바로 정치, 경제적 제도 통합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불만과 불안을 수용하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 적응력을 높이며, 이념과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된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문화교류는 주로 특정한 작품이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실질적 통합단계의 문화예술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거시적 차원이란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것인 한반

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일한국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차원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은 세계역사에서 이념적 냉전의 종말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통일 한국의 국가이미지, 민족적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분단의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적 정체성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 속에서 문화예술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화 갈등 해소하고, 통합 문화의 통제와 규율로 인한 문화적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하며, 통합이후 대두될 민족문화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해야한다. 또한 대외 문화유입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남한의 문화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문화예술 교류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분야, 문화산업적 협력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접근은 실질적 통합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가 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보다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문화를 통한 국가적 이미지 제고를 경제산업 활동과 연결시키기 위해 문화적 외교를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문화산업화가 가속되면서 문화산업의 독점이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강태홍. 「금강산 떼다팔면 우리가 더 부자디요」. 서울: 내가사랑하는 책. 199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문학예술사전」.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김경동. 「한국사회 변동론」. 서울: 나남. 1994.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1997.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 서울; 박영사. 1996.

김귀옥, 정영철. “북한 ‘인민’ 생활세계 연구,”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원. 1996.

김도태, 이경화. “통일교육 개선방향: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김정웅.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2) 문학예술작품창」. 평양: 문예출판사. 1992.

김정일. “영화예술론,”(1973. 4. 11).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4.20).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 김정일. 「건축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무용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음악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학성.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 상. 1994.
- 김학성. 「동·서독 인적 교류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현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 사상」. 서울: 한백사. 1988.
- 남기심, 김하수. “북한의 문화어,” 고영근 편. 「북한의 말과 글」.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노동은. 「노동은의 음악상자」. 서울: 웅진출판사. 1996.
- 대륙위원회. 「양안 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한 백서」. 대만 : 대륙위원회. 1995.

도홍렬. “분단 반세기의 남북한 사회변화 비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반세기의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6.

도홍렬, 김남식. “삶의 양식,”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그 삶의 현주소」. 서울: 박영사. 1987.

문화방송. 「남북한의 사회·문화, 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 서울: 문화방송. 1997.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 서울: 문화체육부. 1995.

문화체육부. 「남북 문화교류 토론회」. 서울: 문화체육부. 1996.

문화체육부.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서울: 문화체육부. 1996.

문화체육부. 「북한식 문화예술 창작 방법론 연구」. 서울: 문화체육부. 1998.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8-1999」.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박명진. “북한영화의 특성과 그 실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편.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0.

박병련. “남북한 도덕규범관의 갈등양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박병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서울: 아태평화재

단. 1995.

박상천 외.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박상훈, 리근영, 고신숙.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박태상. 「북한 문학의 현상」. 서울: 깊은샘. 1999.

사회과학출판사편.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서연호·이강렬. 「북한의 공연예술(Ⅰ)」. 서울: 고려원. 1990.

서연호·이강렬. 「북한의 공연예술(Ⅱ)」. 서울: 고려원. 1990.

서영진. 「사회주의 개혁과 북한」. 서울: 아시아문제연구소. 1992.

손기웅, 길태웅. “북한 노동자문화 연구,”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에베레트 트라이안스. “민족통일: 그 문화적 측면,” 「통일정책」. 제4권 4호. 1978.

오기성. “문화의 구조분석에 의한 남북한 문화통합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오기성. “문화통합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내용의 개선방안 연구,”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종합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서울: 통일원.

1998.

오기성. 「남북한문화통합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오기성.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연구,” 「통일정책연구」. 10권 1호. 2001.

오양렬. 「남북한 문예정책의 비교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1998.

유민영. “해방 50년의 회곡,” 유종호 외. 「한국현대문학50년」. 서울: 민음사. 1997.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 연구원. 1993.

윤범모. “북한미술의 특징과 조선화의 세계,” 「북한연구」. 제4권 2호. 1993.

윤재근·이상호·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I)」. 서울: 고려원. 1990.

윤재근·이상호·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II)」. 서울: 고려원. 1990.

이강렬. “북한연극 50년, 회고와 전망,” 「북한문화연구」. 제3집. 1995.

이광규. 「새로운 민족관의 수립을 위하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

이기영. “가정관리자원의 변화,” 이기영 외. 「광복 후 가정생활의 변천」.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6.

- 이병욱. “북한무용의 이념과 실제,” 「북한연구」. 제4권 2호. 1993.
- 이상면. 「독일의 예술 - 분단에서 통일로」. 서울 : 시공사. 1996.
- 이서행. “남북한 사회관 및 일상적 사회생활 관련 가치관의 갈등양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민족 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이영화. 「평양 비밀집회의 밤」. 서울: 동아출판사. 1994.
- 이영희. “남북한 정치사회상의 이질감과 극복,” 「남북한 이질감과 그 극복 전망」. 효성여대 현대사상연구소 주최 1993년 통일문제 교수 학술 세미나. 1993.
-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8.
- 이장호 외.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 이춘길 외. 「김정일의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 이헌경, 최대석. “남북한 문화예술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임채욱. 「남북한 접촉과 문화변용」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 임채욱 외. 「북한 주민의 문화향수 실태 연구」. 서울: 문화정책개발원. 1996.

-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제와 문예이론」. 서울: 역락. 2002.
- 정병호 외. 「북한의 공연예술Ⅱ」. 서울: 고려원. 1991.
- 정재훈·조유진 외. 「북한의 문화유산(Ⅱ)」. 서울: 고려원. 1990.
- 정재훈·이용조 외. 「문화유산(Ⅰ)」. 서울: 고려원. 1990.
-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 현대사」. 서울: 민연. 2002.
- 정홍익.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예술논총」. 제5집. 1993.
- 제성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조한범.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러시아 사회변화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조한범.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주강현. “북한 주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주강현. 「북한의 우리식 문화」. 서울: 당대. 2000.
- 차인석. 「사회인식론-인식과 실천-」. 서울: 민음사. 1992.
- 최대석.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 「통일과 북한사회」.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최척호. 「북한영화사」. 서울: 집문당. 2000.

최춘흠.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8.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3.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북한핸드북」.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남북문화교류 방안」.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한국비평문학회편. 「북한 가극, 연극 40년」. 서울: 신원문화사. 1990.

KBS 아름다운 통일 <http://tongil.kbs.co.kr/>

통일을 대비한 21세기 한국미술의 전망;  
<http://art.joongang.co.kr/199912/art140.html>.

## 2. 외국문헌

FBIS-CHI-95-117(9 Jun. 1995).

Hwa Yol Jung. *Rethinking Political Theory : Essay in Phenomenology and the Study of Politics*. Athens: Ohio Univ. Press. 1993.

J. W. Berry.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 a*

*conceptual overview. Berwyn, PA : Swets North America. 1998.*

Korte, Karl-Rudolf. "Literatur,"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Parkes, Stuart. "The Politics of Literature : Writers, Intellectuals and German Unity." *German Politics* Vol. 2. no. 3. 1993.

Plock, Ernest D. *East German - West German Relations and the Fall of the GDR.* Boulder : Westview Press. 1993.

Pulzer, Peter. "Unified Germany : A Normal State?." *German Politics* Vol. 3. no. 1. 1994.

Rexin, Manfred. "Massenmedian in der DDR," *Deutschland Handbuch* München : Carl Hanser Verlag. 1989.

"Articles Reviews Cross-Strait Exchanges." FBIS-CHI-95-117(9 Jun. 1995).

"CHINA: Review of Cultural Exchanges with Taiwan." FBIS-CHI-97-021(28 Dec. 1996).

"PRC Reportedly to Readjust Taiwan Policy." FBIS-CHI-94-154(24 Jul. 1994).

「聯合報」(1994. 7. 24).

「人民日報」(1996. 12. 28); (1999. 1. 30); (2000. 5. 20); (2000. 5. 29); (2001. 2. 8); (1995. 6. 9).

# 부 록

## 부록1.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 방안 자료

&lt;표&gt; 북한의 주요 출판사와 출판물

출판사	주요 출판물	기타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선집’(98년 현재 21권), ‘인민들속에서’(98년 현재 56권), ‘정치지식’(월간), ‘김일성선집’(시리즈),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자료집’(시리즈),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시리즈), ‘인민들속에서’(99.6현재 54권)	1945년 10월 23일 북조선로동당출판사로 처음 설립, 1948년 10월에 조선로동당출판사로 개명 도동당 직영의 최고 권위의 출판사로 로동당 관련물과 수령노작을 출판한다. 편집위원회와 편집국, 편찬국, 총무국의 3개 국이 있으며, 그 아래에 편집부, 노작부, 문헌부 등의 부서가 있음.
국립출판사	북한 내각에서 사용되는 출판물 발간	1948년 9월 창립 정무원 직속 출판총국이 관장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연구’(계간), ‘조선어문’(계간), ‘조선고고연구’(계간) ‘리조실록’, ‘조선문학사’(시리즈), ‘팔만대장경해제’, ‘조선말대사전’, ‘조선풍속사’, ‘김일성주의혁명론’	1964년 2월 과학원으로부터 사회과학원이 독립하면서 설립됨. 사회과학 관련 도서 출판
금성청년출판사	‘혁명의성지 백두산 밀영’, ‘검쇠이야기’, ‘그림책/피바다’, ‘다시떠나는 발길’, ‘꽃전설집’, ‘만고의 령장’, ‘특수전선’, ‘백악관 비사’, ‘백두의 령장’	1946년 4월 20일 창립, ‘청년사’로 창립된 이후 ‘민주청년사’, ‘민정출판사’, ‘로동청년출판사’(1965년 5월), ‘사로청출판사’로 개칭과정을 거쳐 1975년 3월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바뀜. 사상혁명과 관련된 도서 전문 출판사로 초등 및 중등학교 교재와 교원참고 자료 그리고 사회교육용 자료들을 발간. 1961년 12월 28일에 고등교육도서 출판사가 창립될 때까지 대학교재까지 출판하였음.
문학예술종합출판사(구 문예출판사)	‘조선문학’(월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99.9 현재 누계 622호), ‘조선예술’(월간), ‘청년문학’(월간), ‘시문학’(계간), ‘극문학’(계간), ‘아동문학’(월간), ‘조선문학예술년감’(연간) ‘불멸의 력사’(총서), ‘피바다’ 등 각종 문예관련 선집, ‘문예상식’ 등 단행본	1946년 9월 창립 문학예술 관련 전문 출판사, 1961년 3월 문학예술총동맹 결성과 함께 문화예술 관련 출판사인 작가동맹출판사, 국립문예출판사, 조선음악사, 조선미술사 등의 출판사들이 통합.

출판사	주요 출판물	기타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경제연구’(월간, 99.3현재 누계 104호), ‘력사과학’(계간, 99.6현재 누계 170호), ‘문화어학습’(계간), ‘철학연구’(월간, 99.3 현재 누계78호) ‘조선의 민속전통’(시리즈), ‘조선전사’(시리즈), ‘현대조선말사전’, ‘문자학개요’	1952년 과학원이 설립됨에 따라 이듬해인 1953년 9월 15일에 ‘과학원출판사’로 창립되었다가 개칭됨.
조선인민군출판사	‘조선인민군’ 북한군 관련 출판물 담당	1949년 5월 27일 <선전원수첩> 발간을 계기로 창립됨.
평양출판사	‘꽃피는 처녀’, ‘민족의 찬란한 태양을 따라’, ‘향도의 태양’, ‘위인의 초상’, ‘우리 민족제일주의론’, ‘김정일 지도자’(시리즈), ‘김정일장군님과 리인모’	
조선미술출판사	‘조선공예사’, ‘회상기 그림책’(시리즈), ‘우화그림책’(시리즈), ‘주체미술의 대전성기’, ‘그림책’(시리즈)	
외국문종합출판사	‘Korea Today’(월간), ‘D.P.R. of Korea’(월간), ‘Foreign Trade of the DPRK’(계간, 칼라화보), ‘朝鮮の貿易’(계간), ‘평양타임즈’(영·불어 신문) ‘김일성주석과 오늘의 조선’, ‘개성고려인삼’, ‘친선의 장’	1949년 12월 4일 ‘새조선사’란 이름으로 창립한 이후 1956년 5월 현재 이름으로 개칭됨. 해외선전을 목적으로 외국어 번역·출판을 전담 1999년 12월 현재 김일성 노작 65종 1,900만여부, 김정일 노작 109종 352만여부 출판. 번역부에서 영어·일어·러시아어·중국어·스페인어·불어 번역 출판 창립 25돌에 국기훈장제1급, 창립 30돌에 김일성 훈장수여 사장, 부사장, 편집위원회로 구성 편집국(교정부, 번역부, 경리부, 화보편집부, 새조선편집부, 오늘의 조선편집부)로 구성

출판사	주요 출판물	기타
외국문도서관출판사	‘現代日朝外來語辭典’, ‘그림해설/로어문법’ 외국어서적을 번역하여 각급 학교·행정기관·연구소 공급, 교육위원회 산하 출판사로 중고등학교, 대학교 외국어 교과서, 사전 등의 어학서적과 외국 과학·경제서적 번역서 출판	1963년 7월 9일 창립(?), 1975년 4월 9일 창립(?)
김일성종합대학교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계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계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계간, 98.11 현재 누계 300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계간, 98. 10 현재 누계 298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자연과학’(계간) ‘정치경제학’, ‘조선어문법’,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교육위원회 산하
고등교육도서관출판사	‘변증법적유물론’	1961년 12월 28일 창립 교육위원회 산하로 대학을 비롯한 상급학교 교재 출판
교육도서관출판사	‘조선어’, ‘조선지도첩’(시리즈), ‘지리용어사전’, ‘사회주의 교육학’	1945년 11월 창립. 교과서, 참고서, 교편물
교육출판사	‘인민교육’(월간), ‘교원선전수첩’(월간), ‘교양원’(격월간)	
아동도서관출판사		아동 대상용, 도서출판, 동구 사회주의 국가 아동문학 번역출판
예술교육출판사	‘조선화그리기’(시리즈), ‘조선화가 리석호의 화첩’, ‘꽃·새 그리기’, ‘기타배우기’, ‘시창·인민반용’(시리즈), ‘조선화실기’, ‘금강산의 노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현지 속사와 습작’	1974년 2월 창립
조선녀성사	‘조선녀성’(월간)	‘조선녀성’은 여성동맹기관 지로서 1999년 3월 10일 국기훈장 1급 수훈

출판사	주요 출판물	비고
학생소년출판사	‘새세대’(잡지), ‘소년신문’, ‘동물의 생활’	
과학기술출판사	‘과학원통보’(격월), ‘화학과 화학공학’(격월), ‘전자공학’(격월), ‘생물학’(계간), ‘수학’(계간), ‘물리’(계간), ‘분석’(계간), ‘기계공학’(계간), ‘금속’(계간), ‘주철’(계간), ‘채굴공학’(계간), ‘지질 및 지리과학’(계간), ‘전기자동화공학’(계간), ‘조선료리’(계간), ‘기계제작’(계간) ‘백두산총서’(전10권)‘영조전자공학사전’, ‘로조금속사전’, ‘백두산 지도첩’, ‘극소형전자계산기식 자동조종체계’, ‘동물’(시리즈), ‘미생물’	
과학출판사	‘조선식물지’, ‘조선식물도감’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기술혁신’(월간), ‘과학의 세계’(격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공보’(계간), ‘국내과학기술문헌초록’(계간), ‘전자자동화’(월간), ‘금속’(격월), ‘의약’(격월), ‘약학’(격월), ‘화학’(격월), ‘농업’(격월), ‘수산’(격월), ‘전력’(격월), ‘생물학’(격월), ‘광업, 지리’(격월), ‘수의, 축산’(격월), ‘물리, 수학’(격월), ‘건설’(격월), ‘교통운수’(격월), ‘식료’(격월), ‘경공업’(격월), ‘국토’(계간)	1963년 8월 창립
의학과학출판사	‘조선의학’(계간, 주체의의학(?)) ‘고려치료경험’(시리즈), ‘녀성공팔질병’, ‘금성폐염’,	의학관련 도서 출판
공업출판사	‘유연생산체계와 로버트기술’(시리즈), ‘조선수산사’(시리즈), ‘다시마육종기술’, ‘섭조개양식과 가공’	1948년 8월 창립
공업종합출판사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식료공업’, ‘광업’, ‘공업로보트총서’(시리즈), ‘천무늬도안 자료집’, ‘장식수본’, ‘새로운 옷형태와 가공’(시리즈), ‘옥류관료리’, ‘관광지건축’	공업관련 기술이론 도서 출판
수산출판사		수산 분야 도서 출판
체신출판사	‘체신’, ‘조선우표’	체신업무 관련 기술도서

출판사	주요 출판물	비고
근로단체출판사	‘사회주의생활문화백과’, ‘김정일화’, ‘주체시대의 영웅들’(시리즈), ‘조국은 목숨보다 귀하다’, ‘숨은 공로자들’, ‘비화집/죄악의 발자취’, ‘투쟁과 생활의 본보기’, ‘계절음식’	1946년 2월 창립
철도출판사	‘화물작업과 계산기초’, ‘다리건설의 현대화’, ‘철길측정’, ‘전기기관차 운전리론’, ‘레투고착장치’	1951년 12월 창립
교통출판사	‘선동원 수첩’(잡지)	교통운수 기술이론 도서
건설출판사	‘건축과 건설’, ‘도시경영’, ‘조선원림’	건설관련 도서 출판
경제출판사		경제관련 도서 출판
문화보존연구소	‘조선유적유물도감’, ‘단군릉’, ‘조선력사유물’	전문출판사는 아니며, 문화보존정책 수행하는 기관
조국통일사	‘민족의 통일념원을 지니시고’,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조국통일방과 통일국가 10대 정강’, ‘민족의 태양을 우러리’	
농업출판사(구 국립농업출판사)	‘농업수리학’(격월), ‘기상과 수문’(격월) ‘조선농업사’(시리즈), ‘토양사전’, ‘작물병리사전’, ‘과수사전’, ‘농기계 시험방법’	1946년 9월 국립농업출판사로 창립. 1960년대 초 선진농업사와 농업기술사를 통합
체육출판사	‘장군님과 체육’(사진집), ‘주체 체육의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세계축구계의 별들 잡지’, ‘조선의 체육 농구’, ‘대중 체육’	1949년 2월 28일 창립, 1973년 1월 6일 (조선중앙TV, 2000년 1.6보도) 1999년 3월 23일 창립50주년을 맞아 국기훈장1급 수훈, 체육선전과 체육과학기술 보급사업
무역출판사	‘무역’(월간)	상품선전 전단, 대외선전 전단

출판사	주요 출판물	비고
통일문학사	‘통일문학’(계간)	
민족출판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주체의 인생관’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연간, 98년 누계52호)	1946년 12월 5일 북조선 통신사로 창립, 1948년 10월 12일 조선중앙통신사로 개칭, 북한 유일한 통신사로 국내외 뉴스 독점 공급
등대사	‘등대’(격월) ‘우리의 령도자’	
천리마사(군중문화출판사?)	‘천리마’(월간, 99.8 현재 누계483호)	1959년 1월 창간, 대중교양지,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산하
근로자사	‘근로자’(월간, 로동당중앙위원회 이론기관지)	로동당출판사 산하기관으로 조선로동당출판사 업무 대행
근로여성출판사		여성혁명가들에 대한 도서, 여성교양물
오늘의조국사	‘금수강산’(월간)	
조선화보사	화보‘조선’(월간, 99. 6 현재 누계506호)은 한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노어 발간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화첩’, ‘오늘의 조선화’	외국문종합출판사 안에 조선화보사가 있음.

\* 자료출처 : 북한 원전 자료 외, 「2000 북한연감」(연합뉴스, 1999. 9), 「북한용어」(연합뉴스, 1999. 2), 김응환 외, 「멀티미디어 북한문화예술사건」(정보통신부, 1999), 국가정보원 도서목록 자료, 대훈서적 수입도서자료 목록, 주식회사 유 피 에이 도서목록 등.

## &lt;표&gt; 고전문학의 출판 및 현대화 양상

연대	작품명	창작단체	장르	출연진 및 특기사항
해방직후	심청전	국립연극단	연극	
1947	춘향전	국립연극단	연극	
1954	홍부전	조선작가동맹출판사	문학	윤세평
1955	홍경래	국립출판사	문학	남궁만
1955	림격정(1-6)	국립출판사	문학	홍명희
1955	사씨남정기	국립출판사	문학	윤세평 주해
1955	박씨부인전	국립출판사	문학	지봉문 주해
1956	배비장전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문학	박지함 편집
1957	심청전	국립출판사	문학	윤세평
1958	김만중 작품선집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문학	김현봉 편
1959	춘향전		영화	주동인 각색, 천상인 연출
1960	박지원 작품선집 I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문학	홍기문 역
1961	옥랑자전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문학	최규환
1963	홍부전		영화 110분	김성교, 리성환 연출 김세영·남궁런 주연
1980	춘향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영화 115분	백인준·김승구 영화문학(시나리오), 유원준·윤룡규 연출, 김영숙·최순규 주연
1981	박씨부인전	문예출판사	문학	
1983	사성기봉(하)	조선문예출판사	문학	
1983	쌍천기봉(상)	조선문예출판사	문학	오희복
1984	운달전	문예출판사	문학	조령출
1985	심청전	금성출판사	문학	이원수 엮음
1984 (*5)	사랑 사랑 내 사랑	신필름영화제작소	영화(뮤지컬), 145분	신상옥 감독(*정령출 연출), 최은희 각색, 장선희·리학철 주연 조령출 작사 주제가 <사랑사랑 내 사랑> 외에 <광한루로 어서가자>, <옥중가>, <한양천리 언제 가라> 등 여러 편의 노래 삽입.
1985	청 석 골 대 장 띠꺼정	금성청년출판사	문학	홍명희 원작, 홍석중 윤색
1985	보심록: 고전 소설집	문예출판사	문학	박현균

연대	작품명	창작단체	장르	출연진 및 특기사항
1985	홍길동전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문학	박현균
1985	리춘풍전	조선문예출판사	문학	박병식 편집
1986	온달전		영화(90분)	하용만 연출, 최순규·최금옥 주연
1986	홍길동		영화(35mm) 115분	김길인 연출, 리영호·박춘희 주연, 북한 최초의 활극 오락물
1986	불가사리	신필림영화촬영소(*조선예술영화촬영소)	영화(SF)	북한 최초의 괴수 영화
1986	옥린몽(상)	문예출판사	문학	오희복 역
1986	창선감의록	문예출판사	문학	박홍준
1986	소년장수	조선과학영화촬영소	애니메이션	연출 송종건, 김광선 1-20부, 각 15-20분
1986	콩쥐팍쥐	금성청년출판사	조선만화집	김형운
1986	금방울전	금성청년출판사	문학	송봉렬 윤색
1987.4	하진량문록(하)	문예출판사	문학	김광현 윤색·김충기 주해
1987.8	하진량문록(상)	문예출판사	문학	윤석범 윤색·리동윤 주해
1987	봉황금	문예출판사	문학	박현균
1987	황백호전·황월선전·운영전	문예출판사	문학	<황백호전> 권택무 윤색 주해 <황월선전> 림호권 윤색 주해
1988	현수문전	문예출판사	문학	김칠환 윤색 및 주해
1988	진장군전·리대봉전·어룡전	문예출판사	문학	<리대봉전> 리창유 윤색·조동옥 주해 <진장군전> 김세민 윤색 및 주해 <어룡전> 최옥희 윤색 및 주해 박병식 편집

\* 기타 연도가 확인 안 된 작품

작품명	창작단체	장르	출연진 및 특기사항
심청전	만수대예술단	창극	김영희 연출
홍길동전	국립출판사	문학	윤세평 주해
홍부와 놀부	국립인형극단	인형극(장막)	
홍부전	국립출판사	문학	윤세평주석
토끼전	조선과학영화촬영소(인형영화제작단)	아동영화	스톱모션으로 제작
춘향전	만수대예술단	가극	김영희 연출
량반전		영화(흑백)	천상인 연출, 리 단 주연
보심록		영화	전종팔 연출, 김 원 주연
선화공주	만수대예술단	가극	김영희 연출
온달과 공주	만수대예술단	가극	김영희 연출
고구려사람들	국립민족예술단	민족가무조곡	1990년대 민족가극 <춘향전>의 창작원칙에 따라 창작됨. 백환영 안무, 총12장 구성
평양성 사람들	국립민족예술단	민족가무조곡	1997년 9월 24일 김정일 창작지도
가아금에 깃든 이야기		영화(칼리)	연 출 윤룡규·김길하, 주 연 박효신·최희영 우륵의 일생을 영화화
강릉치녀와 평양젊은이		영화(칼리)	연 출 장영복, 주 연 류광춘·남룡우
림격정		영화(칼리)	장영복 연출, 최창수 주연 활극 역사물
두 장군 이야기	조선과학영화촬영소	애니메이션	
두 장수	조선과학영화촬영소(인형영화제작단)	인형영화	
쇠도끼 금도끼	조선과학영화촬영소	지형영화	
소년장수	조선과학영화촬영소	애니메이션	다부작

\* 자료출처 : 「조선중앙연감」(조선중앙통신사), 정홍교 외, 「조선고대중세문학작품해설」(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6), 「북한의 아동영화 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북한의 고전문학」(고려원, 1990), 「북한의 국영출판체제와 남북한 출판물 교류에 관한 연구」(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9),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북한문화교류방안」(문예진흥원, 1998), 북한 공식 홈페이지 조선인포뱅크, 연변대학 도서관 북한 자료 목록, 국가정보원 도서목록 자료, 북한서적 출판사 북한자료 목록.

\* 는 북한 자료의 근거

## 부록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채택)

###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제2조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 저작물의 리용을 바로 하는 것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 조건이다. 국가는 저작물의 리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5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약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6조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7조 국가는 저작권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저작권의 대상

제8조 저작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선결조건이다. 해당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과학논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4. 영화, 텔레비존 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5.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8.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제10조 원저작물을 편자,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민족고전 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제11조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서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 제3장 저작권자

제13조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2.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
3.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제15조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2.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3. 저작물을 편자,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4.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

제16조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다.

제17조 두명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들이 공동으로 가진다. 공동저작권은 저작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된다. 이 경우 대표를 선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제18조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제작한 자가 가진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리용된 소설, 대본, 음악, 미술저작물 같은 것에 대한 저작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저작물을 개작, 편집한 자는 저작권 행사에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진다. 인격적 권리는 양도, 상속할 수 없으며 무기한 보호된다.

제21조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재산적 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될 경우 그 권리는 계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

제23조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5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 제4장 저작물의 리용

제26조 저작물의 리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저작물의 리용은 저작권자가 한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 또는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한 저작권자나 승인한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2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2.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3. 학교 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4.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리용할 경우
5.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6.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7.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8.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9.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

## 제5장 저작권접권자

제33조 저작권접권자는 저작권을 리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이다.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자는 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한 자는 이름을 밝히거나 공연을 복제, 방송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복제물을 배포할 수도 있다.

제35조 저작물을 리용하여 녹음 또는 녹화물을 제작한 자는 그것을 복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물, 복제물을 배포할 수도 있다.

제36조 저작물을 리용하여 방송한 자는 그 녹화물을 녹음, 녹화, 사진촬영 같은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을 할 수도 있다.

제37조 공연물, 녹음 또는 녹화물, 방송물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8조 저작권접권자 보호기간은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때부터 50년까지이다. 보호기간의 계산은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한다.

제39조 저작권접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40조 공연물, 녹음 또는 녹화물, 방송물은 제32조에서 정한 경우들에 한하여 저작권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할 수 있다.

##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권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43조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표하기 위하여 제출된 남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45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6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47조 이 법을 어겨 저작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제48조 저작권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